

**이재운**  
이민법 변호사  
저의 케이스를  
진행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703.916.1111 / 703.916.1215

경쟁력 있는 이자를  
**Promo Plus**  
정기예금 (CD)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지점에 문의하십시오.  
Bank of Hope

# 중영일보

**“최고”**  
가장 많은 이들의 선택  
**배준원** 응자  
NMLS# 178471  
703-868-7147

**유 파이낸셜 그룹**  
**메디케어**  
703-961-8811

대표전화: (703)281-9660 dc.koreadaily.com

The Korea Daily

COPY RIGHT 2024 제 69079호

Monday, July 29, 2024 A

## ‘트럼프·해리스’ 100일 진검승부 시작

대선 D-100

미국 대통령 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수뇌부의 전방위적 압력으로 스스로 대선후보에서 사퇴한 이후, 민주당은 부통령인 카말라 해리스 대선후보 체제로 신속히 전환하며 ‘트럼프 대세론’을 잠재우고 있다.

현재 대선 여론조사 결과가 트럼프 (사진 왼쪽), 해리스 간의 박빙상태로 집계되는 가운데, 보수성향 정치 관계자들은 해리스(사진)와 언론간의 ‘하나된’ 기간이 끝나면 트럼프 측의 본격적인 해리스에 대한 공격이 이뤄지며 트럼프의 우위가 점쳐진다고 밝히고 있다. 바이든 정부에서 불법이민자 문제를 총괄했던 해리스 부통령의 여러 실책들이 표면 위에 떠오르고, 해리스 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했던 샌프란시스코가 어떻게 현재의 ‘노숙자와 범죄자들의 도시’로 몰락했는지를 트럼프 측이



철저히 검증한다면 해리스의 ‘인기 거품’이 가라앉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민주당 측도 이런 해리스 부통령의 ‘약점’을 매우기 위해 몰발작업을 펼치고 있다. 특히 공들이고 있는 것이 ‘부통령 후보’ 선택이다. 이에 대해 의회전문매체 ‘더 힐’은 마크 켈리 애리조나주 상원의원이 급부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리스 캠프는 켈리 의원에 대한 부통령 후보 검증 절차에 이미 돌입했는데, 일설에 의하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켈리 의원을 바이든 대통령을 대신할 민주당 대선후보로 적극 추천했다.

켈리 의원은 존 매케인 공화당 상원의원 사망 후 치러진 2020년 특별선거에서 승리, 공화당 텃밭이던 애리조나에 민주당 깃발을 꽂았다. 항공우주국(NASA·나사) 비행사 출신이라는 독특한 경력과 해군에서 복무하며 걸프전쟁 당시 수습차려 ‘사막의 폭풍’ 작전에 참가해, 해리스 부통령에게 부족한 중도 보수의 면모를 두루 갖추고 있다. 주요 결합주의 중도성향 유권자들의 관심이 이번 대선의 결과를 가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켈리 의원이 민주당의 ‘히든 카드’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박세용 기자

## 양궁 단체전, 올림픽 10연패 새역사

한국 여자 양궁이 10연패의 위업을 달성했다. 1988년 서울 올림픽부터 지켜온 왕좌를 36년째 지켰다.

임시현(21·한국체대), 전훈영(30·인천광역시청), 남수현(19·순천시청)은 29일(한국시간) 밤 프랑스 레쟁발리드에서 열린 2024 파리 올림픽 여자 양궁 단체전 결승에서 중국을 세트 점수 5-4(56-53, 55-54, 51-54, 53-55, 29-27)로 꺾고 금메달을 따냈다. 동메달결정전에선 멕시코가 네덜란드를 물리쳤다.

단체전이 처음 도입된 1988년 서울 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냈던 한국은 10회 연속 우승이란 진기록을 세웠다. 단일 국가 최다 우승 기록은 미국이 1896년 아테네 대회부터 1968년 멕시코시티 대회까지 16회 연속 육상 남자 장대높이뛰기에서 금메달을 따낸 것이다.

8강에서 대만을 6-1로 이긴 한국은 준결승에서 네덜란드를 6-0으로 물리치고 결승에 올랐다. 올해 월드컵에서 두 차례나 패했던 중국이지만, 가장 큰 무대인 올림픽에선 당당히 이겼다. 시시각각 변하는 바람이 우리 선수들을 괴롭혔지만, 대표팀의 장기인 ‘오조준(일부러 정중양이 아닌 곳을 조준하는 기술)’을 통해 이겨냈다.

1세트에서 한국은 기선을 제압했다. 8강에선 부진했지만 점차 컨디션을 끌어올린 전훈영이 10점에 두

발을 꽂았다. 남수현도 첫 발은 8점이었지만, 두 번째 발을 한가운데 적중시켰다. 2세트에서도 기세가 이어졌다. 46-54에서 에이스 임시현이 9점을 기록했다. 중국도 그냥 물러나진 않았다. 3세트를 따내며 반격했다.

4세트에서 전훈영은 또다시 10점을 적중시켰다. 남수현과 임시현은 각각 8점을 쏘았다. 26-28. 전훈영은 또다시 10점을 쏘면서 역전극의 발판을 마련했다. 그러나 임시현이 또다시 8점에 머물러 승리를 따내지 못했다.

준결승에 이어 또다시 펼쳐진 슛오프에서 한국 선수들은 승리를 따냈다. 18-18 상황에서 임시현이 9점을 맞췄고, 중국의 마지막 발도 9점에 그쳐 동점이 됐다. 그러나 전훈영과 임시현이 쓴 화살이 10점으로 인정되면서 승리를 거뒀다.

여자 대표팀 선수들은 올림픽이 처음이다. 지난해 항저우 아시안게임 3관왕(개인전·단체전·혼성전) 임시현도 올림픽은 첫 출전이다. 베테랑 전훈영은 태극마크를 여러 차례 달았지만 아시안게임도, 올림픽도 나간 적이 없었다. 막내 남수현도 떠오르는 신예다.

지난 4월 선발전이 끝난 뒤 우려와 걱정 섞인 목소리도 많았다.

파라·김효경 기자

▶▶ 2면 ‘양궁 단체전’으로 이어집니다



## 프랑스 국민 86%, 개최식 호평...일부에선 “역대 최악”

프랑스 국민의 86%가 2024 파리 올림픽 개최식이 성공적이었다고 29일 평가했다.

엔 데스캄프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대변인은 이날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프랑스 국민의 86%가 개최식이 성공적이었다며 만족감을 표했다”고 밝혔다.

“완전히 개방된 대회”(Games Wide Open)를 슬로건으로 내세운 파리 올림픽의 개최식은 지난 27일 역대 올림픽 최초로 주경기장이 아닌 파리 도심의 르느와르 광장과 에펠탑 등 야외에서 열렸다.

센강을 중심으로 한 파리시 전체를 배경으로 프랑스의 유구한 역사와 추구하는 이념 등을 창의적인 문화 예술

공연으로 풀어냈다는 호평을 받았다. 그러나 호평과는 달리 일부 프로그램 중에는 세계인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퍼포먼스도 있었다.

긴 식탁 위에 DJ, 댄서 등이 올라가 춤을 추는 장면을 연출했는데 이를 두고 예수와 제자들의 ‘최후의 만찬’을 조롱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여장 남자(드래그퀸) 출연자들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명화 ‘최후의 만찬’을 패러디하면서 예수의 사도로 등장한 장면은 기독교계의 거센 반발을 불렀다. 데스캄프 대변인은 “특정 종교 단체에 무례함을 보이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면서 “개회식을 보고 기분이 나빴던 사람이 있다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고개 숙였다.

또 장내 아나운서는 한국 선수단이

입장할 때 북한으로 소개하는 황당한 사고도 저질렀다. 이에 IOC는 공식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했고 문화체육관광부에도 사과 서한을 보냈다.

올림픽 요원이 거꾸로 계양되는 등 세밀하지 못한 진행도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 밖에도 폭우가 퍼붓는 가운데 개회식이 3시간 이상 진행돼 지루했고, 빛소리에 대형 가수들의 노래도 잘 들리지 않았다는 불만이 폭주했다. 일부에선 개회식 내용 전체를 담은 만화만 땅한 물리적인 공간이 없었던 탓에 선수단 입장과 문화 공연을 섞어 산만했다는 평가를 포함해 ‘역대 개회식 중 최악’이라는 비판도 있었다. 한영혜 기자

▶▶ 2면 ‘프랑스’으로 이어집니다

**퍼스트 홈케어**  
WWW.FIRSTHCO.COM  
571.549.6789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 통증 전문 병원  
**교통 사고**  
원장 Dr. 김동국 D.C.  
410-480-0083

편한나라 척추신경  
**교통사고 디스크**  
엘리콧시티  
410-480-2331  
락빌  
301-279-6960  
원장 송영성, D.C.

**롱라이프 홈케어**  
571.623.0255  
Annandale

**골든 벨라 보석상**  
결혼 예물 전문  
G.I.A. 다이아몬드  
보석급 고가 재질  
순금 아가 플랜지링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10-988-5523

**형사법 전문 변호사**      **시작이 강해야 결과가 강합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ERIK JURGENSEN**      **DAVID MARKS**

막막한 순간, 나에게 힘이 되는 변호사를 믿으세요.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영향을 끼치는 형사사건, 대응에 부족함이 없어야 합니다.

20년 이상 한인사회를 위하여 일하고 있는 강하고 힘있는 법정 변호사, 데이빗 막스! 정직한 분석력과 정보,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축적된 실력으로 합당한 판결을 받아드리겠습니다.

- 음주운전 / 교통위반
- 폭행 / 아동학대
- 절도 / 횡령
- 기물파손 ■ 마약

저희 손을 잡으십시오. 저희에게 맡기십시오. 그리고 편히 주무십시오.

에릭 저젠슨 변호사 C. Erik Jurgensen, ESQ.  
• TOP Criminal Lawyers by Northern Magazine  
• TOP 20년간의 법정경력

형사법,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상담부터 재판까지 페어팩스 카운티 검사출신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상담 무료

교통사고 문의, 데이빗 막스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David L. Marks, ESQ      데이빗 막스 변호사  
• 20년간의 법정경력  
• Rated AV-PREEMINENT  
• SUPER LAWYERS  
• Member of "MILLION DOLLAR ADVOCATES FORUM"  
• NATIONAL TRIAL LAWYERS TOP 100 LAWYERS  
• TOP ATTORNEYS IN VIRGINIA

Connie A. Yoon  
카니 윤 법무이사

Martindale-Hubbell  
**NOTABLE**  
Peer Rated for Strong Ethical Standards 2019

www.davidmarkslaw.com  
한국어 상담 환영 **703.385.1100**  
10513 Judicial Dr. #204, Fairfax, VA 22030

**FREE The Ultimate Accident Guide**  
버지니아 자동차 사고 보험 청구 세번째 가이드북 출간  
이 책을 읽으시기전까지 보험회사와 연락하지 마십시오. 703-385-1100으로 연락주시면 무료로 위의 책자를 드립니다.

# 한·미·일 국방 첫 3국 협력 각서... 북 미사일 정보 공유도

3국 국방장관, 군사공동훈련 명문화  
올해 하반기에도 프리덤 에지 진행  
장관회의도 정기적으로 열어 소통  
한·일, 육해공 부대 교류 재개 합의



한·미·일 국방장관이 28일 일본에서 첫 3자 회의를 열었다. 왼쪽부터 신원식 국방장관,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연합뉴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기하라 미노루(木原稔) 일본 방위상이 28일 도쿄에서 공동 군사훈련의 정례화를 명문화하는 내용의 '안보협력 프레임워크(TSCF) 협력 각서'에 서명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협력 각서엔 ▶3국 국방장관회의(TMM) 정례화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 운용을 위한 3국 간 소통·협력 강화 ▶다년간 3자 훈련 계획에 기반한 '프리덤 에지' 등 3자 훈련의 정례적·체계적 시행 등이 담겼다. 각서는 발표와 동시에 발표했다.

이번 문서는 한·미·일 국방 당국 차원에서 체결한 안보 관련 최초의 협력 각서다. 국방부는 "고위급 정책 협의와 정보 공유, 3자 훈련, 국방 교류 협력 등을 담은 TSCF는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그 너머의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국방 당국 간 안보 협력 제도화의 산물"이라며 "3국 협력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미일 국방부도 "3국 관계가 새로운 도약을 맞았다"고 밝혔다. 3국 국방장관이 다자 회의의 계기가 아닌 당사국 수도에서 모인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내년 회의는 서울에서 열린다.

3국이 정례적·체계적 시행에 합의한 '프리덤 에지'는 해상, 공중, 사이버 통틀어 진행되는 3국 간 다영역 군사훈련이다. 3국 장관은 지난 6월 아시아 안보회의(상그릴라 대화)에서 "명칭을

부여한 3자 훈련"을 정례화하기로 했고, 같은 달 말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처음으로 다영역 훈련 프리덤 에지를 진행했다. 3국 국방장관은 올 하반기에도 프리덤 에지 훈련을 실시하기로 했다. 한국이 미국 외에 주요국과 공동 훈련을 문서로 약속한 사례는 흔치 않다. 신장관이 현지 특파원과 만나 "한·미·일 안보의 제도화는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강조한 배경이다.

이번 각서 체결을 두고는 "오는 11월

대선을 앞둔 미 정권 교체 가능성뿐 아니라, 그간 한·미·일 안보 협력의 '약한 고리'로 여겨졌던 한·일 간에도 일종의 안전장치를 채운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3국 장관 모두 각국의 정권 교체에 따라 안보 협력만큼은 부침을 겪지 않도록 하자는 데 공감했다고 한다. 미국의 경우 11월 대선으로 인한 '트럼프 리스크'가 있다. 문재인 정부가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를 이유로 '한일정보보호협정

(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한 사례도 있다.

이 밖에 이날 3국 국방장관들은 북한과 관련해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어긋나고 역대 국가들의 우려를 사는 라·북 간 군사·경제 협력 의지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의 핵무기 투발 수단 다양화와 다수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을 비난한다"는 메시지를 냈다.

한·일 국방장관은 육·해·공군과 일본의 육상·해상·항공자위대 간 정례 협의체와 부대 교류를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양국 국방 수장과 육·해·공 참모총장과 막료장 등 고위급 교류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신 장관은 이날 한·일 간 안보 협력과 관련해 "몇 년간 국내적 정치 이슈 때문에 때로 국방 협력이 후퇴하거나 정체된 측면이 있었다"면서 "한·일 간 각각의 입장은 다르지만, 안보는 이견 없이 동일한 위협에 대응해야 하는 만큼 (갈등은) 상호 신뢰 존중의 입장에서 차근차근 풀어가되 국방 협력은 그런 것과 무관하게 국익에 부합되게 발전시키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도쿄=오누키 도모코 특파원  
이영정 기자

## 미국, 주일미군 통합군사령부 신설 중국 견제·대만 유사시 대비 분석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 전력인 주일미군에 통합군사령부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중국의 군사력을 견제하고 대만 유사시를 대비한 움직임이란 관측이 나온다.

미·일 양국은 28일 일본 도쿄에서 외교·국방장관 회담(2+2)을 열고 이런 방침을 확정하고 공동성명에 해당 내용을 포함했다. 주일미군 통합군사령부는 자위대가 올해 말 240명 규모로 창설하는 육·해·공 통합작전사령부에 대응하는 카운터파트 조직이라고 이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전했다.

현재 일본 방위성 내에 자위대를 총괄하는 통합막료감부가 있지만, 조직을 이끄는 통합막료장이 총리를 보좌

하기 때문에 실제 작전을 지휘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통합작전을 전담하는 부대를 신설하는 것이다. 한국군의 경우, 양 기능을 모두 합동참모본부에 맡기고 있다.

닛케이는 "주일미군 통합군사령부는 아시아 주변의 안보 환경 악화를 고려해 만들어지는 것으로 일본 측이 미·일 협력 강화를 위해 창설을 요청해 왔다"며 "주일미군의 작전지휘권을 가지며 규모는 자위대 통합작전사령부와 같은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람 이매뉴얼 주일 미국대사도 이날 보도된 요미우리신문과 인터뷰에서 "일본이 통합작전사령부를 발족하는

데 맞춰 (미국은) 주일미군 '작전부대(Operational Component)'를 설치할 것"이라며 "주일미군은 그동안 미·일 동맹을 관리하는 존재였지만, 작전부대 설치로 자위대와 연계가 크게 달라져 미국의 (전쟁) 역지력에 대한 (일본의) 신뢰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일본에는 육·해·공군과 해병대 등 약 5만5000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지만 부대 운영 권한이나 작전지휘권은 도쿄 요코타(横田) 기지의 주일미군사령부가 아닌 하와이의 인도-태평양사령부가 갖고 있다. 이로 인해 일본에선 자위대와 주일미군의 실질적 연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양국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일미군사령부가 있는데도 굳이 새로운 사령부를 만드는 건 대만 유사 사태와 같은 긴급한 상황에서 작전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호 기자

▶1면 '양궁 단체전'에서 이어집니다.  
올림픽을 앞두고 열린 세 차례 월드컵 중 두 번이나 중국에 발목을 잡혔다. 하지만 6개월이 넘는 선발전과 평가전을 이겨낸 여궁사들은 단단했다.

국제양궁연맹은 지난 36년 동안 6번이나 제도를 바꿨다. 거리를 조정하고, 발사 횟수를 바꿨다. 토너먼트제, 세트제, 숏오프(연장전에서 중앙에 가까운

화살로 승자를 가리는 방식)도 도입됐다. 하지만 한국의 '신궁'들을 이길 순 없었다.

대표팀 훈련방식을 속속들이 아는 지도자들도 전세계로 퍼져나갔다. 이번 올림픽에서는 개최국 프랑스를 포함 8개국 이 한국인 감독을 선임했다. 그럼에도 한국 양궁을 넘진 못했다.

파라=김효경 기자

▶1면 '프랑스'에서 이어집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영국이 낳은 팟스타를 총동원, 화려한 무대를 꾸며 역대 최고로 평가받는 2012 런던 올림픽 개최식과 파리 올림픽 개최식을 비교하기도 한다.

한편,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적지 않은 논란을 야기한 2024 파리 올림픽 개최식 동영상을 미디어 플랫폼에서 삭제했다고 영국 데일리메일 등이

국 언론이 이날 보도했다.

IOC의 유튜브 채널에 따르면 2012 런던,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은 물론 1998년 나가노, 2022년 베이징 올림픽 개최식 동영상 전체 버전이 남아 있지만, 파리 올림픽 개최식 영상은 삭제돼 있다. IOC와 파리 올림픽 조직위원회 모두 삭제 사유와 관련한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고 데일리메일은 전했다.

한영혜 기자

**워싱턴 날씨 (°F)**

30일(화)	84~72	2일(금)	93~73
31일(수)	92~72	3일(토)	93~72
7월 29일(월)	92~73	1일(목)	95~75
		4일(일)	93~72

**워싱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The Korea Daily (USPS 020-081)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and Postal holidays that fall on Mondays for \$120 including applicable Virginia Sales Tax per year by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pke., Annandale, VA 22003. Periodicals Postage paid at Annandale, VA and at additional mailing offices.  
POST MASTERS: send address changes to The Korea Daily.

**연순향 부동산** 703-489-6926  
sunnyyeon@gmail.com

**BURK 타운홈 3층 END UNIT**  
PENDING \$660,000  
전체 마루/부엌/화장실 리모델링 집

**싱글홈 지하 벤트**  
월아웃 \$2,100  
방2, 화장실2, 풀키친, 단독사유, 드라이어

**문&박 합동법률사무소** (문&박 합동법률사무소)는 1984년 이래로 지난 40년간 워싱턴 한인사회와 함께 성장해왔습니다. 교육위원회, 도시개발위원회, 인권위원회, 소수계학생문제 자문위원회 등 지역 주류사회에서도 적극 활동하며, 한인동포 여러분을 위해 정확하고 친절한 종합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지식 오랜 경험**

**문일통 변호사**

- Harvard 대학
- William and Mary 법과대학원
- 페어팩스 카운티 현 6선 교육위원
- 페어팩스 카운티 Planning Commissioner(전)
- 버지니아 주지사 도시정책 자문위원(전)
- VA 변호사 자격

**박상근 변호사**

- 서울 법대, 대학원 졸업
- George Washington 법대 법학 석사
- 전 Fairfax County 인권위원회 부의장
- 전 버지니아 주의회 이민난민 정책위원
- 전 북미주 기독교실업협회 총연합회 회장
- VA, MD, DC 변호사 자격

**우시영 변호사**

- Georgetown 법대 법학 석사
- 한양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 정회원
- 주요 일간지 이민 법률 상담 변호사
- 전 아태법률구조센터(APALRC) 법률 통역
- 전 LG에서 채권 및 담보 업무 담당
- VA, NY 변호사 자격

**취급 업무** 민/형사 소송, 교통사고, 학생/취업/연수/종교/투자 비자, 각종 이민, NIW, 추방재판/면제, 손해배상, 가정법, 사업체/부동산 매매, 영리/비영리 회사설립, 임대차 계약, 고용 관계, 유서 작성, 상속 수속, 이혼, 입양 등

**문&박 합동법률사무소** 대표전화 **703-941-7395** www.moonparklaw.com  
7617 Little River Tpke., Suite 800 Annandale, VA 22003

# “한미동맹이 오늘날 평화, 번영 이뤄”

### 한국전쟁 정전협정 71주년 기념식

제71주년 한국전쟁 정전협정을 맞아 지난 27일 워싱턴 DC 한국전 참전 기념공원에서 기념식이 열렸다.

한국전참전기념비재단(KWVMF)가 주관한 이날 기념식에는 참전용사, 유가족, 참전단체 관계자 및 탈북자 등이 대거 참석했다.

기념식에서 조현동 주미대사는 조 대사는 “굳건한 한미 동맹의 토대는 한국 전쟁에서 싸우고 숨진 참전 용사들”이라며 “대한민국의 눈부신 성장과 오늘날의 번영은 한미 동맹이 없었다면 결코 누리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조 대사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원래 임무가 끝났다고 생각할 만큼 순진하지 않다”면서 “북한은 군사 능력을 강화하고 핵무기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가 직면한 위협은 더욱 커졌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 정상이 이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정상회담을 하고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 성명’을 채택한 것을 거론하면서 “이 문서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는 임무에 미국의 핵 자산이 투입될 것임을 명시한 최초의 문서”라면서 “한미 동맹은 핵을 기반으



(위) 조현동 대사가(가운데)가 존 킬러리 KWVMF 이사장(오른쪽) 등과 화화하고 있다. (아래) 참전유공자회 및 재향군인회 미동부지회 임원들이 조 대사 등과 기념촬영했다.

로 한 동맹으로 업그레이드됐다”고 강조했다.

기념식에는 이밖에도 KWVMF 존 킬러리 이사장(전 주한미군 사령관), 제프리 라인볼드 국립공원관리청 내셔널몰 및 기념공원 감독관 등이 참석해 축하했다. 킬러리 전 사령관은 “내서

널몰 내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 기념공원은 철통같은 한미동맹을 대표한다”면서 “이 기념공원은 자유는 공짜가 아니라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6.25참전유공자회(회장 손경준) 회원,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미동부지회(회장 김인철) 회원 및



글로벌어린이재단 VA 월례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 “각분야 인재영입에 협회발전 기대”

### 글로벌어린이재단 VA지부 월례회에 44명 참석 성황

글로벌어린이재단 버지니아지부(회장 김남숙) 7월 월례회가 역대 최대인 44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버지니아 페어팩스 소재 브레이크스 식당에서 열린 회의에서 김남숙 회장은 “각자의 분야에서 훌륭한 역할을 수행하시고 계신 분들이 새로운 회원들로 대거 영입돼 든든

하다”고 격려했다. 또한 “남을 아끼게 하는 말보다 따사한 말 한마디로 서로 격려해 보다 많은 사람들을 공감시키고 의미있는 일에 동참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월례회에서는 허진 총무의 회계보고, 홍은영 총회준비위원장의 사업보고, 김지혜-남정옥 회원에 대한 감사장 전달식 등이 이뤄졌다. 또한 이승만 건국 대통령에 대한 영화 ‘건국전쟁’ 시청도 이뤄졌다. 김윤미 기자

미주한인총연합회(총회장 서정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워싱턴협의회(회장 린다 한), 미주한인재단-워싱턴(회장 로사 박), 북한청년지도자회의(대표

이현승) 등이 참석해 호국영령을 기렸다. 특별히 이번 행사에는 방미 중인 세계 유일 탈북 청소년 야구단 ‘캘리포니아 장로사 박’, 북한청년지도자회의(대표 김윤미 기자

## 대학졸업자 35%, 자신 전공 “후회한다”

### 연준 설문조사 ‘후회하는 대학 전공’ ‘사회학, 심리학, 인류학 등’

대학을 졸업한 미국인의 35%가 자신의 전공 선택을 후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준비제도(Fed)가 1만1천여명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미국가구의 경제적 웰빙 조사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4년제 대학 졸업자의 1/3 이상이 과거로 되돌아 간다면 잘못된 전공을 바로 잡고 싶다고 전했다.

후회가 가장 많은 분야는 사회/행동 과학 전공으로 사회학, 심리학, 인류학이 속해 있다. 이 전공 학위보유자의

44%가 잘못된 선택을 후회했다. 공동 2위는 인문학/미술 전공에 속하는 음악, 미술, 종교, 철학, 역사학 등으로 후회 비율이 43%였다. 이 분야 전공자 상당수가 교사나 전문 예술치료사 등으로 일하고 있었지만 직업적 만족도가 높지 않았다.

또다른 공동 2위는 생명과학 분야로 생물학, 영양학, 동물학 등이었다. 이 분야는 각광받는 STEM 전공 중 하나로 꼽히지만 실제 취업 문호가 넓지 않아 고학력 전문기술자 외에는 별다른 대접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법학(41%), 교육학(38%), 자유전공(37%) 등의 후회비율이 높



았다. 한편 이 조사에서 가장 큰 경제적 어려움이 무엇인지는 질문에 대해 인플레이션(35%), 기본적 생활비(21%), 주거비용(12%), 취업(9%), 은퇴 및 저축(9%), 의료비용(6%), 부채(6%), 교육비

(5%) 등을 꼽았다. 반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답변은 ‘아무 걱정이 없다’는 대답이 31%로 가장 많았다.

응답자의 연소득은 10만달러 이상이 37%, 5만에서 9만9999달러 27%, 2만5천에서 4만9999달러 17%, 2만5천 달러

미만이 19%를 차지했다. 응답자의 소득별 원천은 복수응답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셀프 고용 포함)이 있다는 답변이 67%, 비근로 소득이 있다고 답변한 비율이 55%였다.

비근로 소득중 이자, 배당, 부동산 임대소득이 34%로 가장 많았으며 소셜 시큐리티 연금이 26%, 기타 공무원 및 직장 연금이 18%, SSI 소득구제가 5%, 실업급여가 2%였다.

2023년 한해동안 매월 소득이 증가한 가구는 34%, 소득이 감소한 가구는 13%로 큰 차이를 보인 반면, 매월 소비가 증가한 가구는 38%, 소비가 감소한 가구는 9%로, 소득 증가보다 더 많은 소비가 발생한 사실을 조사를 통해 유추할 수 있다. 김윤미 기자

**OMNI**  
Protecting Your Dreams Since 1985  
**오직 오니!**  
보험에 관한 일은 오니에게  
사업체보험  
자동차보험  
집보험  
의료보험  
생명보험  
광고는 대표  
**OMNI**  
1-866-915-6664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 최신형 의료시설 완비  
■ 최신형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703-691-3111**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메트로시티은행**  
METRO CITY BANK  
SBA 융자, USDA 융자, 주택 융자  
센터빌 지점 571-490-7655 애난데일 지점 571-335-7163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탑여행사**  
www.toptravelusa.com  
info@toptravelusa.com  
센터빌 703.543.2322 VA  
애난데일 703.256.0606 VA  
엘리콧시티 410.480.0100 MD  
항공권도매직판점

Dental Implant (치과 임플란트) \$1,000  
• Implant Crown, Extra (임플란트 크라운,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 of Dental Implants (다양한 종류와 형태의 치과 임플란트,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703)569-8000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 remember 7.27 한국전 정전 71주년 다시 한번 더 명복을 빕니다.



### 故 백선엽 장군

백척간두 위기에서 조국을 구한 6.25 전쟁 영웅 백선엽 장군! 현충원 친일 기록 삭제, 동상 건립 위원회 출범 (결성)



### 故 윌리엄 웨버 대령

숭고한 희생과 헌신의 삶을 몸소 보여주셨던, 팔과 다리를 잃은 한국 전쟁의 영웅 윌리엄 웨버 미 예비역 육군 대령!



### 故 스티븐 옴스테드 장군

6.25 전쟁의 참상을 누구보다 잘 아는 역사의 산 증인, 장진호 전투의 영웅 스티븐 옴스테드 장군!



정전 협정·평화 협정 반대  
한미 동맹 강화  
주한 미군 철수 반대



### 함께 하는 단체

워싱턴 통합 노인 연합회 / 사임당 소사이어티 / 재향군인 연합회 / 버지니아 한인회 / 워싱턴 시니어 보수연합 / 미국 수도 DC 한인회 / MD 몽고메리 카운티 한인회 / 워싱턴 통합 노인 연합회 회장 우태창

# 열기구 성화대·선상 행진 ... 올림픽 개회식의 혁명



**파리 PLUS** 프랑스 파리에 100년 만에 다시 열린 올림픽 개회식은 편견과 고정관념을 깬 한 편의 드라마였다. 다양한 장르의 예술 작품과 스포츠를 아우르는 톨레랑스의 결정판이기도 했다.

캐나다 퀘벡 출신 팝스타 셀린 디옹이 피날레를 장식했고, 프랑스의 유도 국가대표 테디 리네르와 은퇴한 육상 선수 마리 조제 페레크가 성화 점화를 맡았다. 세 사람 모두 카리브 해의 프랑스령 과들루프 출신으로 프랑스의 '다양성'을 상징하는 인물이다.

지난 27일(한국시간) 열린 파리올림픽 개회식은 스타디움이 아닌 센강 일원에서 열렸다. 올림픽 사상 최초로 물 위에서 치러진 개회식으로 기록됐다. 파리의 오스테를리츠 다리를 출발해 에펠탑 인근 트로카데로 광장에 이르는 센강의 6km 구간에서 선수단의 수상·선상 행진이 진행되는 신선한 방식이었다.

개회식은 굵은 빗줄기가 떨어지는 곳은 날씨 속에 시작됐다. 파리의 야경까지 포함한 이날 개회식은 약 4시간 동안 진행됐다. 센강 주변 다양한 장소에서 약 30만 명이 개회식을 지켜봤다. 질 바이든 미국 대통령 부인,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올라프 솔츠 독일 총리, 이츠하크 헤르츠로그 이스라엘 대통령 등 글로벌 리더들이 개회식에 참석했다.

이번 개회식은 다양한 공연 사이에 선수단 입장이 이뤄졌다. 성화의 여정

각국 선수단, 센강 유람선 타고 입장 유도 대표 리네르·육상 영웅 페레크 과들루프 출신 2인, 성화 점화 맡아 팝스타 셀린 디옹 열창, 개회식 절정



마지막 성화 봉송에 나선 지네딘 지단(왼쪽)과 라파엘 나달. [로이터·AP=연합뉴스]

을 표현한 영상과 퍼포먼스도 중간에 포함됐다. 영상과 현실의 조화도 호평을 받았다. 노르망디 대성당과 루브르 박물관, 오르세 미술관을 비롯한 다양한 파리의 명소가 틈틈이 공연의 배경으로 등장했다.

뤼미에르 형제가 만든 최초의 영화 '열차의 도착'과 현대 애니메이션 '미니언즈', 프랑스의 작가 가스통 르루가 쓴 소설을 바탕으로 제작된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몰랭루주 공연으로 유명한 '프렌치 칸캉', 유로 댄스 공연이 실재 없이 이어졌다. 또 드비이 육교 위에선 다양한 프랑스 디자이너의 작품을 보여주는 패션쇼가 벌어졌다.

선수 입장이 끝나고 에마누엘 마크

롱 프랑스 대통령이 개회 선언을 했다. 프랑스 축구 레전드 지네딘 지단이 등장하는 영상으로 시작된 성화의 여정은 실제 센강 주변 현장으로 연결됐다. 지단이 테니스 스타 라파엘 나달(스페인)에게 성화를 전달하면서 분위기는 고조됐다. 나달은 프랑스오픈이 열리는 롤랑가로스에서 14차례나 우승해 '파리의 남자'로 불린다. 나달은 파리 올림픽 단식과 복식에 모두 출전한다.

개회식의 대미를 장식한 건 캐나다 퀘벡 출신의 팝스타 셀린 디옹이었다. 디옹은 열기구 모양의 성화대가 올라갈 때 20세기 프랑스 최고 가수로 불리는 에디트 피아프의 '사랑의 찬가'를 불러 분위기를 절정으로 이끌었다. 디옹은 2022년 12월 희소 질환인 '전신 근육 강직인간증후군'(Stiff-Person Syndrome:SPS)을 앓는 사실을 공개한 뒤 무대에서 사라졌다가 1년 7개월 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아르헨 선수, 7500만원 귀금속 도난 =아르헨티나 축구 국가대표 선수 한 명이 지난 23일 훈련 도중 75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도난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비에르 마스체라노 아르헨티나 감독은 "도둑이 훈련장에 침입한 뒤 물건을 훔쳐 달아났다. 티아고 알마다가 시계와 반지를 잃어버렸다"고 밝혔다. 프랑스 경찰에 따르면 프랑스영포에 경기장 라커룸에서 도난 사건이 발생했으며 얼마다가 신고한 피해 물품은 4만 유로 상당의 시계와 1만 유로 상당의 반지로 알려졌다.

파리=피주영 기자



파리올림픽 개회식 성화 점화는 프랑스의 유도 선수 테디 리네르와 은퇴한 육상 선수 마리 조제 페레크가 맡았다. 열기구 모양의 성화대가 하늘로 올라가고 있다. [AFP=연합뉴스]

## 팀코리아 금 쏘고 질렀다, 산뜻한 파리의 첫 주말

한국이 사격·펜싱·수영 등의 선전으로 2024 파리 올림픽 초반 메달 레이스에서 순항했다.

'소녀 명사수' 오예진(19·IBK)은 28일(한국시간) 프랑스 앙드루주 샤토루 슈팅센터에서 열린 사격 여자 공기

권총 10m 결선에서 243.2점을 쏘 올림픽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따냈다. 함께 출전한 김예지(32·임실군청)는 241.3점으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한국 사격은 대회 첫날(27일) 공기소총 10m 혼성경기 박하준(24·KT)·금지현(24·경

기도청)의 은메달에 이어 이틀간 금 1, 은 2를 수확했다.

남자 펜싱의 '간판' 오상욱(28·대전광역시청·세계 4위)은 파리 그랑팔레에서 열린 남자 사브르 개인전 결선에서 세계 14위 파레스 페르자니(27·튀

니지)를 15-11로 꺾고 금메달을 차지했다. 2021 도쿄 올림픽에서 단체전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그는 한국 펜싱선수로는 처음으로 올림픽 개인·단체전에서 모두 정상에 섰다. 수영의 김우민(23·강원도청)은 파리 라데팡스 아레

나에서 열린 경영 남자 자유형 400m 결선에서 동메달을 따냈다. 전체 7위로 결선에 오른 그는 불리한 조건의 1레인에서 경기하고도 3위(3분42초50)로 터치패드를 찍었다.

파리=김효경·피주영·고봉준 기자

## 연방 질병 통제 예방센터 (CDC) 그랜트 유치

"REACH 리서치 프로그램 통해 향후 5년간 지역 사회 주민의 건강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



DC 메트로 지역 한인 사회를 위해 50년간 헌신하며 아시아인 커뮤니티 복지 향상의 대변인 역할을 해 온 비영리 기관, 워싱턴한인복지센터(이사장 김진아)가 2023년 9월 30일, 연방 질병 통제 예방 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로부터 5년간 총 \$3,595,040의 그랜트를 성공적으로 유치했다.

미국 전역에서 200여 개에 달하는 정부 조직, 교육 기관 및 비영리 단체들이 지원한 이번 CDC REACH (Racial and Ethnic Approaches to Community Health) 그랜트는 단 41개 기관에게만 수여되었다. 그랜트를 받은 41개 기관 중, 커뮤니티를 대표하는 비영리 단체로서 그랜트를 받은 곳은 은 워싱턴한인복지센터를 포함하여 단 2군데 뿐이다. 지원금은

REACH (Racial and Ethnic Approaches to Community Health)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향후 5년간 사용될 예정이다.

미국 내에서 연간 약 4조 1천억 달러 규모의 의료비 지출을 야기하는 원인이자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주요 이유가 되는 만성 질환 (비만, 심장병 등의 혈관성 질환, 당뇨 등의 대사 증후군, 암)은 신체 활동 개선, 식습관 개선, 치료 기회의 불평등 해소 등을 통해 예방 및 관리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주민간의 건강 불평등 문제 해결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취지이다.

질병 통제 예방 센터(CDC)에서 '영양, 신체 활동 및 비만 관리 부서'의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부문 책임자로 일하고 있는 테리 오톨(Terry O: Toole, PhD, MDiv) 박사는 "이번 펀딩을 통해 일부 인종 및 소수 민족 집단 내에 여전히 존재하는 광범위한 건강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길 기대한다."

아시아계 미국인, 아프리카계 미국인, 히스패닉계, 라틴계, 하와이 원주민 및 기타 태평양 섬 주민, 아메리칸 인디언, 알래스카 원주민 등 전국 41개 지역 사회 기관에 전

달된 이번 자금을 통해 체계화된 공중 보건 전략을 실행하면서 건강 격차를 해소해 갈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워싱턴한인복지센터의 조지영 사무총장(공중보건학 박사)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언어, 문화, 시스템, 재정적인 장애 등 여러 환경적 장벽을 없애고 누구에게나 공정한 건강 관리의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최종 목표다. DC 메트로 지역 내 여러 기관 및 단체, 커뮤니티 리더들과 연합하여 우리 아시아인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듣고, 요구사항들을 수렴하여 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자들에게 잘 전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 5년간 활동 계획

1. 신체 활동 증진을 위한 안전하고 활동적인 도시 계획
2. 과일과 채소 섭취 도모를 위한 인센티브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가족의 건강한 체중 관리 및 비만 예방 프로그램
4. 건강한 식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식품 서비스 가이드라인' 구축

**문의: 박현선 (건강 증진 프로그램 디렉터), hspark@kcsccgw.org | 703-354-6345** 프로그램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센터로 연락하면 됩니다. REACH 프로그램은 2023년 9월 30일부터 시작되었지만, 관련된 모든 직원의 채용이 완료된 7월 1일자로 프로젝트 안내 공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REACH 프로그램에서 자원봉사나 인터뷰를 하고 싶은 분들은 박현선 디렉터에게 문의바랍니다.

# 미국내 한국 미술 위상 커진다

현대자동차, 뉴욕 MET 후원  
건물 외벽에 한국인 작품 전시

국내 주요 미술관에 최근 한국 미술 관련 후원이 이어지면서 미국 내 한국 미술의 위상이 커지고 있다.

현대자동차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는 지난 23일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MET)과 5년 후원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1870년에 개관한 MET은 매년 700만명의 관람객이 방문하는 곳이다.

이번 협약으로 제네시스는 MET 정면 외벽에 설치 작품을 전시하는 '제네시스 파사드 커미션'을 후원할 계획이다. MET는 지난 2019년부터 '더 파사드 커미션'이라는 전시 시리즈를 통해 미술관 건물 외벽에 세계적인 작가들의 작품을 소개해왔다.

제네시스 파사드 커미션에서는 한국인 현대미술 작가인 이불의 작품 4점이 공개될 예정이다. 해당 전시는 오는 9월부터 약 8개월간 진행된다.



현대자동차 제네시스에서 향후 5년간 후원하는 뉴욕 메트로폴리탄미술관 전경. (현대 제네시스 웹사이트)

거액의 후원금을 받은 미술관도 있다. 스미소니언 국립아시아미술관은 지난 23일 한국 국립중앙박물관으로부터 140만 달러의 후원금을 받았다고 전했다. 후원금은 한국 국립중앙박물관이 시행하고 있는 해외 미술관 한국관 지원 사업의 하나로, 국립아시아미술관은 향후 4년간 한국 미술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한 예로 국립아시아미술관은 오는 2025년 한국 국립중앙박물관과 공동으로 '이건희컬렉션'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 미술 컬렉션을 재설치하고 한국 미술 공공 및 학술 프로그램을 기획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향후 5~7년 내 한국 미술의 입지를 공고히 하겠다는 게 국립아시아미술관의 설명이다. 김경준 기자

# 동포청장 1년 만에 교체 “정책 일관성 차질 우려”

윤석열 대통령이 출범 1주년을 맞은 재외동포청 청장을 전격 교체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인사회 단체장들은 교체 소식에 당황한 반응을 보이면서 향후 재외동포 정책이 추진되는 데 있어 일관성에 부정적 영향이 미칠까 우려하고 있다. 지난 25일(한국시간) 대통령 청사에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정무직 인사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서 신임 재외동포청장으 이상덕 주인도네시아 대사가 임명됐다.

재외동포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 신임 청장은) 중국, 동남아 등 우리 한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주로 근무했고, 오랜 외교관 생활을 통해 체득한 협상 조정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재외동포 보호와 모국과의 교류 협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인사회 관계자들은 갑작스러운 교체 소식에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더욱이 교체가 미주 지역 재외동포 권익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미주한국학교총연합회 백기환 회장 역시 “이기철 청장은 지난해 8월 한국어 교사 학술대회에도 직접 참석했고, 재외동포의 정체성 함양



이기철 초대청장 (왼쪽) 이상덕 신임청장 (오른쪽)

과 확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했다”면서 “신임 청장도 재외동포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게 더 소통하고, 지원 등을 통해 체계적인 리더십을 보여주면 좋겠다”고 전했다.

부임한 지 1년 된 청장에 대해 교체를 단행한 배경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하는 인사도 있었다.

한 한인사회 인사는 “(정무직) 대통령 의중에 따라 자주 바뀌는 것으로 알지만 갑작스러운 교체 배경은 궁금하다”며 “재외동포청과 재외동포협력센터가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보다 명확한 정보를 제공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외교부 한 관계자는 “정무직 인사는 (임기 등) 정답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상덕 신임 재외동포청장은 1988년 외무고시(22회) 합격 후 주중공사참사관, 외교부 동북아시아 국장, 주싱가포르 대사 등 다양한 보직을 역임했다. 김형재 기자

# ‘도난 컨테이너’ 경찰 수사 착수

내륙 수송 담당한 업체가 대상  
한국물류업체가 경찰조사 의뢰

대규모 뷰티 전시회 참가를 위해 한국 기업이 보낸 전시품을 담은 컨테이너가 통째로 도난 당한 사건과 관련, 경찰이 이를 수사할 예정이다.

지난 24일 한국무역협회 한 관계자는 “한국에서 컨테이너를 보낸 한국 물류업체가 현재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내륙운송을 담당한 미국 운송업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 수사 관할 경찰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논란이 됐던 ‘2024 북미 라스베이거스 코스모프프’는 25일 막을 내렸다. 앞서 지난 22일 한국무역협회는 이 전시회에 참가하는 한국 기업 70곳의 전시품을 담은 컨테이너가 미국에서 도난 당했다고 전한 바 있다.

도난 당한 컨테이너는 한국에서 LA항으로 보내진 뒤, 전시장이 있는 라스베이거스까지 운송되는 도중 사라졌다. 당시 무역협회 측은 “트럭 운전사가 ‘전시장에 물건 반입이 안 되니 다른 곳에 갖다 놓으라’는 내용의 보이스피싱을 당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물류업계 관계자들은 해당 사건의 도난 경위를 두고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NGL트랜스포테이션 임종성 본부장은 “물류업체 정보를 도용 또는 사칭해 하역한 화물을 항구에서 가로채는 사기 범죄가 가장 흔하다”며 “화물을 다른 곳에 내리라는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은 처음 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도난당한 컨테이너를 운반하던 트럭 운전자 개인의 범죄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의 책임 소재를 두고 업체

간의 공방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역협회 한 관계자는 “70개 기업이 대행업체인 코이코를 통해 이번 전시회에 참가했다”며 “코이코가 한국에서 컨테이너를 보낸 물류업체를 지정했고, 컨테이너를 도난 당한 미국 운송업체가 지정된 물류업체의 파트너사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코이코 측은 한국 매체 등을 통해 “이번 일의 잘못을 따지면 물류 배송업체의 책임이 100%지만, 해당 업체를 선정할 것이 우리에기에 추후 배상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전시품 없이 전시회를 시작한 기업은 전시회 일정 3일 중, 둘째 날이 돼야 전시품을 진열할 수 있었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지난 23일 라스베이거스행 항공편을 통해 급하게 한국에서 전시품이 전달됐다”며 “전시품을 받은 기업들은 둘째 날부터 전시품을 진열해 부스를 운영했다”고 전했다. 김경준 기자



캘리포니아 초대형 산불 북가주에서 초대형 산불이 발생했다. 올해 산불 중 가장 큰 규모다. ‘파크 파이어’로 명명된 산불을 24일 오후 3시경 북가주 치코 도심에서 북동쪽으로 약 4마일 떨어진 어퍼비드웰 공원 지역에서 발생했다. 25일 오후 현재 7만5000에이커가 불길에 휩싸였다. 이 화재로 뷰트와 테하마 카운티 일부 지역에 대피 명령이 내려졌다. [로이터]

**AK 김경태 공인회계사**

회계업무  
세무보고  
비즈니스 설립  
세무보고 상담환영!

410.719.1000 Fax. 410.719.9198  
3300 N. Ridge Rd., #380, Ellicott City, MD 21043

맞춤 유저의 달인 **마이클 장**

달인과 함께하면 유저도 행복해집니다

주택투자 · 상업투자 · 재정상담

NMSI, Inc NMLS #201332

410-370-4229 / 301-275-1494

맞춤형 연금 & 재정관리

Lori Moon

“오늘의 계획으로 미래의 재정 안정을!”

703.895.7648  
3949 Pender Dr. #250, Fairfax, VA 22030

Neve Control **SNIC** **헤민한의원**

동서 의학의 접목

Columbia  
화, 목, 토 진료

Gaithersburg  
월, 수, 금 진료

Tel. 443-878-4637

**영아패션**  
YOUNG AH FASHION

각종 약세사리 스카프, 모자, 신발, 가방, 마스크 등 판매

한국 최신패션! 최고의 퀄리티!  
유명 브랜드의 고품질 제품을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장만하세요!

**영아패션**  
T. 443-440-2000  
3215 Corporate Ct., Ellicott City, MD 21042

Baltimore National Pike 40  
M&T 대장금(이력조 등) 웨일리노래방  
300m 뉴타운

미라조 물 대장금 식당 뒤쪽 길로 300m 정도 내려오시면 새로지는 뉴타운을 맞은편 미국 성조기 달려있는 파킹장으로 들어오세요~

숯세일, 포클로저 주택 Sale 전문

**제임스 박 부동산**

SHORT SALE - Burke Single  
급매!!  
Burke 2 Car Single 3 Br 2 Bath 단층 1,900SF  
\$650,000 (시세 78만)

Centerville Condo  
급매!!  
1Car Garage 2 level Cond 2,330sf 3bed  
\$545,000

Manassas Park Condo  
2 Bed 2 Bath Elevator  
1 Car garage 1500SF, 센타빌 10분거리  
\$545,000

Vienna End Unit Town  
4 br 3.5 baths, 1,500sf  
\$650,000

571.242.4500 제임스 박

NVAR 2012 LIFE-TIME Top Producer  
VA /MD Associate Broker  
james2424500@yahoo.com

VA FAIRFAX HQ  
2751 Prosperity Ave., #580, Fairfax, VA 22031  
Office. 703.641.4989 Fax. 703.641.0033

# 흑인표심, 트럼프 쪽으로 이탈? “여론조사 착시 때문일 수도”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전통적 민주당 지지층인 흑인 유권자 일부가 공화당으로 이탈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나왔으나 이는 흑인 표심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이 나온다. 27일 영국 일간 가디언이 보도했다.

흑인 유권자층은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기반으로 2020년 대선 때 바이든 대통령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몰아주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승리하는 발판을 만들어줬다.

미국 조사기관 퓨리서치에 따르면 2020년 대선 때 흑인 유권자 그룹의 92%가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8%만 표를 던졌다.

하지만 최근 수개월간 여론조사에서는 흑인 유권자층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전만 못했다. 그에 비해 트럼프 전 대

령의 지지율은 오르는 추세였다.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에서 물러나기 전인 지난 5월 뉴욕타임스(NYT)-시에나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흑인 지지율은 23%였다. 바이든 대통령(63%)보다는 지지율이 뒤지지만 격차가 크게 좁혀졌다.

지난 4월 월스트리트저널(WSJ)이 7개 경합주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흑인 남성의 30%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흑인 여성의 트럼프 지지율은 11%로 이보다 훨씬 낮았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두고 흑인들, 특히 흑인 남성들 상당수가 민주당 정책에 대한 실망 등을 이유로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 쪽으로 옮겨갔다는 해석이 나왔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수치가 흑인 커뮤니티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 못하는 조사 방법의 한계에서 비



민주당 흑인 지지자들

롯된 ‘착시현상’ 때문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들이 지목하는 문제의 핵심은 표본 크기다. 보통 1천~1천500명을 대상으로 하는 대선후보 지지율 조사에서 흑인 유권자는 150~300명 정도 포함된다. 어떤 경우에는 흑인과 히스패닉, 아시아계 등 유색인종 모두가 하나의 인구통계학적 그룹으로 뭉뚱그려진다.

이렇게 표본크기가 작은 설문조사는 오차범위가 커 전체 흑인 표심을 가늠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흑인 정치 전문가인 안드레 갈레스피 에모리대 정치학과 교수는 표본이 100명 미만일 경우 오차범위가 ±10%에 이른다면서, 이런 설문조사에서 흑인 유권자의 20%가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답했다면 실제 지지율은 10~30% 사이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갈레스피 교수는 흑인 200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 3%포인트가 트럼프에게 돌아섰다고 나타난다고 해도 그것이 진짜 변화인지 통계학적으로 확신하기 어렵다면서 “사람들은 충분히 많은 수의 흑인과 이야기하지 않은 채 추측을 쏟아내고 있다”고 말했다.

크리스토퍼 타올러 새크라멘토 캘리포니아주립대(CSU) 교수도 일반적인 여론조사 방법이 “비과학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흑인 몇백명을 두고 전체 그

림을 그리는 여론조사의 대표성 부족 문제를 인식하고, 여론조사기관인 흑인유권자프로젝트(BVP)를 설립했다.

BVP가 지난 3월29~4월18일 흑인 2천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트럼프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 비율은 15%였다. 이는 다른 전국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흑인 유권자 지지율보다 낮다.

타올러 교수는 주류 여론조사 기관들 입장에서 흑인 사회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며, 일부 기관은 이미 민주당 지지층으로 분류된 흑인 인구 조사에 더 큰 비용을 쓰지 않으려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제대로 흑인 표심을 반영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가 현실을 왜곡할 뿐만 아니라 흑인 유권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거나 이들의 투표율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이라고 타올러 교수는 지적했다.

## “기후변화 대응에 연 3조 달러 필요”

재닛 옐런(사진) 재무부 장관은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연 3조달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옐런 장관은 27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후 벨렘에서 연설하며 이처럼 말했다고 로이터와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옐런 장관은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자금은 현재 조달되는 규모보다 훨씬 많으며, 이 차이를 채우는 것이 21세기의 가장 큰 경제적 기회라고 말했다.

그는 바이든-해리스 정부에서 탄소중립 목표 도달이 최우선 사항이며, 미국 국경 너머의 리더십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후 변화와 종 다양성 문제 해결을 외면하는 것은 나쁜 환경 정책이면서 나쁜 경제 정책이다”라고 말했다.

옐런 장관은 세계은행(WB)과 미주개발은행(IDB) 등이 새로운 기후변화 대응 자금 조달 목표를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부유한 국가들은 2022년에 개도국 기후금융으로 1천160억달러를 제공·동원했으며, 이중 40%는 다자개발은행에서였다.

옐런 장관은 기후금융 필요성이 21세기 최대의 경제 기회라고 평가하고, 과거 투자가 적게 이뤄진 국가 등의 지속 가능하고 더 포용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쓰일 수 있다고 말

했다.

이날 옐런 장관은 아마존 인근 8개국 일차리와 경제활동을 보호하면서 탄소 감축, 야생 동물 보호, 종 다양성을 지원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IDB가 주최한 지역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한 뒤 연설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전했다.

이에 앞서 G20 회의 공동성명에서도 참석자들은 기후변화와 종 다양성 손실이 주요 우려 사항인 데 동의하고, 빈곤국이 기후변화 대응 비용을 더 많이 짊어지게 되면 불평등이 심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행동하지 않는 데 드는 비용이 행동에 드는 비용보다 크다는 점을 다시 확인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세계 경제가 연착륙을 향해 갈 것으로 보이지만 전쟁 등이 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세계 여러 지역에서 경제 활동이 예상보다 강하지만 국가별 회복 속도가 고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옐런 장관은 G20 회의 종료 이터 인터뷰에서 중국이 공장에 과도하게 투자하고 세계에 값싼 상품을 쏟아붓는 것에 관한 우려가 G7을 넘어 브라질 등 신흥국으로 확대됐으며, 중국 경제 규모로는 그런 구조를 계속 유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재닛 옐런 장관

## 러 군함 6월 이어 또 아바나 입항

러시아 군함이 한 달여 만에 재차 쿠바 아바나에 입항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발틱함대 소속 초계함과 훈련함, 유조선 등 3척이 이날부터 30일까지 아바나 항에 정박할 예정이다.

쿠바 군(혁명군)은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게시한 ‘정보 공유’ 안내문에서 “우리와 우호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외국군의 방문은 역사적 관행”이라며 양국 해군 간 정기적인 교류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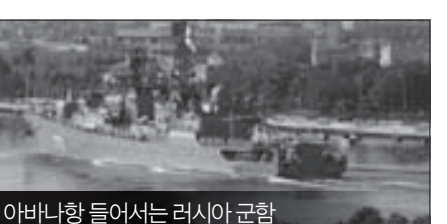
쿠바 군은 이어 러시아 수병들이 쿠바

에서 해군 참모총장을 접견하는 한편 역사적 유적지와 문화 시설 등을 둘러보고 전했다. 쿠바 주민들에게도 일정한 시간 동안 러시아 훈련함 내·외부를 공개한다고 덧붙였다.

러시아 군함은 앞서 지난 달 12~17일에도 아바나를 찾은 적 있다.

당시엔 다소 이례적으로 핵 추진 잠수함이 포함돼 있어서 국제사회에서 예의 주시반 바 있다.

미 행정부 고위 관리들은 이에 대해 “핵 추진 잠수함이 포함된 이동이었지만 우



아바나항 들어서는 러시아 군함

리 정보에 따르면 핵무기를 실은 선박은 없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로이터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과 러시아 간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대서양에서의 러시아 해군 활동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원으로 인해 증가한 상황이라는 게 미국 관리들의 전언이라고 보도했다.

## 개회식 미국서 2천800만명 봤다

2024 파리 올림픽 개회식 중계를 지켜본 미국 시청자의 수가 2천860만명으로 2012 런던 올림픽 이후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내 올림픽 중계권을 지닌 NBC 유니버설은 TV, 스트리밍 중계 등으로 센강 개회식을 본 시청자들이 이같이 집계했다.

NBC 측은 특히 자사의 스트리밍 서비스 플랫폼 포콕을 통한 시청자가 250만명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NBC 유니버설 산하 스페인어 방송 서비스인 텔레문도 데포르테스를 통해 개회식을 본 사람은 66만6천명에 달했다.

이는 직전 2021 도쿄 올림픽 개회식 시



센강을 따라 펼쳐지는 개회식 퍼레이드를 지켜보는 군중들

청자 수(1천790만명)보다 60%가량 늘어난 숫자다.

최근 개회식을 지켜본 시청자가 가장 많았던 대회는 2012년 런던 올림픽으로 당시에는 미국 전역에서 4천70만명이 방송을 시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장을 행진하는 대신 각국을 대표

하는 수천명의 선수들이 유람선을 탄 채 파리 시내를 가로지르는 센강을 따라 이동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개회식은 세계적 관심을 끌었다.

올림픽 관련 영상을 각국 중계권자에게 제공하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산하 올림픽방송서비스(OBS)는 앞서 전세계 170개 방송사가 이번 개회식을 중계하기로 했다면서 전세계인의 거의 절반 가까이 이를 시청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블룸버그는 프랑스 통신사 오랑주(Orange SA), 인텔, 삼성전자 등도 경기 중계를 돕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삼성전자는 파리 올림픽 개회식에서 선수단 보트에 자사의 플래그십 스마트폰인 ‘갤럭시 S24 울트라’를 설치해 센강을 따라 퍼레이드를 펼치는 각국 선수들의 생생한 모습이 중계될 수 있도록 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맞춤 용자의 달인

# 마이클 장

달인과 함께하면 용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용자    상업용자    재정상담

**410-370-4229 · 301-275-1494**

EMET, Inc  
NMLS #201332



# 김철민

약력

- 조지타운 법과대학원
- 미국 연방의회 연수 (House of Representative)
- United Nations, Research Fellow (UNU Headquarters, Tokyo, Japan)
- Kotra 해외진출기업 자문변호사
- ICSC (Int'l Council of Shopping Centers) Member
- Redcliff Partners 고문변호사
- 이민, 투자, 상법 전문변호사

## 합동법률사무소

### Potomac Law Group, PLLC

“변호사가 성실하게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을 갖춘 전문가들이 완벽한 Team-Work으로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를 최선을 다해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Immigration**

- 영주권/시민권
- 취업/가족초청이민
- 종교비자/이민
- E2 비자/투자이민
- 비자변경 및 연장
- 강제추방문제

**Business / Real Estate**

- 회사설립/합병
- 국제합작투자
- 대정부계약/입찰구매
- 사업체 매매
- 부동산 매매/임대차
- 부동산 투자 개발

**대표 703-973-8700** | 7700 Little River Tnpk., Suite 303, Annandale, VA 22003 예천 앞 빌딩 3층

# 추석맞이 감사축제

## “뿌리와 날개”

## 대보름

이민사회에 뿌리를 내린 1세대의 희생으로 교육 받은 지식인으로서  
날개를 단 젊은 우리들, 공활한 가을 하늘을 힘차게 날자!

우리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시** 2024년 9월 22일(일) 오후 12시부터 9시까지

**장소** Jim Rouse Theatre and Performing Arts Center  
(5460 Trumpeter Rd., Columbia, MD 21044)

■ **대회장** : 한기덕(전 메릴랜드 한인회장)

■ **준비위원장** : 박수철

### 1부 국악과 태권도의 향연

주상희 무용단, 이희경 무용단, 징검다리, 풍물패 한판

#### 특별초청공연

시나래무용단(한국무용 전공자이며, 국가무형문화재 전수자들로 구성된 무용단)  
숙명여대 가야금 연주단(김계옥 교수는 가야금 25 현 연주 대가로 알려짐)

### 2부 K-Pop & 트로트의 향연(K-Pop Night)

K-Pop 컨테스트 입상자들, 지역 K-Pop 가수 및 각급 학교 커버댄스 그룹, 지역 트로트 가수

### 부대행사 어린이 사생대회

한국문화 전통놀이 체험, 한복 입기, 재롱잔치, 가족 사진관,  
K-뷰티 메이크업 샵, 그림그리기 등



후원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문의-<https://koreandmd.org>

• 부스 : \$1,000 / \$500 • Sponsor : 플래티넘 \$2,000 / 골드 \$1,000



## 메릴랜드한인회

Korean Society of Maryland

회장 안수화 | 수석부회장 김영후

이사장 이세명 | 부회장 정선의

9256 Bendix Rd., #206, Columbia, MD 21045

TEL : 410-772-5393 E-mail : infokoreanmd@gmail.com

대통령과 2인자 관계 어땀나

대통령이 당 총재직 겸하던 시기

대통령이 '1호 당원'인 시기

<p><b>전두환</b> 노태우</p> <p>1985년 총선 고전 이후 노태우 당 대표 임명, 87년 노태우 당 총재 체제 출범</p> <p>6·29 선언도 함께 조율할 정도로 원만한 관계. 노태우, 낮은 자세 유지</p>	<p><b>노태우</b> 김영삼</p> <p>1990년 3당 합당으로 218석 거대여당 탄생, 공동 대표 체제. 92년 총선 패배로 YS 위촉됐으나 노태우에게 압박해 대선 후보</p> <p>대선 국면에선 비교적 원만한 관계. 퇴임 후 갈등</p>	<p><b>김영삼</b> 이회창</p> <p>1997년 9월 이회창 당 총재 선출, YS 2선 후퇴 두 달 뒤 탈당</p> <p>YS 지지 급락 속 이회창 후보의 차별화 움직임에 YS 강한 거부감. 제3후보(이인제) 등장 배경이 됨.</p>	<p><b>김대중</b> 노무현</p> <p>DJ의 강한 그림자에 관리형 당 대표 체제 지속. 노무현, 주요 당직 경험 없으나 막판 동고동계 지원으로 대선 후보 됨</p> <p>원만한 관계. 노무현 후보는 낮은 수준의 차별화만 함.</p>	<p><b>노무현</b> 정동영</p> <p>정동영 당 의장이 2006년 총선 이끌었으나 참패. 2007년 2월 노무현 대통령 탈당. 이후 비대위 체제 거쳐 이합집산</p> <p>노 전 대통령은 정동영-김근태 등과 공개 충돌</p>	<p><b>이명박</b> 박근혜</p> <p>초반엔 대선 양금이 공천갈등으로 이어져 일부 친박 탈당하기도. 2012년 2월 박근혜 비대위 체제 출범 총선 승리</p> <p>정권 중반 이후 박근혜 체제로 이행 목인</p>	<p><b>박근혜</b> 홍준표·유승민</p> <p>2015년 박 대통령과 거리감 있는 유승민 원내대표 선출 후 당내 친박·비(非)박 갈등 노골화. 탄핵 계기 입장 달라지고 분당</p> <p>대선 국면에서 홍준표·유승민, 박 전 대통령과 차별화</p>	<p><b>문재인</b> 이재명</p> <p>2018년 친문이 밀던 김진표 의원 아닌 이해찬 대표 당선. 이 대표는 이재명 지사와 가까운 관계</p> <p>대선 경쟁자였던 문 대통령과 이 지사, 공개적 충돌은 자제</p>
--	---	--	---	---	--	--	---

# 재집권도 차별화가 핵심, 대통령·한동훈 줄타기 시작됐다

한동훈 대표의 앞에 놓인 당 대표·대선 후보·대선 승리의 세 개 허들 중 첫째 허들은 가볍게 넘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여당 대표 자리는 대통령으로 가는 길에 디딤돌보다는 걸림돌이 된 경우가 많았다. 국무총리도 마찬가지다. 김영삼 정부의 이회창, 노무현 정부의 고건, 문재인 정부의 이낙연 총리는 한때 지지율 1위로 유력한 후보였으나 대통령이 되는 데는 모두 실패했다.



국민의힘이 사실상 '분당(分黨)대회' 같은 전당대회를 치른 다음 날인 24일 윤석열 대통령이 새 국민의힘 지도부를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했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만찬장에 입장하며 한동훈 대표(왼쪽 둘째), 추경호 원내대표(오른쪽)와 대화하는 모습. [사진 대통령실]

여당 대표도 비슷한 운명이다. 김영삼 정부의 이회창, 노무현 정부의 정동영, 박근혜 정부의 김무성, 문재인 정부의 이낙연 대표 누구도 대통령이 되지 못했다. 대통령에게 가까이 갈수록 대통령 자리에서는 멀어지는 역설의 이유는 뭘까. 역으로 생각하면 답을 찾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전임자의 대척점에 있는 사람이 됐다. 김영삼에서 김대중, 노무현에서 이명박, 박근혜에서 문재인, 문재인에서 윤석열처럼 정권 교체가 된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노태우에서 김영삼, 김대중에서 노무현, 이명박에서 박근혜처럼 정권 재창출에 성공한 경우도 전임자와 차별화가 승리의 핵심적 요소다. 늘 '변화'를 원하는 국민에게는 대통령과 같은 정당이라도 어느 정도 정권 교체 이미지를 갖는 후보가 유리하다.

과거 대통령은 전임자의 대척점에 있는 사람이 됐다. 김영삼에서 김대중, 노무현에서 이명박, 박근혜에서 문재인, 문재인에서 윤석열처럼 정권 교체가 된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노태우에서 김영삼, 김대중에서 노무현, 이명박에서 박근혜처럼 정권 재창출에 성공한 경우도 전임자와 차별화가 승리의 핵심적 요소다. 늘 '변화'를 원하는 국민에게는 대통령과 같은 정당이라도 어느 정도 정권 교체 이미지를 갖는 후보가 유리하다.

2012년 박근혜 차별화로 당 변화 이끌어  
①정권 교체에 동의하는가? ②야당이 대안인가? 두 질문에 대한 답이 모두 55%를 넘으면 정권은 교체된다. 그러나 ①이 55%를 넘더라도 ②가 50%를 밑도는 상황에서 여당 후보가 대통령과 차별화된 이미지를 갖고 있다면 (정권 교체를 지지하는 일부 유권자는) 여당 후보를 야당의 대체재로 받아들인다. 김영삼-노무현-박근혜가 그런 경우다.

한국의 대통령을 흔히 '제왕적'이라고 표현한다. 한국 대통령은 정말 '제왕적'인가. 박정희·전두환 두 대통령은 제왕적이 아니라 사실상 '제왕'이었다. 시진핑·푸틴·김정은 못지않은 절대 권력을 가졌다. 행정부·집권당·권력기

다. 1997년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가 김영삼 대통령과 갈등으로 대선에서 진 뒤 한나라당은 10년 야당을 했다. 2007년 민주당 정동영 후보가 노무현 대통령과 갈등으로 패배한 뒤 민주당도 10년 야당 했다. 2016년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갈등은 총선 패배와 박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다. 1997년 이회창의 차별화는 이회창이 대통령이 되면 김영삼 대통령을 감옥에 보낼 수 있겠다는 우려를 낳았고 그 두려움 때문에 김영삼 지지층 일부가 이인제를 찍었다.

민을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는 후보 없어  
한동훈 대표는 2012년 박근혜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한다. 2012년 박근혜는 총선과 대선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차별화'에도 성공하고 '당의 변화'도 이뤄지면서 '보수 통합'도 해냈다. TK(대구·경북)과 충청 두 곳을 고향으로 인식하게 만든 박근혜는 충청도를 기반으로 한 선진통일당(국민중심연합과 자유선진당 통합 정당)을 흡수 통합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탈당도 요구하지 않았다. '경제민주화'를 상징하는 김종인과 '청년 세대'를 상징하는 이준석 영입으로 중도 이미지도 구축했다. 박근혜는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

김영삼이 3당 합당을 했을 때, 김대중이 김종필과 'DJP 연합'을 했을 때, 노무현이 재벌인 정몽준과 후보 단일화를 했을 때, 박근혜가 진보적인 '경제민주화'를 주장했을 때 지지층이 이탈하지 않은 이유는 (상황을 통제하는) 리더십과 정체성을 신뢰했기 때문이다. 한국 대선에서 승부의 관건은 비전이 아니라 리더십이다. 리더십은 민심을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민심을 이끄는 것이다. 여론조사를 쫓는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 없다. 지도자 이미지가 없으면 대통령이 될 수 없다. 결단해야 할 때 여론조사 뒤로 숨으면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선택지가 있다. ①한동훈 대표 체제 고립과 붕괴 시도 ②한 대표와 관계 회복과 수평적 당·정 관계 수용 ③(탈당하지는 않지

만) 당과 거리 두기 ④정무장관과 원내 대표 등을 통해 야당과 직접 대화하는 주도적 정치 시도. 윤 대통령은 이미 이준석·김기현 체제를 허물었고 밀사를 통해 이재명과 대화를 시도했다. ① ④의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니다. 수평적 당·정 관계에 대한 거부감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②가 어려운 선택일 수 있다. 1차적 선택은 윤 대통령에게 달렸다. 한동훈 대표는 이에 따라 대응하는 포지션일 수밖에 없다.

모든 대통령은 '믿을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는' 후보를 찾지만 늘 실패했다. 이길 수 있으면 믿을 수 없고, 믿을 수 있으면 이길 수 없었다. 하지만 결론은 뻔했다. 항상 이길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 그게 정당의 합리적 선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역사로부터 배워야 할 교훈이 있다.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은 정치적 위상이 비슷하지만, 퇴임 후 평가는 극단적으로 달랐다. 차이를 만든 핵심은 정권 재창출 성공 여부다. 김영삼 대통령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기 때문에 격하를 피할 수 없었다. 반면 김대중 대통령은 정권 재창출에 성공했기 때문에 역사적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도 정권 재창출에 성공했다면 지금과 다른 평가를 받았을 것이다. 윤 대통령도 정권 재창출에 성공해야 업적을 남길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는 과거 사례에서 또 하나 배울 게 있다. 한국과 미국 모두 경선에 치열하게 싸우고 본선에서 분열하지 않으면 승리에 도움이 된다. 2007년 이명박·박근혜, 2008년 버락 오바마·힐러리 클린턴 사례다.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야당일 때라는 사실이다. 정권을 찾아와야 한다는 지지자들의 압력 때문에 분열할 수 없는 것이다. 여당은 쉽게 분열한다. 1997년 이회창·이인제, 2022년 이재명·이낙연 사례다. 초유의 상황 앞에 놓인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위험하고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시작됐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

## 척추사랑

"여러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척추를 사랑하십니까?"





<척추사랑>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에서는 정확한 진단후,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 정성껏 집중 치료합니다."

**교통사고 통증 치료전문 / 자세교정**

**진/료/과/목**

- ◆ 교통사고후유증 (Auto Injury)
- ◆ 두통/목/턱관절 (TMJ) 통증
- ◆ 허리/척추디스크/좌골신경통
- ◆ 손목/팔꿈치/어깨 통증
- ◆ 운동상해/직장상해

- ◆ 발/무릎 통증/자주빠는 발목
- ◆ 만성피로/근육통/관절염
- ◆ 재활/물리/운동 치료
- ◆ 자세교정 및 건강유지
- ◆ 청소년 성장클리닉
- ◆ 임신부/산후 및 여성클리닉

**교통사고** 필요하신 모든 절차를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도와드리며, 치료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각종 보험 및 자동차보험, 여행자, 유학생보험 / 각종 건강상담 환영**

**Dr. 이형훈**  
(Mark H. Lee DC, CCEP, FIAMA)

-고려대학교 Biotechnology 졸업  
-고려대학교 생명공학 대학원  
-Internship for Protein One's Lab at UMCP and MedLink Hospital in Washington D.C.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Certified in Constatd System  
-Certified in Gonstead Extremity Adjusting  
-Certified Chiropractic Extremity Practitioner (C.C.E.P.)  
-Fellow of International Academy of Medical Acupuncture (F.I.A.M.A.)  
-Worked for Guinness Medical Back & Neck Pain Clinic in GA  
-Licensed in Maryland with Physical Therapy Privileges  
-Licensed in Virginia Board of Medicine

**각별 클리닉**  
T 301.231.7588 / F 301.231.7587  
11820 Parklawn Dr. Suite 202  
Rockville, MD 20852  
Email : lovespineclinic@yahoo.com  
코리안타운에서 3분, 워싱턴 포스트 메인 센터(가우디)에서 10분 거리

**센터빌 / 챔플리 클리닉**  
T 703.429.4622 / F 703.429.4623  
14161 Robert Paris Ct. Suite B  
Chantilly, VA 20151  
Email : lovespineclinic@gmail.com  
센터빌 롯데(연아빌)에서 10분, 챔플리 롯데에서 20분 거리

**LoveSpine**  
Chiropractic Clinic 척추사랑

## 김민지 변호사



**가정법 (Family Law)**

- 합의이혼,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이혼소송
- 가정폭력/접근금지 명령
- 입양, 가디언십
- 유언장, 상속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이민자 아내를 대변하여 승소한 케이스에 관한 기사가 2021년 12월 13일자 Virginia Lawyer's Weekly에 게재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prosperlawpllc.com/>)

**민사 소송 (Civil Litigation)**

- 리스 계약 분쟁, 집주인-세입자간의 분쟁
- 헌법/인권 침해 변호

**항소 (Appeal)**

-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양육권/방문권, 이혼 관련 항소 케이스 다수 진행중

**이민 (Immigration Law)**

- 영주권/시민권
- 결혼 이민
- 가족 초청 이민
- 각종 비자
- 추방 방어
- 망명 신청
- 범죄 피해자를 위한 비자

**Prosper Law PLLC 대표**

**VA·MD·DC 면허**

- 대법외교 불어과 졸업
- 한국외대 영어/불어 전공
- 몬트리올 Concordia University에서 심리학 전공
- 캐나다 국방부에서 부 참모총장 및 국방장관 분석관으로 다년간 근무
- J. Reuben Clark Law School, J.D.
- 미국 연방 지방법원, 유타 대법원 근무
- D.C., 버지니아 주 로펌 다수 근무



**VA**

**전화 TEXT: 703.593.9246**  
4115 Annandale Rd., Ste 301, Annandale, VA 22003



**MD**

**전화 TEXT: 443.901.8693**  
3545 Ellicott Mills Dr., Ste 203, Ellicott City, MD 21043  
mkim@prosperlawpllc.com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한국과 미국에서 풍부한 임상경험과 실력을 갖춘

## 통증 재활의 최고 전문가가 집중 케어해 드립니다!

### 메디케어 교통사고

■ 각종 의료보험, 메디케이드, 캐쉬플랜

### 진료 내용

#### 근골격계 치료

레드코드 치료, 사선근육안정화 치료  
척추측만증 치료, 맥켄지 치료  
메이틀랜드 치료

### 진료 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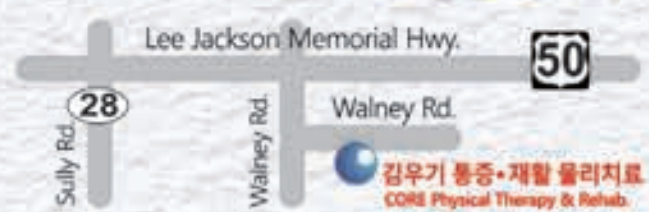
-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좌골신경통)
- 스포츠 손상/직장상해
- 교통사고 손상/뇌졸중
- 척수손상 후 재활치료
- 주요 근육 관절 통증
- 산전/산후 통증
- 관절수술, 척추수술 후 재활/물리치료
- 자세교정 운동 (측만증, 후만증)

#### 중추신경계 손상치료

신경발달치료  
보봐스치료

#### 통증치료

근육 통증침치료  
관절 / 근육이완치료  
전기치료



**김민정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과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건강관리학전공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원장 김우기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전공  
고려대학교 대학원 질병역학전공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 예약환자 에 의해 주말에도 진료합니다

##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T. 703-865-6455  
F. 703-649-6455  
14153 Robert Paris Ct. Ste. A  
Chantilly, VA 20151

# 이번엔 과방위 민낯... 사흘간 '빵'만 캐고, 답변은 막무가내

## 현장에서

이진숙 청문회 '법카 유용 의혹' 공방 야당, 현장 검증한다며 빵집 방문도 막말·조롱에 답변 번복 '아수라장' 정치권 "자질검증 거리 먼 청문회"

27일 대전MBC 사장 관사 인근의 한 제과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가게로 몰려와 남아 있는 빵을 쓸어담았다. 결제 금액은 24만원. 이들이 제과점에 들이닥친 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사장 재직 시절 법인카드 결제 의혹을 검증한다는 명분에서였다.

다음 날 이들은 국회에서 '현장 검증 결과'라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위원들은 "이 후보자가 혼자서 들고 가져갈 수 있다던 빵을 직접 구매했다"며 "(53만원이 아닌) 24만원어치조차 최소 3명이 붙어야 들 수 있었던 양"이라고 강조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전MBC 인근 빵집이 아니라 20분 거리인 관사 근처 빵집까지 간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고 열을 냈다.

방통위는 미디어 정책 총괄하고 미디어산업 발전을 견인하며 방송의



지난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방통위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물을 마시고 있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왼쪽 사진).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에 '일명 빵카 의혹 현장검증을 위한 대전 방문을 마치고 국회로 복귀하는 중'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올렸다. [뉴스, 노종면 의원 페이스북 캡처]



관사 인근 빵집에서 53만원을 결제했다. 야당에선 이를 놓고 청문회 첫날(24일)부터 "직원에게 빵을 돌린 게 아니라 본인이 이용할 목적으로 마지막 날 선결제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독립성을 보장하는 행정기구다. 이런 기구의 수장을 맡을 후보자의 자질을 가늠하는 청문회가 '빵 논란'에 뒤덮여 버린 것이다. 야당 과방위원들은 지난 24-26일 사흘간 열린 이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온종일 빵 구입 의혹을 물고 늘어졌다.

이 후보자는 대전MBC에 사표를 낸 2018년 1월 8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단골 빵집에서 법인카드 44만원을 결제했다. 2시간30분 뒤에는 대전MBC

관사 인근 빵집에서 53만원을 결제했다. 야당에선 이를 놓고 청문회 첫날(24일)부터 "직원에게 빵을 돌린 게 아니라 본인이 이용할 목적으로 마지막 날 선결제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청문회 둘째 날인 25일 노종면 의원은 빵집 직원과의 통화 녹취를 들었다. "50만원어치 빵을 혼자 들고 갈 수 있나"라는 노 의원의 질문에 직원은 "단 팔빵 280개 정도로 혼자 들고 갈 수 없는 양"이라고 답했다. 청문회장 곳곳에

선 웃음이 터졌고, 이 후보자는 "사건을 희화화한다"고 항의했다.

마지막 날인 26일에는 야에 '빵집 포인트' 공방까지 벌어졌다. 수행 비서 등의 빵집 포인트 적립 내역 관련 법인카드 사용 명세서를 제출하겠다고 약속했던 이 후보자가 "개인정보 보호 차원"을 이유로 번복하면서다. 이 과정에서 이 후보자가 웃음을 보이자 "어머 지금 웃음이 나와?"(최민희), "성격 진짜 이상하다(노종면)" 등 일차원적인

조롱이 이어졌다.

공방의 초점이 역량 검증이란 본질에서 한없이 멀어지자 과방위원장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빵집 포인트문제에서 무엇을 검증하려는 것인지에 대해 국민이 이해하지 못할 것 같다"고 꼬집었다. "사적으로 1만원도 쓴 적이 없다"면서도 법인카드 내역 제출을 거부하는 이 후보자의 태도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치권에선 "청문회가 빵으로 시작해 빵으로 끝났다"는 평가가 나왔다. 의명을 요구한 여당 의원은 "사실 우리도 이 후보자가 얼마나 책임자인지 궁금하고 의문도 있었는데, 계속되는 '빵 공격'만 방어하다가 끝났다"고 푸념했다.

민주당이 주도한 '빵문회' 배경이 '진야 성향 MBC 사수'라는 것은 정치권에서 정설로 통한다. 앞서 민주당은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탄핵 카드로 방통위를 '방통위'(방통위원 0명)로 만들었고, 아직 임명도 안 된 이 후보자 탄핵도 이미 거론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정치적 편파성을 맹공격하지만, 자질 검증과는 거리가 먼 '빵문회'를 통해 자신들의 편파성을 입증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

윤지원 기자

# 여당 "용산 눈치... 협상력 발휘 못해" 야당 내에선 "법안 논의시간 보장을"

28일 오전 1시 국회의장실에서 있던 우원석 국회의장의 입이 무겁게 열렸다. 그는 "재석 189인 중 찬성 189인으로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한다"며 의사봉을 세 번 내리쳤다. 반대와 기권은 0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강제 종료한 뒤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순간이다.

'야당의 초고속 법안 상정→야당의 필리버스터→야당의 강제 중단 및 표결 강행' 순서로 쟁점 법안이 처리된 건 지난 26일 방통위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에 이어 두 번째다. 29일엔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30일엔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이런 식으로 통과될 예정이다. 이쯤 되면 22대 국회 법안 처리 공식이자 '뉴 노멀'이라 할 만하다.

뉴 노멀은 끝이 아닌 시작에 가깝다. 이런 방식으로 거야(巨野)가 처리를 시도할 당론 법안들이 쌓여 있다. 민주당은 당장 7월 임시국회에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8월 1일 본회의에 두 법안을 올릴 것"이라며 "여당이 필리버스터를 해도 7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8월 3일 안에는 통과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22대 국회 개원 두 달여 만에 방송 4법을 포함해 6개 법안이 필리버스터 강제 중단 후에 강행 처리되는 셈이다.

21대 국회와 비교해도 지나치게 빠른 속도다. 21대 국회가 필리버스터를 거쳐 입법을 강행한 사례는 4년 통틀어 공수처법·국정원법·남북교류협력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5건이었다. 22대 국회는 개원 두 달 만에 이를 넘어섰다.

한 국민의힘 재선 의원은 "어차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 이런 식이면 9월 정기국회까지 아무 법도 못 만들 판"이라고 한탄했다.

민주당은 당론 정치를 통해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후 45개 법안을 당론으로 지정된 뒤 줄줄이 밀어붙이고 있다. 여야의

## 국회, 법안 강행·반대만 쳇바퀴 자기 편만 옳다며 소통은 실종

견해 차가 큰 쟁점 법안일지라도 개의치 않는다. 방송4법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모두 당론이다. 이런 강짜에 민주당 내에서도 "속의를 막는다"는 반발이 나온다.

지난 10일 민주당 의원이 모인 비공개 텔레그램방에서는 "당론을 최소화하라" "법안별로 논의 시간이 보장됐으면 좋겠다" 같은 의견이 제기됐고,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22대 국회 초기인 만큼 양해해 달라"며 수습했다고 한다.

그러나 원내 지도부는 "21대 국회 때 충분히 논의한 법안"이라는 이유 등으로 일단은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이다. 당론으로 지정된 박상용 검사 탄핵안에 기권표를 행사한 곽상언 의원이 당 안팎의 반발에 등 떠밀려 원내 부대표에서 물러난 뒤 분위기가 더 얼어붙었다. 국회 관계자는 "본회의 안건 심사를 국회 각 상임위가 아니라 사실상 민주당 의원총회가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당은 여당대로 민주당의 폭주를 멈추지 못한 채 무기력증을 호소

하고 있다. 시간끌기만 가능할 뿐, 수적 열세로 인해 결국 법안 통과를 막을 수 없어서다. 한 영남권 의원은 "이런 식으로 법안마다 필리버스터를 하면 365일 내내 하루에 한 건씩 해야 한다"며 피로감을 호소했다. 방송 4법 반대를 위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시간은 첫 번째 방통위법 개정안이 24시간 7분, 두 번째 방송법 개정안은 30시간 20분이었다.

원내 지도부가 전략 없이 필리버스터에만 매달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한 수도권 의원은 "여당 역시 대통령실의 눈치만 보며 협상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방송 4법' 처리 과정에서 사회권을 거부한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회의사당에서 벌어지는 증오의 국판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성수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치권이 오로지 지지층과 정치적 이득만 고려하는 와중에 민생만 희생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보현 기자



28일 국회에서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아래)과 우원석 국회의장. [뉴스]

**집수리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먼저 저렴하게 수리해 드리고 팔아 드리겠습니다!!

**페어팩스 타운홈 알렉산드리아 타운홈 페어팩스 싱글홈 페어팩스스테이션 싱글홈**



**\$875,000**

방3, 화3.5, 차고2, 2001년산 End Unit, Super Location, Walk-Out, 새지붕, 2층 새카펫, New Appliances



**렌트 \$3,200**

방3, 화2.55, 차고1, 전세마루 한인 커뮤니티센터근처, 국 로케이션, Move-in Ready



**\$880,000**

방4, 화3, 차고2, Ranch 스타일, 1.12 Acre, All Brick, 새지붕&새 거터, 잘 가꾼 뒷마당 숲이 아름다운 집



**\$1,250,000**

방 4/ 화 3.5/ 차고2, 코너집, 국 로케이션, Many Upgraded, Library, Recreation Room, 아름다운 정원, 주인이 잘 관리한 집

**여전히 매물이 부족합니다. 동네 최고가로 팔아드리겠습니다.**

**김경아**

**FAIRFAX REALTY** 11130 Fairfax Blvd. #105 Fairfax, VA 22030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김경아 부동산** 703-919-0472 jennetpro4u@gmail.com

# 메디케어 보험

여기 메디케어 진짜 잘하는 헬스플랜 전문가와 함께 모든 베네핏을 누릴 수 있는 답을 찾으세요!

- / 65세 되시는 1959년생 신규 가입신청과 가입
- /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DSNP 특별 보험
- / Part C (HMO/PPO) 가입자들을 위한 추가 혜택
- / 메디케어 Part D (처방약 보험)에 대해
- / 심장질환, 당뇨, 말기 신부전증을 위한 스페셜 플랜
- / 타주 전입, 직장 퇴직 후 메디케어 신청



정선화

메디케어 헬스플랜 전문 에이전트

**유니티 보험** Uniti Global Insurance Services Inc.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Tel: 703-862-5395

# 이리랑

## 건강 복지센터

아버님! 어머니님!

애(愛)

정(情)

효(孝)

사랑  
순수한 마음  
스스로 부모를 봉양하는 마음

The Best Place for your best life



NEW MANAGEMENT

장두석 회장 새 경영진 인사드립니다! 이선옥 원장

문의: 410-730-9740 \*\*센터 운영 시간 월-토 오전 8시-오후 2시\*\*

[www.aamdc.org](http://www.aamdc.org) Mail: [ariranginfo@gmail.com](mailto:ariranginfo@gmail.com)

Arirang Adult Medical Daycare Center 9170 Rumsey Rd. Columbia MD 21045

# “고객·판매자·결제사 다 피해” 민낯 드러난 이커머스 플랫폼

이커머스 플랫폼, 유통업법 미적용  
환불 책임은 입점 업체들에게 전가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 티몬·위메프의 대금 정산 지연 사태로 지난 십수년간 ‘혁신’이라고 평가받던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가고 있다. 몸집 불리기에 집중했던 플랫폼 사업자의 ‘시스템 에러’가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다. “플랫폼 사업자는 중개만 할 뿐 책임지지 않는다”는 해묵은 비판이 다시 나온다.

28일 IT업계에 따르면 티몬·위메프 사태 초기 혼선을 빚었던 소비자 환불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다. 카드사와 간편결제사, 결제대행업체(PG)들이 티몬·위메프 결제 취소에 협조하면서다. 네이버페이는 이날 티몬·위메프에서 네이버페이로 결제한 금액에 대한 결제 취소·환불 요청을 받는다고 공지했다. 토스페이·카카오페이도



28일 티몬·위메프 피해 입점 판매자 대책회의에 참석한 판매자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환불·결제 취소를 위한 절차를 시작했다. PG사들도 이번 주 내로 결제 취소나이의 제기 신청 절차를 개시할 전망이다.

하지만 티몬·위메프로부터 정산금을 받지 못한 판매자(셀러) 피해는 여전히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당국이 업체를 조사해 파악한 미정산 금액은 지난 22일 기준 위메프 195개사 565억원, 티몬 750개사 1097억원 수준

이다. 이는 지난 5월 치 판매대금 미정산금만 산정한 것으로 향후 6~7월 미정산분이 추가되면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플랫폼은 ‘독과점’을 지향한다. 판매자가 많아지면 이용자가 늘고, 이용자가 늘면 판매자가 많아지는 ‘네트워크 효과’ 선순환을 구축하기 위해서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는 시장 독식 플랫폼의 횡

포가 문제로 지적돼 왔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잘 되는 플랫폼이 아니라 부실해진 플랫폼이 촉발한 문제라는 점에서 기존 문제와는 양상이 다르다. 티몬·위메프의 모기업인 큐텐의 구영배 대표가 부실한 재무상황에서도 공격적으로 기업 인수에 나서면서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로 번졌다.

부실을 초래한 건 플랫폼이지만 피해는 플랫폼을 둘러싼 모두에게로 전가되고 있다. 카드 업계 한 고위 관계자는 “플랫폼 사업자가 부실해지면서 제대로 책임지지 못하고, 그 손실을 소비자·판매자·결제사 모두가 나눠 떠안고 있다”고 말했다.

원인은 다르지만, 중개만 할 뿐 책임은 상대적으로 적게 지는 플랫폼 관련 법 규정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티몬·위메프 같은 플랫폼은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 전자상

거래법상 온라인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소비자가 환불 또는 청약철회를 요구하면 판매자는 이를 3영업일 내에 돌려줘야 한다. 하지만, 플랫폼 거래 구조상 일차적인 환불 책임은 플랫폼 입점 업체들에 있다. 공정위는 2021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커머스 플랫폼의 판매자 정산 주기와 판매 대금 보관 방식 역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티몬·위메프의 경우 물건 판매 후 판매사에 정산하기까지 70여일이 소요됐다. 대기업 유통사는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라 상품이 판매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40~60일 이내에 판매 대금을 정산해야 하지만 전자상거래엔 관련 법 규정 없다. 때문에 티몬·위메프가 정산 전 판매 대금을 유용했을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강광우·김민정 기자



인천공항 해의 출국장에 긴 줄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은 28일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에 수많은 여행객이 출국 준비를 하고 있다. [뉴시스]

## 뜨거운 수도권 청약 시장... 평균 경쟁률 100대 1

지난달 8대1에서 10배 이상 뛰어  
집값 상승에 미분양 단지도 완판  
신규 공급 부족 우려에 거래 활발

최근 수도권 청약 시장 평균 경쟁률이 100대 1에 육박한다. 수도권 중심으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가 커진 데다 이달에는 ‘인기 청약 단지’와 무순위 청약이 몰리면서 청약 시장이 뜨겁다.

26일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부동산 R114에 따르면 이달 수도권 아파트 1순위 청약 평균 경쟁률은 95.75대 1로 나타났다. 지난달 평균 경쟁률이 8.02대 1인 것과 비교하면 10배 이상 뛰었다. 인터넷 청약이 도입된 2007년 이후 월간 기준으로 2020년 11월(128.22대 1)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높다.

이달 청약 경쟁률이 가장 높은 단지는 성남시 금토지구에 분양한 ‘판교테

크노밸리 중층S-클래스’다. 26가구 모집에 2만8869명이 몰려 1순위 경쟁률이 1110.35대 1에 달했다. 경기 과천·화성시에서는 10만명이 넘게 몰린 단지가 등장했다. 경기 화성시 오산동에서 대방산업 개발이 분양한 ‘동탄역 대방엘리움 더 시그니처’는 186가구 모집에 11만6621개의 청약 통장이 접수됐다. 평균 경쟁률은 626.99대 1로 집계됐다. 경기 과천시 ‘과천 디에트르퍼스티지’는 평균 228.51대 1,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자이힐스테이트라플레’도 평균 163.95대 1로 세 자릿수 경쟁률을 보였다.

분양업체에선 이달 말 기준으로 청약 경쟁률은 더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오는 30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윈펜타스’ 청약이 있어서다. ‘래미안 윈펜타스’는 29일 특별공급, 30일 1순위 청약을 한다. 총 641가구 중 292가구를 일반 분양하며, 이 중 114가구가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 등 특별공급 물량이다. 분양가는 전용 59㎡가 17억 원대, 84㎡가 22억~23억 원대에 이르지만, 주변 시세가 워낙 높아 약 20억원의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을 전망이다.

29일 진행되는 경기도 화성시 ‘동탄역 롯데캐슬’ 무순위 청약(전용 84㎡ 1가구)에는 100만 명 이상이 몰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무순위 사후접수는 당첨자 중 부적격, 계약포기 등으로 나온 잔여 물량으로, 청약통장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국내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해진다. 올해 입주 4년 차인 동탄역 롯데캐슬은 분양가가 4억8200만원으로 시세보다 10억원가량 저렴하다. 양천구 신정동 ‘호반써밋 목동’도 계약 취소 물량 2가구가 나온다. 전용 84㎡ 2가구로 기관 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1가구에 대한 접수는 29일, 일반공급 1가구에 대한 접수

는 30일 진행된다. 이 아파트는 계약 취소 후 재공급 물량이어서 서울지역 거주자만 청약이 가능하다. 84㎡ 분양가가 7억9800만원으로, 최근 이 아파트의 전셋값 수준으로 나왔다.

청약 열기가 뜨거워지면서 그동안 수도권에서 미분양됐던 단지가 ‘완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9월 분양한 서울 동작구 상도동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771가구)’는 계약 단계에서 대거 미분양됐지만, 최근 집값 상승 열기에 ‘완판’을 눈앞에 두고 있다.

지난 3월 청약을 받은 강동구 둔촌동 ‘더샵 둔촌포레’(572가구) 역시 지난달 일반 분양 물량 계약을 모두 마쳤다. 지난 1월 분양한 2878가구 규모의 경기 광명시 ‘광명자이힐스테이트SK뷰’도 최근 완판에 성공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장 분위기가 크게 개선됐고, 전셋값이 오르고 분양가도 뛰고 있어 당분간 수도권 청약 경쟁은 치열할 전망이다”라고 설명했다. 김원·백민정 기자

## 전기차 캐즘에 원자재·운임까지 상승... 잘 달리던 K타이어 고심

한국·금호·넥센 영업이익 늘었지만  
업황 불확실성 확산, 성장 전략 수정  
호실적을 내고 있음에도 국내 타이어  
업계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에 원자재값·운임까지 상승 움직임을 보이면서다.

28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엔가이드와 증권가에 따르면 올 2분기 국내 타이어 3사

(한국·금호·넥센)의 합산 영업이익 추정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3% 늘었다. 한국타이어(한국타이어엔테크놀로지)의 2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는 3977억원, 금호타이어와 넥센타이어는 각각 1539억원·579억원이다. 3사 합산 매출 추정치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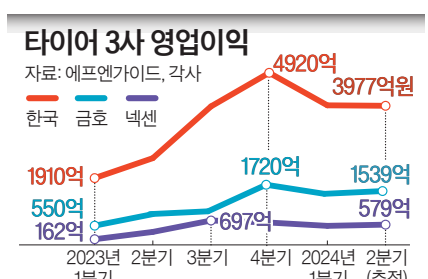
타이어 3사는 지난해부터 스포츠유틸리티차(SUV)·전기차용 고부가가치

상품을 확대하며 질주를 이어왔다. 전기차용 타이어는 일반 타이어보다 마진율이 높다. 여기에 2~3년 전 전기차의 판매량이 확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타이어 교체 주기가 돌아오며 수요가 늘었다.

하지만 고물가·고금리로 글로벌 신차 시장이 축소됐고, 전기차 캐즘까지 확산하면서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 여기에 원자재인 고무 가격과 운임 등이

오르면서 수익성이 줄었다. 지난 26일 기준으로 고무값(국제 선물계약 가격)과 해상운임은 연초보다 각각 5%·82% 올랐다.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성장해온 중국 타이어 회사들의 맹추격도 만만치 않다. 타이어 제조 기술력이 높아지고 있는 데다가, 비야디(BYD) 등 중국산 전기차 등을 업고 글로벌 시장으로 속속 나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중국 타이어회사 ZC루버는 글로벌 9위 수



준이다. 한국타이어(7위)가 소폭 앞서고 있지만, 금호(15위)·넥센(20위) 등은 뒤져있다는 평가다. 고석현 기자

### 단기연금 개런티 이자

/ 개런티 이자  
/ 단기 (3년, 5년, 7년)  
/ 복리 이자

이제는 원금보장과 함께 은행보다 높은 이자를 받을 때입니다.

원금	3년	5년	7년
\$100,000	4.95% \$115,597	5.30% \$129,461	5.30% \$143,548
\$300,000	4.95% \$346,791	5.30% \$388,385	5.30% \$430,645

\*이자율은변경될 수 있습니다. \*\*Virginia 기준

**앤디 김**  
VA Lic# 639047

유니티 보험      상담 예약 및 문의 Tel: 703-200-1412

### 교통사고

- 목, 허리 디스크
- 좌골 신경통
- 어깨, 무릎 통증
- 직장사고, 운동사고
- 척추 교정 및 물리치료
- X-ray, 재활운동 시설 완비

수술없이 목·허리 디스크를 치유하는  
최신 디스크 감압치료  
DRX 9000-C

##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모든 통증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 차별화된 치료로 고통에서 자유로워 지십시오!

교통 사고 후 필요한 모든 절차를 불편함 없이 도와 드립니다.

“내 가족을 보살피듯 정성을 다해 치료합니다!”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 Johns Hopkins, MBA
- Kyung Hee University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LCA Member
- VA, MD Boards License with PT Privilege
- Certified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tified DRX (디스크 감압치료 전문의)
- Whiplash & Brain Injury Traumatology Specialist (교통사고 치료전문)

**VA 센터빌**  
703-815-2300  
13880 Braddock Rd., #207  
Centreville, VA 20121

**MD 락빌**  
301-881-1000  
12230 Rockville Pike, #250  
Rockville, MD 20852

**MD 엘리콧 시티**  
410-715-3500  
8860 Columbia 100 Pkwy, #311  
Columbia, MD 21045

**한인 MRI+초음파 센터**      T. 410-740-0055  
8860 Columbia 100 Pkwy, #10  
Columbia, MD 21045

# 엘리콧시티 · 락빌

환자분들의 편의를 위해 2 로케이션에서 진료합니다.

# 편한나라 척추신경 전문병원

**편한 위치! 편한 치료! 편한 척추!**

편한나라는 지난 20여년간 척추와 척추신경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통증을 치료하고 있으며, 각 분야의 전문 의료인들의 협진으로 빠르고 정확한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 교통사고

-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와 함께 척추 및 자세교정
- 통증 침 치료(Dry Needling)
- 마사지 치료(LMT 라이센스 소지자)
- 디지털 X-Ray, 디스크 감압치료
- 물리치료기구, 재활 프로그램 완비

■ **Dry Needling 이란?** 침을 근육이나 근막조직의 통증점에 자침하는 치료법으로 근육통의 완화, 근육 및 인대의 긴장 감소에 효과가 있습니다.

### 진료 과목

- ✓ 자동차 사고 후유증
- ✓ 손, 발 통증 및 저림
- ✓ 척추 디스크 통증
- ✓ 어깨 결림 및 통증
- ✓ 두통, 목, 허리 통증
- ✓ 만성근육통

### 취급 보험

- Blue Cross Blue Shield
- Anthem
- United Healthcare/GEHA
- Innovation Health
- Blue Choice
- Aetna
- CareFirst



Dr. 민혁기

원장 Dr. 송영성

Dr. 석호선

#### Dr. 민혁기

- 전 경기대 대체의학 대학원 외래교수
- Body Balance Center Director(압구정)
- MD & VA Board Licensed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Magna CumLaude(우등졸업)
- Life Univ. Doctor of Chiropractic 과정전액 장학생
- 단대부고 졸업

#### 원장 Dr. 송영성

- 동아고, 경희대학교 졸업
- R.O.T.C 28기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Graduated Magna CumLaude from Life Univ.
- Practiced in Choi Chiropractic
- Certified in Cox Technique-Low Back Pain
- Certified Dry Needling

#### Dr. 석호선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졸업
- 대구 대건고, 경북대학교 졸업
- MD and VA Chiropractic Board Licensed
- Licensed Massage Therapist (LMT) of MD & VA
- Completion of Asian Bodywork Therapy Program
- Member of Associated Bodywork and Massage Professionals

엘리콧시티 (410) 480-2331 3201 Rogers Ave. #102, Ellicott City, MD 21043

락빌 (301) 279-6960 2000A Veirs Mill Rd., #A, Rockville, MD 20851

# 오상욱 허찌른 '180도 다리찢기' ... 한국 첫 '그랜드슬램'도

(4개 대회 우승)

남자 사브르 개인전서 첫 금  
1m92cm 큰 키에 유연성 갖춘 괴물  
긴 리치 활용, 민첩하게 상대 제압  
단체전 마지막 검객으로 2관왕 도전

한국 펜싱의 간판 오상욱(28·대  
전광역시청)이 생애 첫 올림픽  
개인전 '금빛 찢기'에 성공했  
다. 세계 4위인 그는 28일(한국시  
간) 프랑스 파리 그랑팔레에서  
열린 2024 파리 올림픽 펜싱 남  
자 사브르 개인전 결승에서 세  
계 14위 파레스 페르자니(27·튀  
니지)를 15-11로 물리쳤다. 앞서  
32강전에서 에반 지로(니제르)  
를 15-8, 16강전에서 알리 파크  
다만(이란)을 15-10으로 제압했  
고, 8강전에서 파레스 아르파(캐  
나다)를 15-13으로 따돌렸다. 준  
결승에선 루이지 사벨레(이탈리  
아)를 15-5로 물리쳤다.

한국 펜싱으로선 사브르 개인  
전 첫 금메달이다. 이전까지 김  
정환의 동메달(2016 리우, 2021  
도쿄)이 최고 성적이다. 앞서 세  
계선수권·아시아선수권·아시아  
게임에서 개인전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오상욱은 '그랜드슬램'

도 달성했다. 그의 금메달은 한  
국 선수단의 이번 대회 한국 첫  
금메달이다. 그간 단체전에 더  
큰 의미를 뒀던 오상욱은 우승  
순간 이른바 '어벤져스'(어벤져  
스+펜싱)로 함께하다 은퇴한 김  
정환과 김준호를 떠올렸다. 그는  
"함께 한술밥을 먹으면서 컸는  
데, 형들이 나갈 때 정말 큰 변화  
가 있었다"며 "단체전은 함께 뭔  
가를 이겨내고, 못한 부분을 다  
른 사람이 메워주는 그런 맛이  
있는데 개인전은 홀로서기"라고  
말했다.

올림픽 4회 연속 금메달의 한  
국 펜싱은 신홍 효자 종목으로  
자리를 굳혔다. 2000 시드니에서  
올림픽 첫 금(남자 플뢰레 개인  
전 김영호)을 수확한 한국 펜싱  
은 2012 런던 금 2개(남자 사브르  
단체·여자 사브르 개인 김지연),  
2016 리우 금 1개(남자 에페 개인  
박상영)로 이어나갔다. 2021 도  
쿄에서도 금 1개(남자 사브르 단  
체전)을 챙겼다.

오상욱은 1m92cm의 큰 키와  
2m5cm의 긴 윙스팬(양팔을 벌  
린 길이)에 유연성까지 갖춘 '피

지컬 괴물'이다. 아무리 빠른 상  
대라도 그의 긴 리치를 이용한 찢  
기 공격을 피하기 어렵다. 올해  
28세지만 대표 경력만 10년 가깝  
다. 2014년 12월 '한국 사브르 최  
초 고교생 국가대표'가 된 그는  
23세이던 2019년 세계선수권에  
선 개인·단체전을 석권하며 세계  
1위까지 올랐다. 그는 지난해 항  
저우 아시안게임 개인전 결승에  
서 대표팀 선배 구본길(35·국민  
체육진흥공단)의 4연패를 저지  
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단  
체전 금메달까지 더해 2관왕에  
올랐다.

오상욱은 남은 단체전에서 한  
국 펜싱 최초의 올림픽 2관왕에  
도전한다. 사브르 단체전 세계 1  
위인 한국 남자대표팀은 2012 런던,  
2020 도쿄(2016 리우는 남자  
사브르 단체전이 열리지 않음)  
에 이어 올림픽 3연속 금에 도전  
한다. 한국은 베테랑 구본길과  
에이스 오상욱의 두 기존 멤버에  
신예 박상원(24), 도경동(25)이  
가세했다. 오상욱은 단체전에서  
가장 중요한 마지막 검객으로 나  
선다. **파라=피주영 기자**



펜싱 남자 사브르 개인전 결승에서 오상욱이 보여준 '다리 찢기' 기술. 큰 키와 긴 리치를 이용한 찢기 공격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파라=김성룡 기자, (뉴스1)

## 김우민 '1레인의 기적' 400m 동메달 ...

한국 수영 12년 만에 올림픽 메달  
2년간 호주 오가며 지옥훈련 버려  
"사지 타는 느낌으로 막판 스피트"

김우민(23·강원도청)은 막판 스피  
트를 떠올리며 "사지가 타들  
어가는 느낌이었다"고 했다. 이  
를 약문 그는 3분42초50의 기록  
으로 터치패드를 찍었다. 예선 7  
위로 결선에 올라 불리한 1레인  
에서 경기를 하고도 1위 루카스  
마르텐스(독일·3분41초78), 2위

일라이자 워닝턴(호주·3분42초  
21)에 이어 3위에 올랐다. 28일  
(한국시간) 2024 파리 올림픽 수  
영 경영 남자 자유형 400m 결선  
에서 12년 만에 한국 수영 올림  
픽 메달리스트가 탄생했다.

김우민은 부산 중리초 5학년  
때 선수 생활을 시작했다. 부산  
체중 2학년까지는 배영이 주 종  
목이었었는데, 늘 예선에서 탈락  
했다. 중3 때 '천직'인 자유형을  
만났다. 특히 400m에 집중하면

서 기량이 급성장했고, 국내 정  
상으로 성장했다. '황선우'에게  
만 환호하던 수영계가 그에게  
주목하기 시작했다.

대한수영연맹은 2022년 4월  
김우민·황선우 등 자유형 국가  
대표 4명을 호주 멜버른에 보냈  
다. 6주간 전설적인 지도자 이  
언 포프 코치와 특별훈련을 했  
다. 직후 출전한 6월 부다페스  
트 세계 선수권 자유형 400m에  
서 김우민은 3분45초64로 >



파리올림픽 난민팀 기수로 나선 시리아 태권도 선수 야히야 알 고타니(오른쪽 사진). 왼쪽 작은 사진에서 오른기 깃발을 든 사람이 고타니다. **파라=김성룡 기자, IAP=연합뉴스**



## "1억 난민, 희망 품으면 꿈 이뤄진다"

올림픽 난민팀 기수 태권도 고타니

시리아 내전에 13년간 난민 생활  
"차별·전쟁 없는 태권도에 푹 빠져  
이대훈 롤모델, 언젠가 금 따겠다"

"가장 선두에서 깃발을 들고 올  
림픽이라는 큰 무대를 밟은 건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2024 파리올림픽 남자 태권  
도 68kg급에 출전하는 시리아  
난민 선수 야히야 알 고타니  
(21)는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이

렇게 말했다. 고타니는 지난 27  
일(한국시간) 열린 2024 파리  
올림픽 개회식에서 난민올림픽  
팀(12개 종목 총 37명)을 대표  
해 기수로 나섰다. 오른기가 새  
겨진 깃발을 든 고타니가 이끈  
난민팀은 그리스에 이어 둘째

로 입장했다.

난민팀이 올림픽에 출전하  
는 건 2016 리우데자네이루 대  
회와 2020 도쿄 대회에 이어 이  
번이 세 번째다. 국제올림픽위  
원회(IOC)가 난민들에게 용기  
와 희망을 북돋워 주기 위해 팀  
을 꾸렸다. 그래서 별칭도 '1억  
명을 대표하는 하나(1 in 100  
million)'다. 1억 명은 전 세계에  
서 집계된 난민의 숫자, 하나는  
이들을 대표해 파리올림픽에  
출전하는 난민팀을 상징한다.

지난 27일 파리의 올림픽선

수촌에서 만난 고타니는 "기수  
의 임무를 마쳤으니, 지금부터  
경기에 집중하겠다. 하루도 빠  
짐없이 훈련하며 생애 첫 올림  
픽을 준비했다. 경기장에서 후  
회가 남지 않도록 기운일 노력  
의 100%를 발휘하겠다"며 당  
찬 포부를 밝혔다. '태권 청년'  
고타니의 조국 시리아는 매일  
같이 총성이 들리고 포탄이 터  
지던 지옥이었다. 결국 8세 때  
인 2011년 내전으로 가족과 함  
께 요르단의 아즈락 난민 캠프  
로 피신했다. 그리고 10년 넘게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  
다.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것이  
어려워 거대한 감옥 같은 난민  
캠프에 갇혀 지냈다. 현재 부모  
님과 6명의 동생과 2대의 카라  
반에서 생활한다.

무언가를 배우기 쉽지 않은  
그곳에서 고타니는 14세 때 태  
권도를 만났다. 친구 따라 우  
연히 세계태권도연맹(WT)의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고타  
니는 태권도에 빠져들었다. 고타  
니에게 태권도는 난민 캠프  
의 울타리를 벗어나 세 >

**구강교육치과**

# 나투라 치과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원장 **강동호** Don Kang

-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DDS
- ◇ 유엔(Univ. Of Pennsylvania) 치과대학원 졸업 DMD
- ◇ 뉴욕대(NYU) 치과대학 임플란트 수술 / 보철 과정 수료
- ◇ 시애틀 인스티튜트 수료 (Seattle Institute)
- ◇ 한국, 미국에서의 22년 임상경력
- ◇ 100여명의 치과 의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필라 A-1 Family Dental Care에서 최고 기어 치과의사상 수상

**무보험자를 위한 무이자 Plan, Care Credit**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임플란트 Implant    잇몸치료 Periodontal Surgery    치아교정 Orthodontics Invisalign    **인비절라인 지정치과**

응급환자 Emergency    치아성형 Veneer Lumineers    신경치료 Root Canal Treatment

**나투라 치과 페어팩스 T. 703-652-4265**

9508 Lee Highway, #A, Fairfax, VA 22031 (구)롯데 쇼핑 근처에 있는 IHOP에서 Lee Hwy 건너편

www.naturadent.net

**약착같은 부동산 비키리**

# 7월 HOT 리스팅

**부동산 비키리와 함께하면 부동산에 안목이, 삶이 풍부해집니다.**

**비엔나 타운홈**  
방3+와3+차고2  
2001년, 2100sf  
젤로스로드 단로당 메트로  
도로보 5분거리  
**\$970,000**

**페어팩스**  
타운홈 방3+와3, 차고1 **\$70만불대**  
타운홈 방3+와3, 차고2 **\$80~\$85만불대**

**센터빌**  
타운홈 방3+와3 **\$45만불~\$60만불**  
타운홈 방3+와3, 차고1 **\$60만불대**  
타운홈 방4+와3, 조지메이슨 대학 부근 **\$630,000**

**임대**  
조지메이슨 대학부근  
싱글홈 2층 넓고 환한 방1  
임대: 여학생 환영

**비키리 부동산**  
전화 문자 **703-231-5572**

DC, MD, VA 브로커 면허 소유  
북버지니아 부동산 협회 선정 17년 연속 탑프로듀서,  
주택 관리 전문 회사

NVAR Diamond Member  
Membership in the Top Producer's Club for 10 years of cumulative success

**CONFIDENTIALITY NOTICE:** The contents of this email message and any attachments are intended solely for the addressee(s) and may contain confidential and/or privileged information and may be legally protected from disclosure.

**앰플러스 부동산 / 탑 프라퍼티 임대관리회사**  
버지니아 / 703-863-0321    D.C., 메릴랜드 / 301-399-0140

# 메달 후보에 없었다... 19세 제주소녀 오예진, 깜짝 금



사격 여자 공기권총 10m 결선에서 금메달을 놓고 겨루는 김예진(왼쪽)과 오예진. 오예진이 올림픽 결선 신기록으로 1위에 올랐다. 사투루=김성룡 기자

수영 남자 자유형 400m 결선에서 역영하는 김우민. 한국의 12년 만의 올림픽 수영 메달이다. 파리=김성룡 기자, 연합뉴스

공기권총 10m, 첫 올림픽서 일내 중학교 때 친구 따라 사격 처음 접해 제주여성팬 고교 9개 대회 석권 '워킹맘' 금지현, 혼성소총 은메달

2024 파리 올림픽에서 '깜짝' 금메달을 따낸 오예진(19·IBK)은 이내 냉철한 승부사에서 10대 소녀로 돌아갔다. 그리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28일(한국 시간) 프랑스 앙드루주 샤토루 슈팅센터에서 열린 사격 여자 공기권총 10m 결선에서 오예진이 금메달을 수확했다. 함께 출전한 선배 김예지(32·임실군청)와 마지막까지 경쟁한 끝에 올림픽 결선 신기록(243.2점)으로 1위에 올랐다. 김예지는 합계 241.3점으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오예진은 대한사격연맹조차 메달 후보로 꼽지 않았던 선수다. 국제대회 경험도 많지 않고 김예지에게 가려 이번 올림픽은 다음을 위한 도약의 무대 정도였다. 실제로 연맹의 메달 후보 명단에 그는 없었다. 전화위복이 됐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 차분하게 대회를 준비했다. 그를 지도한 채근배(54) IBK기업은행 사격단 감독은 28일 중

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최근 월 드컵 성적은 김예지가 뛰어났지만, 오예진도 흐름이 좋았다"며 "집중력이 뛰어나 결선에만 가면 반드시 메달을 따낼 수 있으리라고 믿었다"고 말했다. "오늘도 리드를 잡으면 절대 흐름을 내주지 않는 승부사 기질이 빛났다"고 덧붙였다.

음악과 강아지를 좋아하던 평범한 소녀 오예진의 운명은 우연한 계기로 바뀌었다. 표선중 시절 친구 따라 찾았던 동네 사격장에서 처음 총을 쏘았다. 재능을 발견하면서 사격 선수의 길에 들어섰다. 제주여성 시절 고교부 9개 대회를 석권하며 한국 사격의 기대주로 떠올랐다. 그의 아버지 오현석씨는 "막내 딸이 올림픽 메달을 따낸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며 "어린 나이 때부터 하고 싶어 하는 일이 있다는 점이 참 예뻐다. 매일 사격장에 태우고 다닌 예진이가 집안의 보배가 됐다"며 감격했다.

앞서 지난 27일 같은 경기장에서 열린 공기소총 10m 혼성경기에서는 금지현(24·경기도청)이 동갑내기 박하준(KT)과 한국 선수단의 첫 메달을 합작했다. 2년 전 임신 상태로 파리 올

림픽 출전권을 따낸 그는 예쁜 딸을 출산한 뒤 생애 첫 올림픽에서 값진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금지현·박하준은 1~2위 결정전에서 중국에 12~16으로 아쉽게 졌다. 사실 대회 이틀 전까지 금지현의 파트너는 최대한이었는데, 컨디션이 좋아 코칭스태프의 결정으로 에이스 박하준과 호흡을 맞췄고, 메달 격발에 성공했다.

올림픽 출전 과정은 드라마 같았다. 2022년 10월, 카이로 국제사격연맹(ISSF) 월드컵을 앞두고 임신 사실을 알았다. 2세 계획이 없던 터라 당황했지만, 기쁜 맘으로 출산을 준비해 지난해 5월 딸을 얻었다. 만삭 당시 허리 디스크 등으로 힘들었지만, 태아와 함께 사로를 지켰고, 마침내 샤토루에서 은메달을 쏴냈다. 그의 사연은 지난해 5월 중앙일보의 '스포츠계 저출산, 엄마 선수가 없다'는 기획 기사를 통해 널리 알려졌다. 그는 "운동선수가 임신하면 편견을 갖고 보는 분들이 있다. 그런 시선에도 기죽지 말고 하고 싶은 일을 해내는 후배들이 나왔으면 한다"고 말했다.

사투루=고봉준 기자

## 계영 800m서 또다른 기적 일군다

세계 6위에 올랐다.

지난해 2월엔 호주 브리즈번에서 호주 대표팀 지도자 출신 리처드 스칼스 코치와 훈련했다. 그해 7월 후쿠오카 세계선수권에서 3분43초92까지 기록을 단축하며 세계 5위로 올라섰다. 아시아 선수 중 이 종목 유일한 결선 진출자였다. 이어 지난해 9월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3분44초36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올림픽 메달로 목표를 향한 김우민은 지난 1월 5일부터 2월 3일까지 호주 골드코스트에서 매일 12시간씩 '지옥 훈련'을 소화했다. 성과는 눈부셨다. '올림픽 전조전'인 지난 2월 도하 세계선수권 자유형 400m에서 3분42초71의 개인 최고 기록으로 우승했다. 호주도 이때부터 그를 견제했다. 느닷없이 4월 16일부터 8주간 외국인 선수의 호주 전지훈련을 금지한다'고 발표한

것이다. 김우민은 올림픽을 앞두고 "(대회 첫날 열리는) 400m에서 꼭 메달을 따서 그 뒤에 출전할 선수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바랐고, 이를 현실로 이뤘다. 그는 "자유형 200m(황선우)와 단체전인 계영 800m에서도 또 하나의 기적이 탄생하지 않을까(한다)"라고 기대를 높였다.

배영은 기자, 파리=고봉준 기자

계를 배우고 세상과 통할 수 있는 소통 창구였다. 체계적으로 태권도를 수련해 5년 만에 2단을 뒀다.

2018년 조정원 WT 총재가 세운 태권도박애재단(THF)에서 아즈락 캠프에 휴메니테리안 태권도 센터(THF)를 건립하면서 고타니는 본격적인 훈련을 받기 시작했다. 기량도 국제 대회에 나설 정도까지 오르면서 파리올림픽 초청까지 받았다. 그는 "태권도는 누군가를 쓰러뜨리고 승패를 가리는 전

쟁이 아니다. 강자와 약자를 구분하는 차별도 없다. 다 함께 정진과 신체를 단련하는 스포츠라서 반했다"고 말했다. 태권도를 수련하며 고타니는 한국에 꼭 빠졌다. 그는 WT와 대한체육회의 지원을 받아 지난해 7월부터 4개월간 한국에서 올림픽 대비 전지훈련을 했다. 고타니는 "태권도 종주국 한국에서 훈련한 것은 동기 부여가 됐다. 롤모델인 태권도 레전드 이대훈(은퇴)을 만나보지 못해 아쉽다. 새콤달콤한 김치

맛을 잊지 못해 한국을 또 방문하고 싶다"고 말했다. 인터뷰를 마치며 고타니에게 꿈에 관해 물었다. 그는 "언젠가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난민 내가 올림픽 무대에 선 것 자체가 기적이다.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다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 전 세계인과 1억 난민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 '자신을 믿어라. 그럼 꿈은 이뤄질 것'이라며 웃었다.

파리=피주영 기자

## 이재용, 마크롱 만나고 펜싱 금메달 '직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012년 런던 올림픽 이후 12년 만에 올림픽 현장을 찾았다. 28일 세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파리올림픽 개막식 전날인 지난 25일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초청한 엘리제궁 오찬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베르나르 아르노 LVMH 회장 등 글로벌 기업 총수 40명이 함께했다. 이 회장은 이날 저녁에는 흥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과 함께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과 마크롱 대통령이 주최한 개막 전야 만찬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IOC 위원 100여 명과 스페인 펠리페



이재용 회장이 27일(현지시간) 파리 올림픽 펜싱 남자 사브르 경기를 관람하고 있다. [뉴시스]

6세 국왕, 네덜란드 빌럼 알렉산더 국왕, 덴마크 프레데릭 10세 국왕, 모나코 알베르 2세 왕자 등이 참석했다. 이 회장은 27

일 파리 그랑팔레에서 열린 펜싱 남자 사브르 개인전 결승도 관전했다.

황수연 기자

**여권 사진 | 가족 사진 | 아기 사진 | 커플 사진 | 반려동물 사진 | 기념일 사진**

## 한국에서 유명한 셀프포토 스튜디오가 6월에 센터빌 오픈했습니다!

"나만의 방 안에서 그 누구 눈치 안보고 편하게 찍을 수 있는 셀프 포토 스튜디오에 환영합니다"

**예약 문자 / 전화: 703-400-7099**

14260M Centreville Square, Centreville, VA 20121

www.Selfotostudios.com

## 신성재 변호사 교통사고 / 개인파산

경기 침체로 어려운 시대에 당신이 믿을 수 있는 최고의 변호사.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지킬 것은 지켜 드립니다. 파산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난 10년간 1,000건의 파산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믿을 수 있는 로펌.

- 교통사고 / 최대보상
- 개인상해 보상청구
- Chapter 7: 개인 파산
- Chapter 13: 개인 파산-Payment Plan
- 비즈니스 관련 민사 소송

교통사고 최대보상! 소송전문 변호사들이 약속 드립니다. 아무리 작은 케이스라도 법원에서 끝장을 보는 근성 있는 변호사들!

같이 일하실 사무장 구합니다. 전화 또는 이력서를 이메일 sjshin.esq@gmail.com 으로 보내주시고.

Regina Domingo Esq. | Chris Shin Esq. | Robert Harris Esq.

Hours: Mon-Fri (10:00 ~ 18:00)  
E-mail: sjshin.esq@gmail.com / Fax: 240.775.3004

우리말 바꾸기

글이 써(?) 있어

글쓰기 관련 강좌나 책에서 우리 문장을 쓸 때 웬만하면 피동형을 쓰지 말라는 주장을 흔히 접하게 된다. 능동형 동사를 사용하면 글이 늘어지지 않아 간결해지고 힘찬 문장이 되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 주장이 우리 글에서 피동형 동사를 써서는 안 된다는 얘기는 결코 아니다. 피동형이 꼭 필요할 때는 사용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예문을 보자. “교회 옆 ‘나누리 쉼터’는 밤늦은 시간에도 항상 불이 켜 있다.” “스님의 뒷모습은 저 멀리 물결처럼 펼쳐 있는 산의 능선처럼 아름다웠다.” “나는 (=이 떨어져 나간) ‘복싱’이라고 써 있는 낱은 킥복싱 체육관을 다니게 되었다.” “외판 오두막에는 양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철조망도 둘러쳐 있었어.”

‘켜다’ ‘펼치다’ ‘쓰다’ ‘둘러치다’는 타동사다. ‘불을 켜다’ ‘책을 펼치다’ ‘글을 쓰다’ ‘거적을 둘러치다’처럼 쓴다. 이들을 피동형으로 바꾸면 ‘불이 켜지다’ ‘책이 펼쳐지다’ ‘글이 쓰이다’ ‘거적이 둘러쳐지다’가 된다. 첫째 예문의 ‘불이 켜 있다’는 잘못된 문장이다. ‘불이 켜져 있다’로 해야 옳다. 둘째 예문의 ‘물결처럼 펼쳐 있는’은 ‘...펼쳐져 있는’으로, 셋째 예문의 ‘복싱이라고 써 있는’도 ‘...쓰여(쓰어, 적혀) 있는’으로 적어야 맞다. 넷째 예문의 ‘철조망도 둘러쳐 있었어’는 ‘철조망도 둘러쳐져 있었어’로 해야 바르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한인커뮤니티를 위한 제언, 신문을 보고 느낀 점, 문제작품, 독자투고 등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워싱턴 중앙일보 편집국 오피니언 담당자: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이메일: dc.thekoreadaily@gmail.com 전화: 703-281-9660

◆오피니언은 본지 편집방향과 관련이 없습니다.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dc.koreadaily.com

대표전화 : 703-281-9660 (광고·구독 문의 및 기사제보)

발행인 김영천 편집국장 박세용 광고국장 송동윤

2001년 9월 22일 창간 7023 Little River Tpk #310, Annandale, VA 22003

본사 전체 계약 제휴사 한국중앙일보, Washington Post

Washington Joongang Newspaper inc. is not a branch office of Koreadaily, subsidiary or franchise of the company, but a licensee of the content of the company.

유홍주 칼럼

북-러 밀착에 한국은 ‘핵 갑옷’ 입었다



유홍주 한미자유연맹 상임고문

북-러 밀착으로 한반도 위기가 고조 될수 있다. 그럴 경우 한국은 한미동맹, 한미일 동맹 역시 강해 질 수밖에 없다. 그러한 상황을 중국이 원치않는 만큼 중국을 비롯해 유럽연합(EU)와 북대서양조약 기구(NATO), 미국, 일본 등이 나서서 하루속히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다면 러시아 역시 먹고 사는 일이 급선무가 될 것이며 러시아에 필요한 기술 혁신, 경제 재건 등은 북한이 아닌 한국과 일본, 미국, 유럽연합(EU) 등과 하게 될 지도 모른다.

워싱턴서 열린 나토+ 인도 태평양 4국(IP4)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따로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승인한 것은 한반도 안보 뿐만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 유럽 안보를 포괄하는 새로운 전략이다.

이러한 미국이 자유 우방과 공동전선을 펼 ‘핵우산’은 미국의 일방적인 시혜의 성격이 짙은 것이 현실이다.

미국의 판단 여부에 따라 핵우산을 펼 것인가 말 것인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반도에 관한 한 이번 작전 지침에 따라 미국의 일방적 시혜가 아니라 한국 정부도 공동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을 확보한 것이다.

새뮤얼 퍼파로 인도 태평양 사령관은 공개 발언을 통해 한국이 전략 핵잠수함 도입도 필요하다면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이 갖출 ‘핵 갑옷’에 별다른 제한이 없음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아 틀리지 않을 것이다. ‘핵 억제 지침’을 한마디로 줄이면 ‘북이 핵 도발을 감행한다면 핵무기로 보복하겠다’는 행동 원칙을 처음으로 문서로 확인한 것이다.

핵심 내용을 조금 과장 한다면 미국 정부 주머니에 들어 있는 핵을 필요할 때 한국 정부가 꺼내

어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북한이 거의 즉각적으로 ‘무모한 도발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 배격한다’고 반발한 것은 한미의 핵 작전 지침의 파괴력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현재 국제적으로 공인된 핵보유국은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 5개국뿐이다.

모두 유엔 안보 리 상임이사국이며 핵확산금지조약(NFT) 가입국이다.

실질적인 핵보유국으로 보는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은 NFT 미가입국이며 ‘핵보유국’을 자처하는 북한은 한때 NFT에 가입했다가 철수한 ‘특이성’이 있다.

이스라엘만이 유일하게 핵실험을 하지 않은 핵보유국이다. 그러면 미국이 지금까지 유례가 없는, ‘핵 작전 (공동)지침’을 한국에만 새로 마련한 것은 무슨 까닭일까? 한마디로 줄이면 지난번 푸틴 방북으로 북-러가 ‘즉각 자동 개입’으로 강화된 동맹조약 체결에 대한 대응책이다.

북-러 간의 동맹 강화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선에 북한 무기를 거의 무제한으로 도입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북한은 그 반대급부로 미사일을 비롯한 첨단 분야 기술을 도입할 수 있게 되었다.

일부에서는 북한의 재래식 무기 성능에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으나 역설적으로 말해서 무기 성능이 떨어지면 떨어질 수록 러시아의 선진

기술 도입도 그만큼 쉽게 된다는 뜻이 함축되어 있다.

북한 무기의 성능이 높아지면 우크라 전선에서 그만큼 러시아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푸틴이 북한과 거리를 좁혀나가자 윤석열 대통령은 ‘남북한 어느 쪽이 러시아에 중요한가?’를 반문할 정도로 강력하게 반발했다.

상황에 따라서는 한국도 우크라이나에 무기 원조 가능성도 내비쳤다. 이를 계기로 유럽과 아시아 일부에서 우크라이나가 남북한 무기의 대리전쟁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유럽과 북아메리카 32개국 이 회원국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3년째 정상회의에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IP4를 초청한 것은 남중국해를 중심으로 영해 확대정책을 강화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다.

이번 워싱턴 나토+IP4 정상회의가 중국과 러시아 위협에 대응책을 명기한 정상선언을 채택한 배경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세계 경찰관 역할’을 포기한다고 밝힌 이래 그 공백을 메우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한미가 합의한 ‘핵 동맹’은 이러한 공백을 메울 대안으로도 가능성이 가능하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미국 동맹국은 한국, 일본이 중심이다. 그러나 한국군은 유사시에 한미연합사령부로 작전권이 통합된다. 그러나 일본 자위대는 일본 정부의 지휘를 받는다.

한국만이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할 핵심국가임을 이번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재확인한 셈이며 그 상징적인 사안이 ‘한미 핵 동맹’이다.

이는 곧 우크라이나 무기 공여로 밀착한 북-러 가치를 대가이기도 하다.

독자마당

성 소수자

개된 뉴섬 거주 주지사가 학교 측이 학생의 성적 체성을 학부모에게 알리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함께 성 소수자 이슈도 다시 관심을 끌고 있다.

성 소수자를 의미하는 LGBTQ는 다양한 형태의 성 소수자를 지칭하는 단어의 알파벳 첫 글자를 따 만든 말이다. 즉, 여성 동성애자(lesbian), 남성 동성애자(gay)(남성 동성애자), 양성애자(bisexual), 성전환자(transgender), 성적 정체성을 명확히 할 수 없는 사람(queer) 등을 의미한다.

성 소수자는 인류의 초기부터, 그리고 역사적으로 어떤 국가나 민족에도 있었다고 한다. 다시

말해 성 소수자의 존재는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자연적인 현상이라는 것이다.

과거 신화가 지배했던 시대에는 성 소수자가 별로 문제 될 것이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근대에 접어들어 결혼제도가 확립되고, 도덕과 사회규범이 생기고, 법이 엄격해 지면서 성 소수자에 대한 시각에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분석이다. 단지 성 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차별과 죽임을 당했던 시대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성 소수자를 바라보는 시각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다. 과학자들은 성 소수자의 성향은 약물이나 정신과적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즉,

성 소수자는 선천적으로 그렇게 태어난다는 의미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하지만 대부분은 나와 다르다는 이유에서 차별이 시작된다. 여전히 일부 지역, 일부 사람들에 남아있는 인종차별 의식도 같은 맥락이다.

얼마 전 한국에서 성 소수자 대회라는 것이 열렸다고 한다.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이다. 그런데 이 대회에서 한 참가자가 들고 있던 피켓이 시선을 끌었다. 그가 들고 있던 피켓에는 ‘우리는 어떠한 차별도 반대한다’고 적혀 있었다.

서효원·LA

# 한미법률사무소

변호사의 실력을 가늠할 수 있는 두 가지 여건은 경력과 학력입니다. 한미법률사무소의 임종범 변호사는 이 두 가지를 다 갖춘 변호사입니다. 임종범 변호사는 미국의 명문 조지타운 법대를 2003년에 졸업했으며, 그 후로 20여 년간 변호사 활동을 했습니다. 아울러 임종범 변호사는 2005년, 2007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대통령의 통역을 맡은 바 있으며, 2010년, 2012년, 2014년에는 싱가포르 상고법원 장관회의에서 미국 국방장관의 통역을 담당했습니다.

임종범 변호사는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법원,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연방지법,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파산법원 등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미 법률사무소는 한국어와 영어로 속 시원한 상담을 약속드립니다.

**대표변호사 임종범**  
James Yim Victory, Esq.

“지난 20여 년간 아낌없이 성원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인생을 살며 겪게 되는 크고 작은 많은 일들 혼자 갈 수 없는 길엔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좋은 날이 될 수 있다고 믿는 당신에게 희망의 꽃 한 송이 드립니다.”

\* 변호사 임종범 \*

**파산 : 한미는 연방법이 지정하는 채무구제 기관입니다.**

**이혼 : 합의 이혼, 재산분할, 양육비, 일방 이혼, 배우자 실종 이혼**

**상속 : 유언장, 트러스트, 가디언, 상속 분쟁**

**소송 : 오버타임, 항소, 계약위반, 부도수표**

**이름변경 · 교통사고 · 위임장**

**아포스티유 · 가족이민 · 추방재판**

Hanmicenter.com 웹사이트를 방문하시면 파산 관련 정보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임종범변호사”를 치시면 이혼, 파산, 생활법률에 관한 동영상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구글검색이나 중앙일보 웹사이트에서 “임종범변호사”를 치시면 한미법률사무소에서 기고한 300여개의 칼럼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사무장 김진주**  
Jinju Kim

“걱정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으실텐데, 저희 한미가 친절하게 도와 드리겠습니다. 먹구름 뒤에도 태양이 있고, 추운 겨울이 지나면 따뜻한 봄이 오듯이 포기하지 마시고 힘을 내세요.”

\* 사무장 김진주 \*

**Hanmi Center for Justice, PLLC (한미 법률사무소)** Tel. 703-333-2005 / 301-230-3122

4216 Evergreen Lane, #131, Annandale VA 22003



**독점** Woodbridge **타운홈**

방3, 화3, 2 Car Garage,  
End Unit, Update Kitchen,  
새 페인트, 밝고 환한집

**\$549,900**



**Contract**

**독점** RESTON VA **타운홈**

완전히 리모델링한 넓고 환하고  
깨끗하고 예쁜집, 방3, 화1/1.

**\$479,900**



**독점** Manassas Park **싱글홈**

완전히 리모델링한 넓고 환하고  
깨끗하고 예쁜집, 2 Car Garage,  
앞뜰과 뒷뜰 넓은 텍!

**\$690,000**



**SOLD**

**독점** Centreville **타운홈**

좋은 위치의 밝고 깨끗한 환한 집, End Unit,  
새로 단장한 마루, 부엌, 화장실,  
Granit top, All new appliance, 백야드 팬스.

**\$439,900**



**SOLD**

**독점** 단독주택 Alexandria

리모델링한 부엌 (새 주방용기, Granite counter-tops),  
리모델링한 화장실, 새 나무 마루,  
New Paint, 방4, 화장실2, As-Is

**\$579,900**



**Contract**



대표 **정희수**  
703.477.3114

**성실을 실천하는 부동산!**

행복 가득한 편안한  
집을 소개합니다!  
내집 마련의 꿈!  
현대 부동산이 함께합니다!

상담환영

집 파실 분 · 사실 분 · 경매



Principal Broker **세리 리**  
703.244.6526

# ASK미국 온·오프 정보센터

ASK미국 정보센터는 각 분야 100여명의 전문가와 함께 온·오프라인 상담을 동시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민, 법률, 세금, 복지, 교육, 부동산, 보험 등 전문지식부터 자동차, 집수리, 컴퓨터, 여행 등의 미국생활까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온라인 상담 <http://ask.koreadaily.com>



곽재혁  
부동산 에이전트

## Q 개인이 CRT를 만들 수 있는가

▶문= Charitable Remainder Trust (CRT)를 만들려고 하는데 개인이 만들 수 있는가?

▶답= Charitable Remainder Trust(CRT)는 단어들을 한국어로 풀이해 보면 “자선 잔여 신탁”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 또는 단체, 즉 비영리 단체, 기업, 그리고 기타 조직이 자산을 기부하고 세금 혜택을 받으면서 자선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입니다. CRT는 공적으로 인정받은 자선 단체나 재산 관리인(Trustee)을 포함하는 재산 관리 계약이기 때문에

, 개인이 CRT를 설립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CRT를 설정할 때 중요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Trustee 선정입니다. CRT의 Trustee는 재산을 관리하고, 수익을 분배하며, 마지막에는 자선 단체에 재산을 이양하는 역할을 합니다.

Trustee는 신뢰할 수 있는 개인, 금융 기관, 자선 단체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법적 문서 작성입니다. CRT 설립 시 필요한 법적 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문서에는 Trust의

목적, 수익자들에 대한 권리와 이익, Trustee의 책임 등이 명시됩니다.

세 번째, CRT를 설정할 때는 자신의 재산을 장래에 기부하고자 하는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CRT는 세금적 혜택을 제공할 수 있으며,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CRT는 재산 관리 계약으로서 설정하고, 이를 통해 자선 활동을 지원하거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 변호사가 회사를 만들고 거기에 Charitable Remainder Trust (CRT)를 넣

는 거라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

▶답= CRT는 재산을 자선 단체에 기부하기 전에 수익을 받을 수 있는 재산 관리 계약입니다. 따라서 CRT를 설정할 때, 일반적으로 개인이나 단체가 CRT의 설정자가 되고, Trustee를 선정하여 CRT를 관리합니다. 변호사가 회사를 만들고 거기에 CRT를 넣는다는 것은 특정한 상황이나 전략에 따른 것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규모 재산을 관리하거나, 법인의 구조를 활용하여 재산 관리 및 기부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박유진  
변호사

## Q 모기지 용자와 직장 경력

▶문= 간호사인 저는 10년 동안 다니던 풀타임 병원을 작년 7월에 그만두고 두 군데 병원에서 파트타임으로 일 한지 일 년 되었습니다. 이 경우 용자 받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또한 직장이나 직업을 바꾼 경우 용자에 미치는 경향에 대하여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 파트타임 두 군데 중 한 군데의 수입이 충분히 많지 않으면 용자 승인이 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파트타임 두 군데 중 한 군데를 Second Job으로 간주하는데, Second Job은 2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둘 중 한

군데의 수입만을 기준으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이 모기지 심사 기준은 보통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이처럼 모기지 용자에서는 보통 2년의 직장 경력을 요구하고 이를 기준으로 수입을 계산합니다.

렌더는 최소한 2년의 직장 경력과 수입 기록은 있어야 믿을만하고 앞으로 지속 가능한 수입이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또 간호사의 예를 들어보면 간호학교를 졸업하고 1년 조금 넘게 일을 한 사람의 경우 간호학교의 공부를 경력으로 인정해 주

어 2년 경력을 채울 수 있습니다. 물론 심사에 필요한 수입을 어떻게 계산하느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반대로 대학을 졸업하고 세일즈를 하면서 1년 동안의 커미션 수입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승인이 나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수입을 산정하는 데는 1년이란 세월이 너무 짧기 때문입니다.

1099수입의 독립 계약자는 자영업자로 분류되어 반드시 최소 2년의 경력과 세금 보고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경비를 공제한 순수입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

람이 자동차 수리업을 10년 동안 운영하다가 팔고, 그 가게에서 매니저로 1년 동안 일을 경우와, 반대로 자동차 수리소에서 매니저로 10년 일을 하다가 그 가게를 인수하여 주인이 된 지 1년이 지난 경우 중 보통 전자의 경우가 용자 승인이 더 잘 나옵니다.

왜냐하면 전자는 월급쟁이로서 수입의 안정성과 지속성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후자의 경우는 자영업자가 된 지 1년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험이 더 크고 경비 등을 제외한 순수입의 검증이 힘들어 용자 승인받기가 어렵습니다.



한정수  
한의사·자연치유박사

## Q 처방약 보험 본인 최대 부담금 \$2,000로 축소

▶문= 저는 3년째 메디케어 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HMO 보험을 가입하여 여러 혜택을 받으며 만족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인들의 말에 의하면 내년부터는 메디케어 보험 혜택이 많이 줄어든다는데 사실인지요?

▶답= 2025년에는 메디케어 보험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이번 4월 CMS에서 메디케어 보험의 새로운 변경 사항을 발표하였습니다. 그중에 메디케어 수혜자분들이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받으실 부분이 처방약 보험 파트 D입니다. 보험 회사들의 세부적인 처방

약 보험 내용은 10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일단 변화된 처방약 보험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부터는 The Inflation Reduction Act (인플레이션 감소법)에 의해 본인 최대 부담금이 현재 \$8,000에서 \$2,000로 내려갑니다.

처방약 혜택에 단계 4가지 중에 3번째 단계인 Coverage gap 일명 도넛 홀은 보험 회사의 보조가 없어지거나 아주 적어지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가 되면 고가의 브랜드 처방약을 드시는 분들은 빠르면 가입 후 몇 달 만에 도넛

홀에 들어가서 본인 부담이 컸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이 도넛 홀 단계가 아예 없어지게 되면서 비싼 약을 드시는 분들에게는 희소식입니다. 하지만 일반 약을 복용하시거나 전혀 처방약을 안 드시는 분들에게는 그리 답감지 않을 수 있습니다.

타 보험회사들의 처방약 추가 부담 비용이 발생함으로 인해 그동안 제공하던 추가 혜택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복용해 왔던 처방약이 보험 회사의 사정에 의해 제외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

러므로 이번 연례 가입 기간 동안 본인이 먹는 처방약들이 가입하고자 하는 플랜에서 커버 받는지 반드시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파트 D 처방약 혜택의 변화는 파트 B의약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의사 오피스에서 투여하는 예방주사나 키모테라피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2025년에 변경 사항에는 에이전트가 고객에게 특정 보험회사 플랜만을 권하는 일을 금하고 있습니다. 고객 위주가 아닌 에이전트 인센티브를 위해 특정 회사와 상품에 가입을 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R코드를  
스캔해주세요!

워싱턴 중앙일보

# 전자신문 보기

주 5일 발행되는  
워싱턴 중앙일보 전자신문을  
이제 스마트폰으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내 손안에 신문!  
언제든지  
편하게!



먼길, 험한길, 언제나 한결같이 묵묵히 손잡아 주는 **사랑손**이 있습니다.

# 모두가 행복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가족, 간병사 그리고 직원들, 모두가 만족한 회사  
**러브핸드 홈헬스 & 데이케어**에 가족의 돌봄을 맡겨주세요.

은혜안에 한행복, 한소망을 나누는 곳!! 섬김이 무엇인지 **맛보게** 되실 것입니다.

### 메디케이드 (Medicaid) 신청이 필요하세요? 롱텀케어(Long-Term Care) 신청이 힘드세요?

러브핸드 홈헬스의 전문 상담사가  
신청부터 성실히 도와드립니다.

### 성실하고 정직한 간병인이 필요하세요?

은혜와 사랑으로 섬기는 러브핸드 홈헬스의  
간병사분들이 여러분을 섬깁니다.

### 편법이 없는 간병회사를 찾고 있으세요?

원칙의 신념 러브핸드 홈헬스에 전화하세요.  
저희는 원칙과 법을 준수합니다.

### 사랑의 섬김이 넘치는 러브핸드 시니어데이케어

- 버지니아 주정부 및 메디케이드로부터 인가 된 시니어 데이케어
-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프로그램 구성
- 그리운 맛과 건강을 생각한 집밥으로 아침 및 점심 식사, 그리고 영양 간식 제공
- 의사 방문시 교통편 제공
- 메디케이드 혜택
- 친절한 간호사와 함께하는 수시 건강 체크 및 상담
- 취향에 맞춘 즐거움과 편리함을 주는 각종 시설 완비
- 일반 회원은 소정의 회원비로 센터이용 가능
- 서류 번역 및 작성 등 제반 소셜 서비스 제공

### 사랑의 돌봄이있는 러브핸드 홈헬스

- 버지니아 주정부 및 메디케이드로부터 인가 된 전문 간병 서비스
- 노인성 치매, 장애우 전문 간병
- 메디케이드 혜택
- 개인 부담 환자 최저 부담 상담
- Skilled Nurse 서비스
- 방문 물리치료 서비스

### 직원 모집

- \* 데이케어 드라이버
- \* 회사 성장으로 인해 일할 더 많은 인재를 모집합니다.
- \* 문의: admin1@lovehandhomehealth.com

간병은 단순한 서비스 제공이 아닙니다. 간병은 사랑입니다.

문의 및 상담

# 703-657-0944



러브핸드 홈헬스 & 시니어데이케어 / 찬들리  
Love Hand Home Health & Senior Daycare/Chantilly  
14101 Parke Long Ct., Suite H  
Chantilly, VA 20151  
703) 657-0944



러브핸드 홈헬스 & 시니어데이케어 / 뉴포트뉴스  
Love Hand Home Health & Senior Daycare/ Newport News  
716 Denbigh Blvd., Suite E-1  
Newport News, VA 23608  
757) 527-4140

# Sung Hwang & Kim

## 합동 법률 사무소 MD, DC, VA



**VIRGINIA OFFICE**

7353 McWhorter Place, Suite 202  
Annandale, VA 22003



**MARYLAND OFFICE**

9256 Bendix Rd, Suite 109  
Columbia, MD 21045



한인들의 모든 법률문제를 해결해 드리는 것이 저희 로펌의 목표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후회없는 선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완벽한 영어** 와 **풍부한 재판 경험** 으로 법정에서 자신있게 여러분을 변호합니다.
- **보상금을 받아내지 못할 경우 변호사 비용 무료**
- **첫상담 무료** (특정분야 제외)

**주요 업무 분야**

- 교통사고 보험청구/의료비/수리비/휴직 보상
- 민사소송
- 비즈니스 설립/매매/분쟁
- 사업체 고문변호사 제도
- 보험
- 손해배상
- 의료사고
- 부동산 매매/Lease/분쟁
- Liquor License

한국 비즈니스  
오너들을  
대표해서  
**FOX NEWS,**  
**CNN** 인터뷰



**찰리 성 변호사**  
CHARLEY C. SUNG, ESQ.

- Johns Hopkins University, BA  
-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Law School, JD

**약력**  
Cleary Gottlieb Steen & Hamilton, LLP  
DLA Piper, LLP (세계 2위 로펌)  
Gilbert & Randolph, LLP  
전, 하워드 한인회 회장  
Maryland Court of Appeals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Maryland  
District of Columbia Court of Appeals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피터 황 변호사**  
PETER K. HWANG, ESQ.

- Johns Hopkins University, BA  
- American University, Washington College of Law, JD

**약력**  
Dickstein Shapiro, LLP  
Baker Botts, LLP  
New York Court of Appeals  
Maryland Court of Appeals



**폴 김 변호사**

- Johns Hopkins University, BA  
- University of Maryland School of Law, JD  
- Johns Hopkins University School of Public Health, MPH

**약력**  
Cole Schotz, P.C.  
Ober Kaler, PC  
Blank Rome LLP  
Gardner Carton & Douglas LLC  
MD, DC

Sung Hwang & Kim | LLP

www.shkfirm.com



**Columbia, MD**

T. 410.772.2324

Toll Free: 888.772.3001  
9256 Bendix Rd., Suite 109  
Columbia, MD 21045

**Annandale, VA**

T. 703.436.1444

Toll Free: 888.772.3001  
7353 Mcwhorter Pl., Unit 202  
Annandale, VA 22003

**Wheaton, MD**

T. 410.772.2324

Toll Free: 888.772.3001  
11262 Georgia Ave., 2nd Fl.  
Wheaton, MD 20902

**곽태우 변호사**  
K Law Firm, PLLC  
이민 / 부동산 매매 (1031 Exchange)  
비즈니스 매매 / 리스  
리빙트러스트 / 이혼 / 유언장  
T. 703.712.7151  
T. 571.405.6540

# 경제 & 연예/문화 Sports

**빙·난방** 제대로 설치해야 반영구적!  
오래되고 낡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www.LBuniversal.com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JoongAng Ilbo

Monday, July 29, 2024 C

연방파산법이 지정한 채무구제 기관  
**법무법인 한미**  
파산  
이혼  
상속  
임소  
임종범 대표 변호사 (VA/MD)  
703-333-2005  
301-230-3122  
4216 Evergreen Ln., #131, Annandale, VA 2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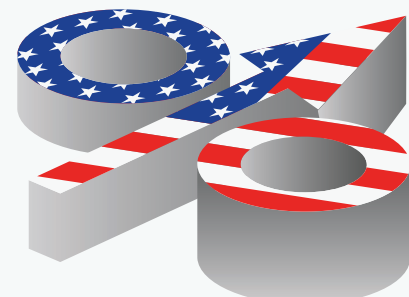
**김웅용 변호사**  
JOY LAW GROUP  
이민법  
영주권 (결혼/취업)  
시민권  
NIW  
간호사(RN)  
E2, R 비자  
703-246-9100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Dental Implant \$1,000**  
(치과 임플란트)  
Implant Crown - Extra  
(임플란트 크라운은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especially  
in Full Mouth Cases  
다양한 종류의 치과 임플란트  
특히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703)569-8000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 하십니까?  
**Hanmi Homehealth**  
회사는 1,200여명의 간병사를 교육하여  
배출한 정평있는 정식한 회사입니다.  
특히, 개인 부담으로 간병사를 구하시는 분은  
특별 상담하여 드립니다.  
www.Hanmihomehealth.com  
6214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한미간호학교  
Hanmi Nursing School  
한미 간호 학교는 미주 지역에서  
유일하게 미중언어로 CNA  
교육과정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T. (703)303-4556 / F. (703)303-0988  
www.Hanminursingschool.com

2분기 미국 경제가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높은 성장률  
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고용과 소비를 중심  
으로 미국 경제 냉각 조짐이 일부 보였지만, 2분기 경  
제성장률이 기대 이상으로 높게 나오면서 경기 둔화  
우려가 일단 사그라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올 2분기  
(4~6월) 한국 경제는 전 분기 대비 마이너스(-) 성장  
을 기록했다. 1분기 '깜짝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가 작  
용한 데다, 내수 회복세가 더딘 것이 성장률을 꺾는 요  
인이 됐다.  
25일 미 상무부 경제분석국은 2분기 실질 국내총생  
산(GDP)이 전 분기 대비 2.8%(연율 기준)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는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시장 전망치  
(2.1%)를 큰 폭으로 넘어선 것이다. 직전 분기인 지난  
해 1분기 GDP 증가율의 (1.4%) 2배에 달한다. 미국은

## 미 2분기 GDP 깜짝성장 1분기의 두배인 2.8%↑ 개인소비지출은 둔화



GDP를 속보치·잠정치·확정치로 3번 나눠 발표한다.  
이날 발표한 2분기 GDP는 이 중 첫 번째 집계인 속보  
치다. 미 상무부는 "민간 재고 투자와 소비자 지출 상  
승으로 1분기에 비해 2분기 실질 GDP 증가율이 높아  
졌다"고 설명했다.  
최근 시장 전문가들은 미국 경제 둔화에 대한 우려  
가 있었다. 하지만 이날 2분기 미국 GDP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미국 경기가 여전히 확장세에 있다는 점  
이 증명됐다. 같은 날 함께 발표한 2분기 개인소비지출  
(PCE) 가격지수는 지난해 2분기 대비 2.6% 올라 1분기  
(3.4%) 상승률에 비해 크게 둔화했다. 다만 이 기간 식  
료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PCE는 2.9% 상승  
하면서, 시장 예상치(2.7%)를 소폭 뛰어넘었다.  
▶ 4면 '2분기 GDP'로 이어집니다 김남준·오호정 기자

## 미 빅테크 폭락 ... 같이 끌려내려간 한국증시

### 미국발 악재에 시장 요동

빅테크 실적 우려에 미 증시 급락  
코스피 2700 위협, 코스닥 800 붕괴  
닛케이 -3.3% 등 아시아 동반 약세  
"변동성 커졌지만 추가 급락 없을 것"  
미국의 '빅테크(대형 IT기업) 실적 쇼  
크'가 한국내 증시를 뒤흔들었다. 코스피가  
2710선으로 밀렸고, 코스닥 지수는 800  
선이 깨졌다. 일본 등 아시아 주요 증시  
도 큰 폭으로 내렸다. '인공지능(AI) 랠  
리가 한계에 도달했다'는 우려가 시장  
을 지배했다.  
25일 코스피는 전날보다 1.74% 내  
린 2710.65에 장을 마쳤다. 장중 한때  
2703.86까지 밀렸다. 지난 11일 2900선  
고지를 목전에 뒀던 코스피는 10거래일  
만에 6.2% 하락했다. 외국인 투자자가  
주식을 6700억원 어치 순매도하며 지수  
를 끌어내렸다. 기관도 1500억원 가량

팔아치웠다. 개인이 8200억원 어치를  
사들였지만, 지수 하락을 막기엔 역부  
족이었다.  
코스닥 지수는 나뭇이 더 컸다. 전  
날보다 2.08% 떨어진 797.29를 기록했  
다. 코스닥이 800 아래로 밀린 건 지난  
2월1일(798.73) 이후 6개월 만이다. 일  
본 닛케이(-3.28%), 중국 상하이 지수  
(-0.52%)도 동반 하락했다. 닛케이 지  
수는 2016년 6월24일 이후 8년1개월 만  
에 나뭇이 가장 컸다.  
시장을 짓누른 건 미국에서 불어온  
빅테크발(發) 충격이다. 24일(현지시  
간) 테슬라는 2분기 순이익이 14억7800  
만 달러(약 2조3000억원)로 전년 동기보  
다 45% 줄었다고 밝혔다. '로보택시'(무  
인 자율주행 택시) 공개를 두 달 미루다  
는 소식까지 겹쳐 테슬라 주가는 이날  
12.33% 폭락했다.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은 시장 예상  
치를 웃도는 2분기 실적을 발표했지만,  
주요 사업인 유튜브 광고 수익이 5.04%

하락했다. 그 외 엔비디아(-6.8%) 등  
'매그니피센트7(M7)'에 속한 종목이  
일제히 하락했다.  
M7 종목의 시가총액은 하루 만에  
7680억 달러(약 1060조원) 증발했다. 이  
에 뉴욕 증시에서 스탠더드앤드푸어스  
(S&P) 500지수는 2.3%, 나스닥지수는  
3.64% 급락했다. 두 지수 모두 2년9개  
월 만의 최대 나뭇이다. 한지영 키움증  
권 연구원은 "M7 종목의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할 거란 불안감  
에, AI 산업의 성장성이 훼손될 수 있다  
는 우려가 맞물렸다"고 분석했다. 기업  
이익 증가 속도에 비해 AI 종목 주가가  
너무 빨리 올라 투자자들이 불안해하  
던 차에 이번 실적이 '울고 싶는데 뺨을  
때린 격'이란 해석도 나온다.  
미국 AI주가 급락하자 한국내 증시  
에선 삼성전자(-1.95%), SK하이닉스  
(-7.15%) 등 반도체주가 크게 내렸다.  
SK하이닉스는 이날 6년 만에 5조원 넘  
은 2분기 영업이익을 냈다고 공시했

만, 주가 하락을 막진 못했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수석연구위원은 "AI 거  
품 우려에 오히려 HBM(고대역폭메모  
리) 시장을 주도하는 SK하이닉스가 삼  
성전자보다 타격이 컸다"고 말했다.  
다만 한국내 증시가 더 급락하진 않  
을 거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경민 대신  
증권 투자전략팀장은 "최근 증시의 조  
정 양상이 과격해졌는데, 코스피 주가  
수익비율(PER)이 9.2~9.3배까지 낮아  
진 만큼 추가로 무너지진 않을 것"이라  
고 말했다.  
이번 주에도 마이크로소프트(MS), 애플,  
아마존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라 변동성이 커져 2700선  
이 깨질 수 있지만, 2600선은 지킬 것으  
로 전망했다. 정용택 위원은 "이달 말 미  
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9  
월 금리인하 신호가 나오면 8월에 기술적  
인 주가 반등이 나올 수 있다"며 "올해까  
진 금리인하, 경기둔화 이슈로 오르내림  
을 반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영기 기자

공인회계사  
**김서규 CPA**  
703.914.0085  
7535 Little River Tnpk., #310-B  
Annandale, 22003

**김철민 변호사**  
이민법 / 상법  
취업이민, 가족초청, NIW, H1B, F1, E2비자  
비즈니스, 계약, 리스, 회사설립, 투자자문  
703.973.8700  
7700 Little River Tnpk., #303, Annandale, VA 22003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나투라 치과**  
구강교육치과  
dental implants  
bright smile  
703-652-4265

**JJL Contractor Inc.**  
지붕 고민 / 돈 걱정  
이제 그만하세요  
Tel. 703.835.0945

**대형 교통사고 전문**  
전직검사 한인2세 교통사고전문변호사! 같은사고! 다른결과!  
ROWE WEINSTEIN & SOHN PLLC  
**로우와이스틴 & 손로폼**  
Attorneys and Counselors Law

사고가났습니까? 즉시 연락주세요. 바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가벼운 접촉사고 부터 사망사고 까지-

**사고처리** INSTEIN & SOHN  
v 교통사고 직후 현장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v 교통사고, 경찰에 신고 해야 하나요?  
v 접촉사고후 가해자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나요?  
v 목격자는 필요하나요?

**형사처벌**  
v 교통사고후 구속되는 경우  
v 음주운전 (DUI, DWI)  
v 각종 교통 티켓  
v 면허정지 (Licenses Suspension)  
v 면허취소 (Licenses Revocation)  
v 감옥형벌 (Jail Penalty)

패트릭 플로레스 Patrick Flores 교통사고 법정변호사 pflores@rowepllc.com  
노승훈 Robinson S. Rown 교통사고 법정변호사 rrowe@rowepllc.com  
Super Lawyers The Washington Post Magazine 선정 Top 100 법정변호사  
로버트 캐들 Robert Cadle 교통사고 법정변호사 rcadle@rowepllc.com

MD 301-770-4710 VA 703-887-1037 888-340-7583 www.rowepllc.com  
909 Rose Avenue, Suite 640 N. Bethesda, MD 20852 7010 Little River Turnpike Suite #300 Annandale, VA 22003 2200 Pennsylvania Avenue, N.W., 4th Floor Washington, D.C., 20037 FAX 301-770-4711 Mrs. Lee 사무장 703-887-1037 www.rowepllc.com

환율 결정 요인으로 살펴본 원화가치 방향은

# “원화가치 하락 끝자락... 장기 평균 향해 상승할 듯”

(달러당 1148원)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00원에 근접할 만큼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 대선을 앞둔 불확실성이나 북한 리스크 등으로 원·달러 환율이 더 오를(원화가치 하락) 수 있으나, 경제적 요인을 보면 원화가치는 점차 상승할 확률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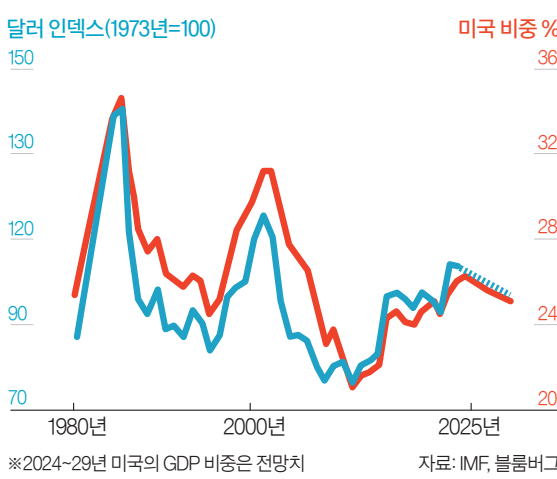
환율은 다양한 경제 요인을 반영하면서 변동한다. 원·달러 환율에는 미국 달러가 가장 큰 영향을 준다. 일본의 엔화나 중국의 위안화 환율도 원·달러 환율에 영향을 주는 경제 변수다. 이 외에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나 국제수지도 환율 변동을 초래하는 요인이다.

### 달러 가치, 원화값 주요 결정 변수

이들 변수가 실제로 원·달러 환율 변동을 얼마나 설명하는지를 보기 위해 통계 모형(벡터자기회귀 모형)을 사용해 분석해봤다. 모형에 사용한 변수는 달러 인덱스와 엔·달러, 위안·달러 환율, 한국과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수익률 차이, 경상수지다. 분석 기간은 2009년 1월에서 2024년 6월이다. 이에 따르면 3개월의 시차를 두고 원·달러 환율 변동의 52.9%를 달러 인덱스가 설명해줬다.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원화화 표시되는 만큼 달러 가치가 상승(하락)하면 원화 가치는 하락(상승)한다. 원·달러 환율 그 자체가 다음으로 설명력(37.6%)이 높았다. 이번 달에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다음 달에도 오를 확률이 높다는 의미다. 이 외에 엔·달러 환율이 0.9%, 위안·달러 환율이 2.6%, 한·미 10년 국채수익률 차이가 3.1%, 경상수지가 2.8%를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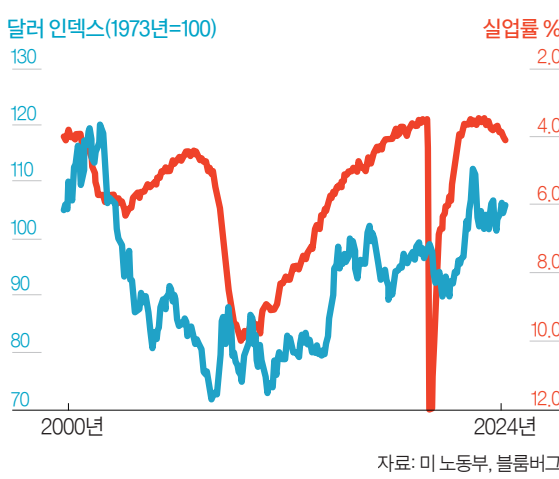
원·달러 환율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경제 변수가 주요 선진국 6개 통화에 대한 미국 달러의 가치를 반영한 달러 인덱스(1973년=100)다. 1980년 이후로 달러 인덱스는 두 번에 걸쳐 크게 하락한 적이 있었다. 첫 번째 하락기는 1985년 2월에서 1992년 8월이다. 이 기간에 달러 인덱스(월말 기준)는 160.41에서 78.88로 50.8% 떨어졌다. 특히 달러 강세를 완화하고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달러 가치 하락을 유도한 1989년 9월 플라자 합의 이후 달러 인덱스는 급락

### 전 세계 국내총생산에서 미국 비중과 달러 인덱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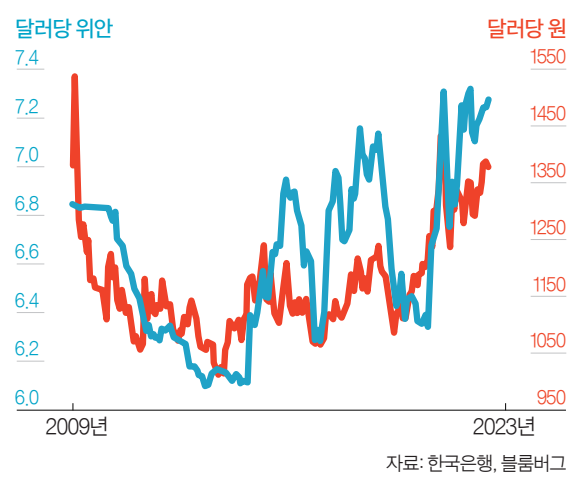
※2024~29년 미국의 GDP 비중은 전망치 자료: IMF, 블룸버그

### 미국 실업률과 달러 인덱스



자료: 미노동부, 블룸버그

### 위안·달러 및 원·달러 환율



자료: 한국은행, 블룸버그

했다. 달러 인덱스의 2차 하락은 2002년 2월에서 2008년 3월에 있었다. 이 기간에 달러 인덱스는 120.21에서 71.80으로 40.3% 떨어졌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발생했던 정보통신(IT)혁명 거품이 2000년대 들어 붕괴하면서 달러 인덱스 하락과 함께 세계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미국 비중이 2001년 31.3%에서 2008년 23.0%로 급락했다.

2011년 이후 달러 인덱스는 상승했다. 2011년 4월 72.93이었던 달러 인덱스가 2022년 10월에는 111.53까지 52.9%나 상승했다. 이 기간에 주요국 중앙은행 중 미국의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가장 많이 인상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나타났다. 올해 들어 달러 인덱스는 101~106 사이에서 움직이면서 이전 고점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보면 달러 인덱스가 2022년 10월을 고점으로 하락 추세에 접어들고 있는데, 그 이유는 세 가지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4월 세계경제전망에서 미국의 세계 GDP 비중이 2024년 26.3%에서 2029년에는 25.1%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과거에 미국의 GDP 비중과 달러 인덱스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4년간 달러 인덱스가 하락한다는 의미이다. 다음으로 미국의 대내외 불균형 확대도 달러 인덱스 하락 요인이다. 올해 1분기 미국의 대외순부채는 21조2818억 달러로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외국인 직접 투자와 증권 투자가 조금이라도 줄어든다면 달러 인덱스는 하락할 수 있

다. 1분기 연방정부 부채도 GDP 대비 122.3%로 매우 높다. 마지막으로 세계 각국 중앙은행의 달러 보유 비중 축소다. 2000년 71.1%에서 2023년에는 58.4%로 줄었다. 특히 중국이 미국채를 팔고 금을 사고 있다. 2013년 말 1조 2700억 달러였던 중국의 미 국채보유액은 2024년 4월 말에는 7707억 달러로 줄었다.

### 미국, 소비와 기업 심리 둔화 양상

지난 2년 동안 ‘세계 경제에서 미국 경제만 좋았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미국 경제는 호황을 누렸다. 미국 GDP의 69%를 차지하는 소비가 증가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올해 1분기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1.4%에 그쳤는데, 그 중심에 소비 둔화가 있다. 이유는 낮은 가계 저축률과 중간가구의 실질소득 감소, 가계의 이자 부담 증가다. 코로나19 이전(2000~19년)에 저축률은 평균 5.2%였으나 올해 1~5월에는 3.8%로 낮아졌다. 소득 차별화로 중간가구의 실질소득은 2019년을 정점으로 하락하고 있다. 가계의 가처분소득에서 이자 비중이 2021년 3월 1.2%에서 올해 5월에는 2.5%로 상승했다.

이에 따라 소비 심리가 먼저 위축되고 기업 심리도 뒤따라 둔화하고 있다. 최근 미국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가고 있는데도 콘퍼런스 보드나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가 하락하고 있다. 경제 성장을 주도했던 서비스업 경기도 위축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대표적 기업심리지수는 공급자관리협회(ISM)의 구매자관리지수(PMI)로, 제조업 PMI는 2022년 11월부터 기준선으로 여겨지는 50 이하

를 밑돌고 있다. 비제조업 PMI는 계속 50 이상이었으나 지난 4월과 6월에는 50 이하로 떨어졌다. 올해 들어서는 고용 증가세도 둔화하고 있으며, 실업률은 지난해 4월 3.4%에서 올해 5월에는 4.1%로 올라왔다. 실업률이 오를 때 시장금리와 달러 인덱스는 하락했다. 특히 2000년 이후 실업률과 달러 인덱스의 상관관계가 마이너스(-) 0.53이었다. 이런 경제 상황을 반영해 Fed가 오는 9월부터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

### 위안화 절하 가능성, 원화값 하락 요인

올해 들어 6월 말까지 달러 인덱스는 4.5% 상승했는데 원화 가치 하락률은 6.9%였다. 같은 기간 엔화 가치가 14.1% 하락하면서 원화 가치 하락에 일부 기여했다. 엔·달러 환율 변동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가 미국과 일본의 10년 만기 국채수익률 차다. 2010년 1월에서 2024년 6월 통계로 분석해보면 엔·달러 환율과 미·일 국채수익률 차이의 상관관계수는 0.62로 비교적 높은 편이다. 앞으로 미·일 금리 차는 점차 축소될 전망이다. Fed가 금리를 인상하는 반면 일본은행(BOJ)은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해 최근 미국의 10년 국채수익률은 하락하고 일본 국채수익률은 2011년 이후 처음으로 1%를 넘어섰다. 중국 위안화 가치는 올해 들어 상반기까지 2.4% 하락하는 데 그쳐 엔화나 원화보다 하락률이 낮았다. 그러나 미국의 대중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에 대한 대응책으로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어느 정도 절하할 가능성이 있다. 엔화보다는 위안화가 원화 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

다. 위안화 가치가 절하될 경우 원화 가치도 하락 압력을 받을 수 있다.

### 원화가치, 연말 달러당 1345원 전망

원·달러 환율 결정에 영향을 주는 또 다른 경제 변수는 한·미 금리 차와 경상수지다. 지난 6월 한국과 미국의 10년 국채수익률 차이는 마이너스(-) 0.97%(월평균)로 역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7월 들어서도 금리 차가 마이너스 1% 이상으로 더 확대되면서 원화 가치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한·미 금리 차로 인해 외국인 자금이 유출되고 있지는 않다. 올해 상반기에 외국인은 국내 상장 주식을 22조 8820억원 순매수했다. 상반기 외국인 상장채권 순매수 규모는 1조 4230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13조 3290억원)보다 대폭 줄었다. 지난 6월 말 외국인 채권 보유 규모를 보면 아시아(120조 4000억원·47.9%)와 유럽(72조 8000억원·28.9%) 두 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지역보다 한국의 금리가 높기에 채권 시장에서 자금이 급격하게 유출될 가능성은 작다.

여기다가 경상수지 흑자도 확대되고 있다. 올해 1~5월 경상수지 흑자는 255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50억 달러 적자)보다 대폭 개선됐다. 연간 경상수지 흑자는 700억 달러를 다소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경상수지 흑자가 직접투자나 증권투자 등 금융계정을 통해 해외로 유출되고 있기에 경상수지가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줄고 있다.

경상수지가 흑자를 기록하고 외국인 주식 투자 자금이 유입될 때 코스피와 원화 가치는 동시에 상승했다. 그러나 올해 들어 코스피는 상승하

## 승경호 부동산

Realtor  
K. Soung

- ✓ 가치 극대화 및 성공적인 매각 목표
- ✓ 입주전 전체적 통합 서비스 제공
- ✓ 손조로운 임대차 계약 및 갱신 업무
- ✓ 최적의 입지와 컨설팅 제공
- ✓ 최신 부동산 시장 동향 파악 및 분석
- ✓ 맞춤형 주택 매입과 최고의 주택 매각

### 승경호 추천 매물

<p><b>NEW</b></p> <p><b>스시 식당</b></p> <p>알링턴 버지니아, 판매가: 50만 1900 SF, Rent 8900 SF 연매상 \$1,058,000</p>	<p><b>NEW</b></p> <p><b>버지니아 상가건물</b></p> <p>3백10만불, 1.8에이커 Cap Rate 7%, 임차 5개 연순수익 \$218,000</p>	<p><b>NEW</b></p> <p><b>디시 유명 델리</b></p> <p>주인 없이 운영 판매가 55만불 정부입주 건물 1층 순수익 = 주인운영 없이 1만불</p>	<p><b>Beer &amp; Wine Shop</b></p> <p>주2만불수입 렌트 \$7200+Cam, 2,300SF 몽고메리카운티, 메릴랜드 조건부임대계약 50만불</p>	<p><b>상가</b></p> <p>맥클린, 단독건물 4백5만불, 6,000 SF</p>
<p><b>식당 자리</b></p> <p>4,675 SF, 임대 메릴랜드 락빌</p>	<p><b>사무실</b></p> <p>에난데일, 1200 SF 사무실, 병원적합, 35만불</p>	<p><b>Beer &amp; Wine Shop</b></p> <p>주1만8천불수입, 렌트 \$7200 2400 SF, 알링턴 버지니아 조건부 임대계약, 35만불</p>	<p><b>상가</b></p> <p>비엔나, 버지니아 상가매매 연순수익 52만불, 8백만불</p>	<p><b>상가</b></p> <p>발티모어상업건물 (임대수입) 1층식당+2층+3층아파트, 1백1십만불</p>
<p><b>창고</b></p> <p>전기시설 완벽한 창고자리임대 9000 SF, 헌트, 버지니아</p>	<p><b>사무실</b></p> <p>워싱턴 디씨, 교통 좋은곳 사무실 임대하실 회사찾습니다</p>	<p><b>콘도</b></p> <p>방2개, 화장실2개, 차고1개 있습니다 메트로근처, 웨그맨옆 관리해드립니다 매매가 49만불</p>	<p><b>이 자리에 광고받습니다</b> 지금 전화주세요!</p>	

주 택

투자 컨설팅

주재원 렌딩 서비스

703.928.5990

승경호

k@dwellwashington.com

ONE REALTYONEGROUP CAPITAL

7925 Jones Branch Dr. #3100  
McLean, VA 22102  
703.928.5990

Realty One Group은  
미 전국에 15000명의 부동산 에이전트가 일하는  
미국 부동산 회사입니다

THE SCHNEIDER TEAM

www.dwellwashington.com

내 집 장만

부동산 전문 소사지

# 전술투자로 능동적인 수익·리스크 관리

## 투자법 이해 전략과 전술

투자에는 늘 손실 리스크도 함께 하기 마련이다. 집중과 배분이 투자 리스크와 잠재적 수익성 사이의 '트레이드오프(trade-off)'에 대한 접근법이라면 전략과 전술은 이 트레이드오프를 실제 관리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전략투자와 전술투자의 같은 점과 다른 점, 실제 투자 포트폴리오 운용에 적용되는 방식 등에 대해 알아보자.



다양한 접근법을 반영한 포트폴리오를 구성, 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한 장기전망에 기반해 운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글로벌 섹터 교체 방식은 대체로 중장기 전망에 기반해 적용된다. 항시적으로 주식형 자산에 배치되지만 글로벌 시장에 대한 중장기 전망이 하락장일 경우에는 채권이나 현금, 현금자산 등 안전자산으로 옮겨 리스크를 관리하게 된다. 이에 반해 주식매수/주식매도 병행 방식은 좀 더 능동적이고 공격적인 접근법이다. 단기 시장전망에 근거한 투자방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단기적으로 상승장이라고 판단되면 주식형 자산을 매수하지만, 하락장이라고 판단되면 현금이나 현금자산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매도에 나선다. 이른바 '숏(short)' 포지션을 활용해 하락장에서 수익을 꾀하는 것이다.

물론, 적극적인 매도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환경에서는 현금, 현금자산을 활용해 자금을 보호하는 데 치중할 수도 있다. 시장환경이 악화할 때 포트폴리오 내 기초 투자자산들 사이 상관성이 높아질 경우 이를 낮추기 위한 분산의 도구로 '숏'을 활용하기도 한다. 결국 투자자의 리스크 수준에 맞춰 시장환경에 따라 주식형 자산 매수와 매도, 팩터 투자, 글로벌 섹터 교체 투자, 현금, 현금성 자산으로의 자금이동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며 능동적으로 포트폴리오의 주식형 자산을 관리할 수 있다.

채권형 자산에 대한 전술투자는 채권시장의 단기, 중장기 전망에 따라 상승장에서는 채권을 매수하고 하락장에서는 역시 채권에 대한 '숏' 포지션을 활용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금리 인상 사이클 환경에서는 채권값이 떨어질 때 단기채권 매수에 나서거나 기존 채권형 자산에 대한 '숏' 포지션을 통해 추가 이익 실현을 도모하는 식이다.

필요한 것은 이런 다양한 개념 자체를 아는 것이라기보다 실제 어떻게 투자에 적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집중과 배분, 능동과 수동, 전략과 전술은 상호 배타적이거나 상호 보완적이고 연결돼 있다. 이들 다양한 접근법이 어떤 목표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를 검토해보고, 이를 반영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켄 최 아메리츠에셋대표

### ▶전략투자

전략투자는 우리가 이미 익숙한 방식이다. 전통적 포트폴리오 이론에 근거해 분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주식, 채권, 현금 등 기초자산들 사이 자금의 배치비율을 달리해서 리스크를 분산하는 것이다. 보통 보수적 포트폴리오, 중도적 포트폴리오, 공격적 포트폴리오로 불리는 것들이 전략적 분산 포트폴리오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분산 구성된 포트폴리오는 해당 리스크 수준을 전제로 가장 좋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이론적 가정이다. 이렇게 원하는 리스크 수준에 맞춰 적절한 자산 배분을 통해 구성된 포트폴리오는 자산별 구성비를 이후로 계속 유지하게 된다. 예컨대 주식형 60%, 채권형 40%로 구성된 60/40 포트폴리오는 전략적으로 이 구성비를 항상 유지하며 투자 운용되는 것이다.

### ▶능동과 수동

투자방법에 대한 이해에는 능동과 수동의 개념도 있다. 2000년대 이후 꾸준히 저변을 확대해온 '인덱스 펀드'가 대표적인 수동투자의 실례라고 할 수

있다. 특정 시장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종목들을 사실상 복사해 투자하는 방식이다. 펀드 매니저가 따로 자의적인 종목 선택과 변경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수동투자라는 표현이 사용되는 것이다.

반면 능동투자는 펀드 매니저의 독자적인 종목 선택과 변경을 전제로 한다. 특정 시장지수를 그대로 복사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리서치와 분석을 통해 종목을 선택하고 변경하는 과정을 반복하며 운용하는 방식이 능동투자다. 다양한 펀드 회사들이 성장형, 가치형, 소독형 등 주된 투자목적을 표방하며 관리하는 뮤추얼 펀드들이 능동투자 방식이 적용된 펀드들이다.

### ▶능동적 전략투자자와 수동적 전략투자

전략투자의 핵심은 리스크에 따른 기초 투자자산의 배분 비율이 정해지고, 이것이 계속 유지된다는 데 있다. 여기에서 능동과 수동의 개념이 적용 기준)은 2024년 1345원, 2025년 1265원, 2026년 1248원이다. 필자는 3년으로 범위를 넓혀보면 장기(2000년 1월~2024년 6월) 평균인 1148원에 접근해갈 것으로 전망한다. 원화 가치 상승에 대비해 수출 기업의 품질 경쟁력 제고가 더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미국 주식을 많이 사는 개인 투자자도 환율변화를 고려하면서 투자 비중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되는 지점은 해당 전략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는 개별 투자종목의 선택과 변경에 있다. 펀드 매니저가 자체적인 리서치와 분석을 통해 종목을 선택한다면 이는 능동적 전략투자가 될 것이다. 그렇지 않고 특정 시장지수를 복사하는 방식으로 구체적인 종목이 선택된다면 이는 수동적 전략투자라고 할 것이다. 결국 전략투자는 능동 투자일 수도 있고 수동투자일 수도 있다는 뜻이다.

### ▶전술투자

전술적 자산운용은 포트폴리오 구성과 종목 선택 등 모든 면에서 능동적인 것이 일반적이다. 월별, 분기별로 종목은 물론, 구성 비율도 달라질 수 있다. 필요에 따라 전방위에서 비정기적 변화를 시도할 수도 있다. 전략투자와의 차이 공통점은 여전히 리스크 프로파일의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보수적 전술운용에서부터 공격적 전술운용까지 필요하거나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리스크 수준에 따라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

전술투자는 사실 수동투자가 되기 어렵다. 펀드 매니저의 재량이 워낙 강조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굳이 전술적이면서 수동투자가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을 보자면 투자종목을 인덱스 펀드나 인덱스 ETF 위주로 활용할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주된 투자종목을 S&P500 ETF나 나스닥 ETF를 활용하면서 시장환경에 따라

현금 등 안전자산으로 100% 이동하기도 하고, 시장 하락에 '베팅'하는 '인버스(inverse)' 인덱스 펀드/ETF를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수동적 전술투자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이다.

전술적 자산운용에서도 전략적 분산의 기본개념이 적용될 수 있다. 리스크 수준에 따라 주식형 자산과 채권형 자산의 전략적 비중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전략적 분산은 그러나 정적인 상태로 유지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전략투자와는 확연히 다른 것이다. 리스크 수준에 따라 정해진 전략적 자산별 배분 비중이 있지만 전술적 자산운용을 위한 투자전략과 결합되며 얼마든지 달라지기 때문이다.

### ▶전술투자의 실제

전술적 투자는 그 안에서도 구체적인 투자방식에 따라 다양하게 이뤄질 수 있다. 주식형 자산과 관련해서는 주식매수/현금, 팩터(factor), 글로벌 섹터 교체, 주식매수/주식매도 등이 대표적인 투자방식이다. 주식매수/현금 투자전략은 증시가 상승장이라고 판단될 때 주식형 자산을 매수하고 하락장이라고 판단될 때는 현금이나 현금자산으로 이동 배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팩터 기반 투자는 역시 상승장, 하락장에 따라 주요 팩터에 따라 투자하고, 하락 리스크가 높은 환경에서는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으로 자금을 옮겨 놓게 된다. 이 두 가지 방식은 시장에

고 있지만 원화 가치는 하락했다. 과거 데이터로 인과관계를 분석해보면 코스피의 원·달러 환율 설명력이 더 높았다. 코스피가 상승한 만큼 원화 가치도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이다.

북한 리스크 등 경제 외적 요인을 제외하면 원화 가치는 점진적으로 오를 확률이 높다. 문제는 얼마나 오르느냐다. 지난 1일 블룸버그 컨센서스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 전망치(연말

기준)은 2024년 1345원, 2025년 1265원, 2026년 1248원이다. 필자는 3년으로 범위를 넓혀보면 장기(2000년 1월~2024년 6월) 평균인 1148원에 접근해갈 것으로 전망한다. 원화 가치 상승에 대비해 수출 기업의 품질 경쟁력 제고가 더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미국 주식을 많이 사는 개인 투자자도 환율변화를 고려하면서 투자 비중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 마우리 왓츠 & 단 박

##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Watts & Park

### “교통사고는 왓츠 & 박”

### 40여년의 법정 변호사 경력 / 3대째 변호사 집안

한국어 상담 안 윤희 (Yoon Hee Ahn)

히스패닉 상담 Consultas en Español 하이디 살게로 (Haidee)



변호사  
Maury B. Watts, III  
마우리 왓츠



변호사  
Dan D. Park  
단 박



변호사  
Roopal Gupta  
루팔 굽다



사무장  
YoonHee Ahn  
안윤희

보상금을 받아내지 못 할 경우  
**변호사비용 일체 무료**

- ▷ 자동차 사고, 오토바이 사고, 트럭사고, 자전거 사고 등 모든 교통사고 처리
- ▷ 사고로 인한 의료비 및 임금청구와 고통에 대한 충분한 보상금 해결
- ▷ 차수리, 렌트카, 병원 등 모든 일체를 도와드립니다.

저녁 & 주말 전화상담 가능!

Cell: 703-994-6643

무료상담

703.256.8797 / 301.495.5619 / 410.783.1220

7010 Little River Tnpk., Suite 200, Annandale, VA 22003

상법



이 승 호 변호사 Lee & Oh

파산 후 체불 임금

파산 전 180일안 체불된 1만5100달러까지 우선 순위 일반채권자 보다 우선이나 담보채권자 보다는 후순위

재직중인 회사가 경영부실로 인해 챗터 7 파산을 하게 됐을 경우, 밀린 임금을 파산한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받게 된다. 회사가 챗터 7 파산을 하게 되면 파산한 회사의 모든 자산은 법정관리인(Trustee)의 소유자 산이 되고 관리를 받게 된다. 법정관리인의 역할은 파산자의 자산을 정리하여 채권자에게 남은 자산을 분배하는 것이다. 채권자에게 자산을 분배할 때 기준은 채권자의 종류에 따라서 결정된다. 채권자는 크게 담보채권자, 우선순위 무담보 채권자 그리고 비우선순위 무담보 채권자로 나뉜다.

먼저, 담보채권자는 파산 후 재산분배에 있어서 최우선의 권리를 가진다. 채권자가 담보로 확보하고 있는 담보자산을 처리하여 담보채권자의 채권금액을 먼저 지불한 후 남은 자산이 있을 때만 무담보 채권자에게 돌아간다. 담보채권자는 채무자가 파산을 했을 때 담보자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므로 다른 어떤 채권자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게 된다. 담보채권자의 채권을 정리한 후 잉여자산을 무담보채권자에게 분배를 하게 되는데 무담보 채권자는 우선순위 여부에 따라서 순위가 달라진다. 무담보 채권자 중에서 파산법에서 정한 우

선순위 채권자가 먼저 잉여자산에 대해 우선순위로 지불을 받게 된다. 모든 우선순위 채권자가 지불을 받은 후에도 남은 자산이 있을 경우에는 비우선순위 무담보 채권자의 채무를 지불하게 된다. 파산법에서 정한 가장 대표적인 우선순위 무담보 채권의 순위는 다음과 같다. 제1순위는 파산진행에 따른 행정적인 비용, 제2순위는 파산 후 발생한 세금, 제3순위는 파산 전 180일안에 지불 안 된 임금(총액 1만5100달러까지) 제4순위는 파산 전 180일안에 지불 안 된 종업원 연금, 제5순위는 일반소비자가 물품구입하기 위해 입금한 금액, 제6순위는 이혼위자료 또는 자녀 양육비.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직 담보가 설정되지 않은 세금이다. 위에 열거한 채권은 무담보 채권 중에서도 우

선순위가 주어지지 않은 순위대로 잉여자산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게 된다. 위에 열거되지 않은 무담보 채권은 비우선순위 무담보 채권으로서 우선순위 무담보 채권이 모두 전액 지불된 후 에야 지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같은 순위의 채권자가 여럿 있을 경우 잉여자산의 가치가 동순위의 채권자의 총 채권 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동 순위 채권자 사이에서 채권 금액에 따른 비율을 계산해 지불 받게 된다. 따라서 파산 전 180일안에 지불 안 된 임금은 우선순위 무담보 채권이고 180일 이상이 되는 임금은 일반 무담보 채권으로 분류된다. 임금을 지불 받기 위해서는 이보다 우선순위인 담보채권자와, 파산진행에 따른 행정비용, 세금이 모두 지불된 후에는 잉여자산이 있어야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다.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엄 기 옥 CPA·Mountain LLP

용자비용의 세금공제

대부분의 주택구매자가 은행이나 그 밖의 대출기관으로부터 용자를 받을 때 용자수수료(Point), 론 오리진네이션 피(Loan origination fee), 또는 론 프로세싱 피(Loan processing fee) 라고 하는 수수료를 지불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포인트는 흔히 '선이자' 라고 불리며 대출기관이 용자를 해주면서 대출자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부과하는 비용을 일컫는다. 1포인트는 전체 용자액수의 1%를 의미한다. 포인트는 용자과정 이 끝나고 용자금액이 인출됨과 동시에 현금으로 따로 지불해야 한다. 이러한 포인트는 항상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시장에 용자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을 때 또는 대출자의 부채 상환 능력이 부족하거나 용자금을 회수할 수 없는 위험도

가 높은 용자일수록 용자회사에서 높은 포인트를 책정한다. 주택 용자를 받기 위해 이러한 포인트를 꼭 지불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일반적으로 포인트를 많이 지불할수록 이자율이 낮아지고 포인트를 적게 지불할수록 이자율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오랫동안 거주할 주택을 구입할 때 포인트를 지불하고 낮은 이자율을 받음으로써 보다 많은 혜택을 볼 수도 있다. 주택구입시 지불한 포인트는 개인 세금보고시 항목별 공제사항이며, 일반적으로 당해의 비용으로 전체금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나 다음과 같은 조항에 모두 적용이 된다면 당해의 비용으로 모두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거주지를 담보로 한 용자여야 한다. ▶포인트를 지불한 용자

회사가 주거지내에 있어야 한다. ▶용자상환조건이 시세와 비슷해야 한다. ▶납세자가 현금주의 회계법칙을 따라야 한다. ▶지불된 포인트는 다른 용자비용과는 별도로 주택매매서류에 분명하게 명시되어야 한다. ▶주거주지를 구입하거나 건축할 목적으로 용자를 받아야 한다. ▶포인트는 용자금액의 퍼센트(%)로 계산되어야 한다. ▶포인트는 용자회사나 용자중개인(broker)에게 빌려서 지불할 수 없다. 한편, 거주 주택의 용자금에 대한 재용자나 임대부동산의 구입이나 재용자시 지불한 용자수수료는 남아있는 용자금 상환기간 동안 나누어 공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50만 달러를 20년 만기에 1 포인트로 용자를 받았다고 하자. 대출자

는 용자과정 이 끝나고 동시에 5000달러의 선이자를 지불해야 한다. 그리고 20년동안 매년 250달러씩 공제 받을 수 있다. 만약 20년 만기가 되기 전에 대출금을 모두 상환했다면, 공제 받지 않고 남아있는 금액만큼 한번에 공제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용자기관에서는 납세자가 매년 납부한 이자총액과 당해에 지불한 포인트가 기입돼 있는 양식 1098을 정산해 보내주는데, 용자회사에서 따로 지불된 용자수수료를 기입하지 않고 보내주는 경우가 많이 있다. 따라서, 납세자가 새로이 주택을 구입하였거나 재용자를 했을 때, 반드시 용자서류를 꼼꼼히 챙겨서 소득세 신고 시 이 용자수수료가 항목별공제에 포함되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하겠다.

▶ 1면 '2분기 GDP'에서 이어집니다

미국 2분기 GDP가 강한 모습을 보였지만,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움직임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 시장 냉각 조짐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에서 Fed가 물가 상승률 목표치(2%)를 기다리지 않고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리겠다고 공언하고 있어서다. 실제 미국 2분기 GDP 속보치가 발표된 직후 미국 시카고산업거래소(CME) 페드워치는 9월 기준금리 인하 확률을 85.8%로 예측했다. 이는 전날 기록한 기준금리 인하 확률(90%)보다 소폭 떨어졌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에 앞서 25일 한국은행은 2분기 실질 국내총

생산(GDP)이 전 분기 대비 0.2%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22년 4분기(-0.5%) 이후 최저치다. 신승철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전 분기 대비 성장률이 크게 올라가면 다음 분기는 저저효과로 떨어지는 부분이 기술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올 상반기 GDP 증가율은 전년 동

기 대비 2.8%로 2022년 상반기(3.2%) 이후 가장 높다. 2분기 성장내역을 지출항목별로 뜯어보면 내수 부진이 두드러진다. 1분기 성장세에 힘을 보탰던 민간소비가 2분기 들어 다시 주춤한 모습을 보이면서다. 민간소비는 승용차·의류 등 재화 소비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0.2% 줄었다.

Advertisement for Intelisystems featuring a woman pointing at a smartphone displaying Google Maps search results. Text includes: '인터넷 마케팅은 인텔리시스템에서', '구글지도 광고로 경쟁사를 앞지르세요', '가장 잘 보이는 TOP3 업체 위에 사장님 사업체를 뜨게 해 드립니다!!', '고객이 많이 찾는 구글 로컬 검색때..', '새고객, 매출 증가가 잘 안되시나요? 내 사업 불경기 탈출,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지금 전화주세요! 703-337-0123 www.Intelisystems.com'. A list of services is provided: 1. 저렴한 비용, 2. 편리한 풀서비스, 3. 믿을 수 있는 회사 (2002년 부터 지금까지).



# 현실과 비현실, 하루키의 평행세계



도시와 그 불확실한 벽  
무라카미 하루키 지음  
홍은주 옮김  
문학동네



2021년 일본 와세다대 무라카미 하루키 도서관 개관 기자회견에 참석한 하루키.

[AP=연합뉴스]

“진짜 내가 사는 곳은 높은 벽에 둘러싸인 그 도시 안이야. 지금 여기 있는 나는 진짜 내가 아니야. 대역에 지나지 않아. 흘러가는 그림자 같은 거야.”

사랑하는 소녀가 은밀하게 고백한다. 지금 내가 보고 있는 나는 ‘가짜’라고. 그리고는 홀연히 사라진다. 소녀가 말한 “높은 벽에 둘러싸인 도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특별한 조건이 있다. 바로 자신의 그림자를 버려야 한다는 것. 소년은 그림자를 버리고 도시에 들어가 애대개 그리던 소녀와 재회한다. 하지만 어찌 된 영문인지 그녀는 소년을 알아보지 못한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신작 장편 『도시와 그 불확실한 벽』은 총 3부로 구성된 이야기다. 1부는 주인공이 10대 시절 여자친구를 떠올리며, 그녀가 말한 “사방이 높은 벽에 둘러싸인, 아득히 먼 수수께끼의 도시”를 찾아가는 내용이다. 주인공이 현실과 미지의 세계를 오가고, ‘벽으로 둘러싸인 도시’에서 다시 만난 여자친구는 사랑했던 연인 ‘나’를 기억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인격체라는 점에서 하루키 스타일의 평행세계라고 불려도 좋겠다. 이 소설의 배경과 설정은 1985년에 발표된 장편 소설 『세계의 끝과 하드보일드 원더랜드』에서도 활용됐다.

소년과 소녀의 이야기는 2부에서 어른이 된 소년과 또 다른 소년 이야기로 바뀐다. 2부의 ‘나’(소년)는 45세의 중년 남성이다. 오래 몸담았던 출판 일을

그만두고 시골 마을에서 도서관 관장이 된 ‘나’는 매일 도서관에 오는 한 소년에게 ‘벽에 둘러싸인 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게 된다. 그 소년 역시 그 도시에 가려고 한다. 어느 날 그 소년이 행방불명되면서 ‘나’는 현실과 비현실을 오가며 살아가는 생활에 종지부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에 선 ‘나’의 마지막 선택은 3부에서 그 모습을 드러낸다.

책은 760쪽이 넘는 방대한 분량이지만 가독성이 좋다. 하루키 특유의 섬세한 감정 묘사도 여전하다. ‘벽으로 둘러싸인 도시’는 시종일관 알쏭달쏭하게 묘사돼 궁금증을 낳는다. 그 벽이 왜 ‘불확실한 벽’인지 생각해보며 읽는 것을 추천한다. 소설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현실과 비현실, 진실과 허구, 상실과 재생이다.

하루키가 2017년 『기사단장 죽이기』 이후 6년 만에 발표한 이번 소설은 1980년 문예지 ‘문학계’에 발표했던 동명의 중편 소설이 토대가 됐다. 이 중편은 하루키가 유일하게 단행본으로 출간하지 않은 작품이다. 당시 하루키는 도쿄에서 제즈 카페를 운영했기 때문에 집필에 온전히 집중할 수 없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루키는 40년간 묻어둔 미완성 작품을 꺼내 장편으로 재탄생시켰다. 청년 하루키가 시작한 작품을 노년 하루키가 완성한 셈이다. 작품을 손보는 데는 3년이 꼬박 걸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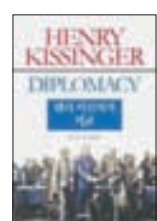
30대에 시작한 소설을 일흔이 넘어 완성한 하루키는 후련한 마음을 감추지 않았다. 그는 책의 작가 후기에서 “작품을 새로운 형태로 다듬어 쓸 수 있어서(혹은 완성할 수 있어서) 솔직히

마음이 무척 편안해졌다”며 “나에게 이 작품은 출근, 목에 걸린 생선 가시처럼 불편한 존재였으므로. 그것은 역시 나에게(나라는 작가 그리고 나라라는 인간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생선 가시였다. 사십 년 만에 새로 고쳐 쓰며, 한 번 더 ‘그 도시’에 되돌아가 보고 그 사실을 새삼 통감했다”고 했다.

일본에서 현재까지 약 40만부가 팔렸고, 오리온차트가 집계한 올해 상반기 일본 서적 판매 순위에서 1위에 올랐다. 한국에서도 이번 주 출간과 함께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했다. 예스24 9월 1주차 종합 베스트셀러에 따르면 ‘도시와 그 불확실한 벽’은 예약판매 기간을 시작으로 2주 연속 1위를 유지했다. 예약판매가 흥행하며 출간 전 3쇄를 찍었고 현재 13만부를 제작했다.

홍지유 기자

## 보편적 가치와 국익 그 결합에 성과 달려



헨리 키신저의 외교  
헨리 키신저 지음  
김성훈 옮김  
김앤김북스

미국 현실주의 외교 거장 키신저의 1994년 저서가 30년 만에 한국어판으로 나왔다. 옮긴이는 현직 외교관인 김성훈 주유엔한국대표부 참사관이다.

이 책은 30년 전쟁 이후의 베스트팔렌 체제부터 나폴레옹전쟁 이후 빈 체제, 독일 통일 후 비스마르크 체제, 1·2차 대전 후 베르사유 체제와 냉전 체제, 그리고 탈냉전 질서까지 강대국의 외교정책을 미국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미국은 ‘월슨주의’를 기반으로 2차 대전 이후 패권국에 올라섰지만 도덕적 가치 이상으로 세력 균형을 추구하기도 했다. 그간 미국 지도자들은 대체로 월슨주의자처럼 말하고 현실주의자처럼 행동한 단 지적을 받았다. 키신저는 “20세기에 어떤 나라든 미국만큼 국제관계에 결정적으로 그리고 동시에 상반되는 태도를 보이면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어떤 사회도 다른 나라의 국내 문제에 개입하면 안 된다”고 미국보다 더 단호하게 고집하지 않았고, 동시에 자신의 가치가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하다고 열성적으로 주장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한다. 옮긴이는 “미국에는 자신이 갖고 있는 가치가 보편적이어서 전 세계에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과 이런 가치의 수호를 위해 개입하지 않고 스스로 모범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 있다”고 역주에 풀이했다.

국제관계를 아우르며 저자는 ‘월슨주의’와 국익을 우선하는 ‘현실정치’의 결합을 강조한다. “월슨주의적 동기와 현실정치적 동기가 불일치할 때 미국 외교는 곤경에 처했고 양자가 일치할 때는 실패하는 일이 없었다”면서다. 민주주의 등 보편적 가치에 기반을 둔 국제주의와 세력 균형이 조화를 이룰 때 안정적 국제 질서가 유지될 수 있다

미국 외교에 대한 그의 제언은 오늘 날도 유효하다. 그는 “미국이 자신의 힘이 미칠 수 있는 범위를 착각함으로써 미국의 위대함을 위태롭게 해선 안 된다”며 “한계”를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미국의 세계적인 리더십은 미국이 지닌 힘과 가치에서 비롯되지만 그것은 미국이 자신의 의지를 무제한으로 강요할 수 있는 것이나 행동하는 특권을 포함하지는 않는다”는 말과 함께다.

박현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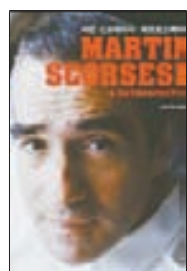
### 책꽂이



**마약 하는 마음, 마약 파는 사회** (양성관 지음, 히포크라테스)=부제 ‘일상을 파고 뜯은 마약의 모든 것’. 저자는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15년 일하며 다양한 환자를 접해왔다. 진료 경험을 포함해 여러 자료와 통계 수치 등을 바탕으로 마약의 종류별 특징과 실상, 그 생산·유통의 역사와 각국의 정책적 대응, 한국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전한다.



**위험, 사회, 미디어** (김용찬·김진희·김에란 지음, 컬처북)=재난과 범죄를 비롯해 현대 사회가 위험을 어떻게 인식하고 소통하는 지 등을 미디어·커뮤니케이션 연구의 관점에서 다뤘다. 공동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란 점에서 소통 능력의 역할, 연대를 높이고 적대를 낮추는 소통 전략, 뉴스 미디어와 소셜 미디어의 역할과 문제 등도 초점이다.



**마틴 스코세이지: 레트로스펙티브** (툼 손 지음, 김경진 옮김, 그책)=젊은 날의 스코세이지는 자기 영화가 아카데미 상에 적합하지 않다는 걸 알고 “덕분에 정말로 만들고 싶은 영화를 만들 수 있는 자유를 얻었다”고 한다. 현재까지 25편에 달하는 그의 모든 영화에 대해 각종 인터뷰 등을 바탕으로 평론가인 저자의 글과 큼직한 사진들을 실었다.



**펜타닐** (벤 웨스트호프 지음, 장정문 옮김, 소우주)=암 환자의 통증 완화에 사용되어 ‘기적의 진통제’로 불린 펜타닐은 마약으로 불법 거래되면서 미국에서 매년 7만명 넘는 목숨을 앗아간다. 탐사전문기자인 저자가 중국 내 관련 시설, 멕시코 카르텔의 개입, 다크웹을 통한 거래 등을 추적하며 국제적 개입이 절실한 사회적 문제임을 드러낸다.

① 위싱턴 중앙일보

# 직원 모집

워싱턴 중앙일보에서는 진취적인 마인드로 성실히 근무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 **모집 분야: 광고/편집 디자인 0명**  
일러스트레이터, 인디디자인, 포토샵, 프리미어
- **자격: 신입 및 경력 (풀/파트 타임)**  
취업에 결격사유가 없으신분
- **제출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이력서: KC2018@GMAIL.COM**

“최고”  
모두가 최고라고 말합니다.

이제 주택 융자는 그린웨이 홈론 **배준원** 융자에 맡겨 주세요!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길을 갑니다”  
이자율이 높다구요? 그럴수록 비교해보세요.  
가장 많은 이들의 선택, 직접 경험해 보세요!

[WWW.JUNBAEMORTGAGE.COM](http://WWW.JUNBAEMORTGAGE.COM)

**배준원** (Jun W. Bae)  
Vice President / MBA / Sr. Mortgage Banker

**703.868.7147**  
Jun@gwhomelending.com  
(NMLS# 178471)

센터빌 오피스 **토요일도** 오픈합니다.  
(토요일 오전 10시~1시 무료상담)

13890 Braddock Road, Suite 207, Centreville, VA 20121  
(센터빌 하이마트 건너편 위치)

GREENWAY HOME LOANS  
VA, MD, DC, NC, TX, PA, SC, FL

Greenway Home Loans, Inc. is licensed by the District of Columbia Government, DBS, Maryland State DLR, Virginia State Corporation, North Carolina Commissioner of Banks, Texas Department of Savings and Mortgage Lending, Pennsylvania Department of Banking & Securities, Florida Bureau of Regulatory Review - Finance, South Carolina 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 License Numbers: DC MLB2501270; MD 2501870; NC L-278065; VA MC-7782; TX 2501870; PA 106823; FL ML25255; SC 2501870 Greenway Home Loans Inc. NMLS# 2501870 [www.nmlsconsumeraccess.org](http://www.nmlsconsumeraccess.org)

# 젊어지는 올림픽...브레이킹·스케이트보딩 등 놀이로 메달 경쟁

젊음과 생동감, 에너지와 예술이 어우러진 경쟁. 파리 올림픽에선 스포츠(sports)라기보다는 게임(game)에 가까운 종목들이 새로운 재미를 준다.

1896년 제1회 아테네 올림픽에선 9개 종목(레슬링·사격·사이클·수영·역도·육상·체조·테니스·펜싱)이 열렸다. 오랜 전통을 지녔고, 전쟁과 사냥에서 발달한 종목들이 대다수였다.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대중의 취향은 바뀌었다. 올림픽에 대한 관심도와 열기가 낮아지자,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빠르고 역동적인 종목들을 품에 안았다.

이번 대회에서 처음 정식 종목이 된 브레이킹이 대표적이다. 과거 '비보잉(b-boying)'이라 불리던 브레이킹은 70년대 초반 미국 뉴욕에서 발전한 힙합문화의 한 장르였다. 비트에 맞춰 번갈아 경연을 펼친 뒤 승패를 가리는 '베틀'을 벌였는데 스포츠로 발전했

다. 문화의 나라 프랑스에서도 각광받고 있어, 개최국 자격으로 브레이킹을 넣었다.

이번 대회는 개인전만 열리며 1대1로 60초씩 번갈아 무작위 음악에 맞춰 춤을 춘다. 기술성·다양성·독창성·수행력·음악성을 평가해 승자를 가린다. 남녀 16명의 선수가 조별리그를 거쳐 토너먼트를 치른다.

브레이킹 강국인 한국은 베테랑 김홍열(40·활동명 흥텐·사진)이 나선다. 김홍열은 세계 최고 권위인 레드볼 비씨원 파이널에서 3차례(2006·2013·2023년) 우승했다. 2020 도쿄 올림픽에서 처음 등장한 스포츠를 라이밍은 위험과 극한을 즐기는 대표적인 익스트림 스포츠다. 일대일로 인공암벽을 빠르게 올라가는 스피드, 줄을 매달지 않고 퍼즐처럼 설치된 홀드

스포츠보다 게임 가까운 종목 늘어 '춤 승부' 브레이킹, 독창성 평가 3X3 농구는 빠른 진행에 박진감



김홍열

를 잡고 코스를 통과하는 볼더링, 6분 안에 15m 벽을 누가 더 높이 올라가는지 겨루는 리드 3종목이 펼쳐진다.

도쿄에선 남녀 금메달 1개씩이 걸려 세 종목 점수를 합산해 순위를 매겼

다. 이번엔 스피드와 볼더링/리드, 2개로 늘어났다. 한국 대표 이도현(21)과 서채현(20)은 2세 선수란 공통점이 있다. 이도현의 아버지는 도쿄 올림픽 대표팀을 이끈 이창현 전 감독이고, 서채현의 부친은 파리 올림픽 사령탑인 서종국 감독이다. 도쿄에서 세 걸음이 모자라 메달을 놓친 서채현은 스피드가 분리돼 메달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핑도 도쿄에 이어 다시 채택됐다. 서핑은 파리에서 1만5800km 떨어진 태평양의 타히티에서 열린다. 올림픽 역사상 개최지에서 가장 먼 곳이다. 프랑스령인 타히티의 테아푸후 해안은 서핑의 발상지로 알려져 있다.

스케이트보딩은 서핑과 조상이 같다. 파도를 탈 수 없는 계절에 캘리포니아의 서퍼들이 바퀴를 단 보드를 탔다. 80년대 자유와 반항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액스 게임으로 꼽힌다. 몸이 가벼

워야 유리해 10대 선수들이 많이 출전한다. 언덕이나 꼭면으로 이뤄진 코스를 따라 공중에서 트릭(기술)을 선보이는 파크와 도시와 유사하게 설치된 계단·핸드레일 등 장애물 코스에서 경기를 하는 스트리트, 2종목이 열린다.

스케이트보딩은 파리 도심 한복판인 콩코르드 광장에서 열린다. 파리 앙투아네트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곳이다. 18세기 프랑스혁명의 중심에서 자유로움을 만끽하는 경기가 펼쳐진다. 콩코르드 광장에선 브레이킹과 3X3 농구, 사이클 BMX 프리스타일도 열린다. '길거리 농구'로 불렸던 3X3 농구는 빠르고 박진감이 넘친다. BMX 프리스타일은 1분 동안 벽과 점프대 같은 장애물을 활용해 다양한 공중 동작을 선보이는 경기다. 큰 음악을 틀고, 선수와 관중이 함께 호흡한다.

파라=김효경 기자

# 르브론·조코비치...전설들의 '라스트 댄스'

## 슈퍼스타들의 마지막 올림픽

각자 종목에서 세계 무대를 호령한 'GOAT(Greatest Of All Time·역대 최고)'들이 파리 올림픽에서 라스트 댄스를 펼친다. 미국프로농구(NBA)의 '킹' 르브론 제임스(39·미국), '체조 여제' 시몬 바일스(27·미국), 그리고 남자 테니스의 '양대 산맥'으로 불리는 라파엘 나달(38·스페인)과 노박 조코비치(37·세르비아)다.

1984년생 제임스는 불혹이 코앞이지만 여전히 최고의 별로 꼽힌다. 2023~24시즌 도중인 지난 3월 사상 최초로 정규리그 4만 득점(현재 4만 474점)을 돌파했다. 통산 20회 올스타에 선정됐고 우승 반지도 4개나 된다. NBA를 넘어 미국 스포츠의 아이콘으로 꼽힌다.

제임스는 2004년 아테네(동), 2008년 베이징(금), 2012년 런던(금) 대회에 출전했다. 이번이 통산 네 번째이자 12

년 만에 다시 밟는 올림픽이다. 센강에서 열린 개회식에서는 선수 투표로 뽑은 미국 선수단 기수로 나섰다. 제임스는 마지막 올림픽에서 세 번째 금메달을 따내겠다는 각오다. 제임스는 "스포츠는 우리 모두를 하나로 묶는 힘이 있다. 이 중요한 순간에 참여하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강조했다.

바일스는 19세에 출전한 2016 리우 올림픽에서 단체전·개인종합·도마·마루운동 4관왕에 올랐다. 세계선수권에선 금메달 23개를 따내며 레전드 반열에 올랐다. 하지만 몇 해 전부터 심한 슬럼프를 겪었다. 2021년 열린 도쿄 올림픽에서도 경기 중 극심한 스트레스로 멘탈이 무너지면서 기권하기도 했다. 결국 '노골드'로 대회를 마감했다.

바일스는 파리에서 자존심 회복을 노린다. 1997년생이지만 체조 선수로는 황혼기라 이번이 고별전이다. 이미 1950년대 이후 미국 여자 체조 올림픽 국가대표 최고령 기록을 세웠다. 바일

스는 여자 기계체조에 걸린 6개 금메달 중 4개 이상 획득을 노리고 있다.

테니스에선 조코비치와 나달이 출전한다. 메이저 대회에서 22승(역대 2위)을 거둔 나달은 올림픽에서도 큰 성과를 남겼다. 2008 베이징 단식 금, 2016 리우 복식 금을 따냈다. 나달은 부상으로 지난해 투어 활동을 거의 하지 못

했고 결국 올해를 끝으로 은퇴를 예고했다. 그나마 올림픽을 앞두고 반등에 성공했다. 지난 22일 노르디아 오픈 단

식에서 준우승하며 부활을 알렸다. 나달이 투어 대회 결승에 진출한 건 2022년 6월 프랑스오픈 우승 이후 2년 1개월 만이다.

조코비치는 나달보다 메이저 대회에서 두 번 더 우승한 역대 최강자다. 세계랭킹도 2위로 여전히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 하지만 올림픽에선 유독 약

했다. 2008 베이징 동이 유일한 메달이다. 마지막 올림픽에서 금메달로 유종의미를 거두려 한다.

조코비치와 나달은 그동안 통산 59번 맞붙어 30승 29패로 조코비치가 한 번 더 이겼다. 이번 올림픽 테니스 코트인 롤랑가로스 경기장은 프랑스오픈이 열리는 곳이다. 프랑스오픈을 14번이나 제패한 나달엔 집 같이 편한 경기장이다. 나달은 클레이 코트에서 유독 강해 '휴신'이란 별명을 갖고 있다. 롤랑가로스에서 나달은 조코비치에 8승 2패로 압도적인 우세를 보였다. 대전 추첨 결과 둘은 1회전을 통과할 경우 2회전에서 맞붙게 된다.

나달은 복식에도 나선다. 올해 프랑스오픈과 윈블던을 휩쓴 카를로스 알카라스(21)와 조를 이룬다.

남자 마라톤 3연패를 노리는 엘리우드 김초계(40·케냐)는 마지막으로 국가를 위해 달린다. 홈 매트에서 금메달을 노리는 프랑스 유도 국가대표 테디 리네르(35), 6번째 올림픽에 나서는 여자 축구 마르타(38·브라질)도 '라스트 댄스'를 춘다.

피주영 기자



1



2



3

파리에서 마지막 올림픽을 맞는 전설들. 1 농구 르브론 제임스. 2 테니스 노박 조코비치. 3 체조 시몬 바일스. [중앙포토]

① 워싱턴 중앙일보 **좋은아침! 좋은신문! 중앙일보**

<b>DC 창고</b> <b>SOLD</b> \$ 2.5M DC, NoMa Metro 상권	<b>DC 사평센터</b> <b>SOLD</b> \$ 2.4M DC, Capital Hill 지역	<b>DC 단독건물</b> <b>SOLD</b> \$ 1.5M Benning Rd. 개발지역	<b>DC Mixed-Use</b> <b>SOLD</b> \$ 1.6M Capital Hill 지역	<b>DC 사평센터</b> <b>SOLD</b> \$ 4.5M Popeyes, 연인권 \$32만	<b>DC NW 아파트</b> <b>SOLD</b> \$ 1.5M Metro 상권, 5 유닛
<b>DC Georgetown</b> <b>SOLD</b> \$ 930K Retail / Residential	<b>DC H Street</b> <b>LEASED</b> 단독건물 Union Station	<b>DC Warehouse</b> <b>SOLD</b> \$ 6.8M 67,000sf, Industrial	<b>DC Warehouse</b> <b>SOLD</b> \$ 5.8M 56,000sf, 창고 6에이커	<b>DC Warehouse</b> <b>SOLD</b> \$ 3.6M 냉장 / 냉동고, 창고	<b>for SALE</b> \$ 1.8M DC 3 유닛 주상복합

프랜차이즈 | 카워시 | 코인런드리 | 리커 | 그로서리

**미셸신** **케빈신**

**703.395.3123**

**GTAX Consulting Group**

703-844-0355 / www.gtax1.com  
4000 Legato Rd. Ste. 1100, Fairfax, VA 22033

**IRS 감사 세무상담 전문**

“ 세금 보고, 절세 전략, 세금 문제 해결, 각종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성공을 돕습니다. 저희는 빠르고 저렴하며 고객이 만족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개인 세금 보고**

- 50개 주 개인 세금 보고 / 세무 상담
- 해외 자산 및 수입 보고
- 자녀 학자금 신청 및 상담
- 세무 감사 대행 / 세금 탕감 신청

**사업체 세금 보고**

- 법인체, 사업체 설립
- 비영리 단체 설립
- 사업체 세금 보고 및 세무 업무
- 정부 정리 및 직원 PAYROLL

**재정 설계 및 노후 계획**

- 은퇴 설계 / 개인 연금 Annuity, IRA
- 생명 보험 / 장기 요양 보험
- 직원 복지 / SEP, 401K
- 오바마케어 / 메디케어

**정승욱**  
연방세무사

**김영선**  
연방세무사

# 딱 한번 선 넘은 김민기... “그래도 내 노래는 내가 켈 잘 불러”

1996년 가을 즈음으로 기억한다. 이른바 신세대 문화의 메카로 떠오른 홍익대에서 처음으로 개설된 대중음악 교양 강의를 맡았는데, 70년대 청년문화를 다루는 시간에 김민기의 음악사적 의미에 대해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었다. 그런데 300명이 넘는 학부생들의 반응이 영 이상했다. 나는 학생들이 당연히 김민기라는 사람이 누군지 알 것이라고 전제하고 ‘켈’을 풀고 있는데 수강생들은 ‘이 사람이 누군데 이렇게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인가’ 하는 표정들이었다. 나는 강의를 잠시 멈추고 물었다. “너희들, 김민기가 누군지 몰라?”

순간, 대형강의동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을 깨고 중간 열에 앉아 있던 장발의 남학생이 수줍게 손을 들면서 말했다.

“혹시, 드러머 김민기 말씀인가요?” 이 친구는 당시 꽤 많은 마니아들을 거느리고 있었던 헤비 메탈 밴드 시나위의 드러머 김민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나는 속으로 너무 놀랐다. 이들에게는 ‘아침이슬’이라는 고리를 말해주지 않으면 김민기가 아예 누군지도 모르는구나, 이제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구나, 하는 생각이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나와 나의 세대에게는 너무나 당연했던 이름이 이 새로운 세대에게는 낯설기 그지없는 이름이 되고 만 것이다. 그것도 90년대 한국 대중문화의 한복판이라는 흥대 거리에서 말이다.

김민기는 내내 어둠 속에서 있었다. 그가 활동을 시작한 제3공화국 시절에도, 그가 탄압받고 활동 자체를 금지당한 제4공화국 시대에도, 여전히 당국의 요시찰 대상으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한 제5공화국 시대에도, 그리고 마침내 시작된 제6공화국 시대에도 여전히.

음악평론가로 살면서 좋았던 딱 한 가지가 있다면 내가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뮤지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점이다. 물론 차라리 아니 만났으면 좋았던 경우도 있지만, LP 재킷에서나 만났던 우상을 실제로 대면했을 때의 감정은 한 줄로 설명하기 어려운 벅찬 감동이다. 그 중에서 나의 10대와 20대를 가로지르며 그저 애호하는 대상이 아닌 존경스러운 인물을 만나는 것은 숨막히는 경험이다.

김민기와의 첫 조우는 음악평론가로서가 아니라 ‘노래를 찾는 사람들’



21일 별세한 김민기. 역사의 변곡점마다 영원히 불리울 ‘아침이슬’의 작곡가이자 가수, 대학로 소극장 뮤지컬 시대를 연 ‘지하철1호선’의 연출가, 생태주의적 생협 ‘한살림’을 만든 문화운동가였다. [중앙포토]

공연 연출자로서 이루어졌다. ‘끝나지 않는 노래’라는 제목의, 갑오농민전쟁 때 산물인 ‘새야 새야’부터 80년대까지 한국 근대사의 노래들을 서사적으로 재구성한 공연이었는데, 이 공연의 초연이 1992년 당시 막 문을 연 대학로 소극장 학전 무대에서 펼쳐지게 된 것이다.

두어달 간의 장기 공연은 대성공이었다. 그러나 극장장인 김민기와는 대면할 기회가 없었고 마지막 공연날 거나한 뒤풀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내어린 날의 영웅을 볼 수 있었다. 나는 그저 꾸벅 인사만 건넸을 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수줍고 겸손했으며 한참 아래 후배였던 우리에게도 시종 일관 말을 아꼈다. 그에게는 어떤 허식도, 이미 ‘역사적’이라는 형용어가 부여된 이들에게서 볼 수 있는 강력한 후광 효과 같은 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는 고요한 거인이었다.

그리고 몇 년 뒤 나는 그를 공식적으로 인터뷰할 수 있었다. 그때나 그 이후에나 언제나 ‘뒷길’을 자처하던 그는 인터뷰를 거의 거절했는데, 나에게 그런 귀중한 기회를 준 것에 대해 지금도 감사한 마음이다. 초저녁부터 시작된 인터뷰는 술과 함께 자정이 넘도록 이어졌다. 이 인터뷰를 기점으로 나는 그냥 그와 소주를 대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

엄청난 애주가, 만취해도 흔들림 없어 술을 마실 때야말로 그의 진면목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난다. 주량이 엄청난 애주가임에도 소리가 높아지거나 흥분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베이스 바리

톤인 묵직한 그의 음성이 조곤조곤 펼쳐내는 이야기들은 그대로 역사적 야화이거나 미학 에세이였다. (그 수많은 이야기들을 기록해 두지 못한 내가 야속할 뿐이다.) 가장 인상적인 건 아무리 만취해도 자신에 대한 나르시시즘이 없다는 것이다. 철저하게 객관적 거리를 두고 자신을 통제한다. 딱 한번 그 선을 넘은 거라면 어느날 대학로 뒷골목의 선술집에서 이렇게 호기를 부렸을 때였다. “야 있잖나? 그래도 내 노래는 내가 제일 잘 불러.”

삼십년 넘은 음악평론가 생활 동안 딱 하나의 기억만을 쟁길 수 있다면 나는 주저없이 1997년 겨울날의 그 위대한 이벤트(!)를 꼽을 것이다. 아이돌 문화의 열풍 속에서 잠시 침묵했던 가왕 조용필이 16집으로 화려하게 왕좌로 컴백했을 때, 나는 김민기와 술을 마시다가 문득 물었다. 조용필에 대한 어떻게 생각하냐고. (조용필과 김민기는 1950년생과 1951년생으로 거의 동년배다.) 그는 별로 생각지도 않고 바로 응답했다.

“너 내가 조용필은 별로 안 좋아한다고 말할 줄 알았지? 아니야. 지하 형(시인 김지하)이 서대문 구치소에 있을 때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조용필의 노래를 듣고 감동했다고 했어. 나도 그래.”

사실 난 적잖이 놀랐다. 음지의 영웅이 지상의 가왕을 높이 평가하다니. 그리고 며칠 뒤 나는 방배동에서 조용필과 술을 마시다가 또 불쑥 물었다.

“형님, 형님은 김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왕의 응답도 바로 튀어나왔다.

“김민기? 난 존경해.” 가왕은 웅술수설하지 않고 언제나 단문으로 정확히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다. 뭐 좋아할 순 있는데 때로 너무나 뜸없는 사람을 존경한다니. “존...경이요? 왜요?” “난 그 길이 어떤 길이든 일관되게 자신의 길을 가는 사람은 존경해야 된다고 생각해.”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응답이 가왕의 입에서 나왔다. 이 두 사람은 그 때까지 살아오면서 단 한 순간도 스치지도 못한 사이이다. 나는 바로 그 자리에서 두 분의 만남을 제안했고 가왕은 바로 고개를 끄덕였다.

줄지에 두 정상의 회담(?)을 주선하게 된 나는 생각을 많이 해야 했다. 만나는 장소는 어디서? 술값은 누가 내지? 등등. 그래도 한 살 위인 가왕의 동네에서 보기로 하고 술값은 주최자가 내는 것으로 합의.

약속날 나는 미리 대학로로 가서 김민기 형을 모시고 택시를 탔다. 반포대교를 넘어 방배동까지 가는 동안 김민기는 거의 말이 없었고 덩달아 나도 긴장이 되기 시작했다. 그러다 불쑥 느닷없는 말.

“현아, 오늘 술값은 내가 내는 거다.”

하마터면 실소를 흘릴 뻔했다.

“술값은 형이 왜 내요? 그냥 가만 보세요.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

그리고 동네 횡집에서 시작된 술자리. 과묵한 두 거인은 안부 인사 말고는 묵묵히 소주잔을 비운다. 나까지 세 사람이 마신 술이 스무 병이 넘도록, 무슨 고승들의 선문답도 아닌데 조용한 방안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가왕의 노래 미동도 없이 눈 감고 들어 그렇게 우린 겨울 한밤의 골목으로 나왔다. 그 이후의 계획까진 나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이대로 헤어질까 하는데 조용필 형이 가게의 불빛을 발견하고는 저기서 2차를 하잔다. 그렇게 들어간 동네의 후미진 카페는 손님이 하나도 없었고, 가왕을 알아본 여주인은 방으로 우리를 안내하고 양주를 한 병 내왔다. 그리고 첫 잔을 건넬 뒤편 자리에서 일어난 가왕은 방구석에 놓여 있던 노래방 기기 앞으로 가더니 번호를 푹푹 누른다. 가왕은 술자리에서도 자신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라 당연히 자신의 노래를 부를 줄 알았다. 그런데 흘러나온 전주는 놀랍게도 ‘아침이슬’!

나는 취기가 오를대로 오른 상태에서 그저 멍하게 노래방 반주에 맞추어 가왕이 부르는 ‘아침이슬’을 들었다. 그것은 상상할 수조차 없는 환경과 같은 상황이다. 김민기는 미동도 없이 그저 눈을 감고 가만히 있었다.

물론 김민기의 답가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나중에 이 얘기를 듣고 당시 MBC 피디였던 주철환 형이 왜 자기를 그 역사적 현장에 부르지 않았냐고 질책했지만, 나는 그 전무후무할 영광을 남과 나눌 마음은 추호도 없었다. 당연히!

그리고 시간은 흘렀다. ‘아침이슬’이 세상에 나온 지 오십년이 되던 2021년, 나와 김장남 성공회대 교수, 그리고 박학기는 헌정음반을 만들기로 마음을 모았다. 그리고 김민기의 반응 또한 예상한 대로였다.

“뭘 또 그런 쓸데 없는 일을 벌이나? 그런 짓 좀 하지 마라.”

이제 익숙해져서 그냥 그러려니 한다.

“아 이견 형과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우린 ‘아침이슬’이라는 노래에 헌정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보세요.”

이렇게 빨리 가실 줄 그뻔 몰랐다. 그래서 살아계셨을 때 그 앨범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을 정말 다행으로 생각한다.

형님, 감사했습니다. 이젠 편히 쉬세요. 그리고 하늘에서는 가끔 노래도 좀 부르시고 그러세요.

강현 음악평론가

<p><b>주6일 프렌차이즈 \$320K</b> 페어팩스 버지니아</p>	<p><b>주6일 Deli \$370K</b> 몽고메리 메릴랜드</p>	<p><b>주6일 Deli \$180K</b> PG 메릴랜드</p>	<p><b>주6일 Deli \$250K</b> 페어팩스 버지니아</p>	<p>카워시   코인런드리   리커   그로서리</p> <p><b>703.395.3123</b></p>
--	---	---	---	---

**타이슨스 코너 DC Eye Clinic**

# 전안과

**23년 over 9300 백내장/녹내장 수술 over 12000 레이저 치료경력**

**진료과목**

백내장 레이저 수술 Cataract Laser Surgery	안구 건조증 치료 Dry Eyes Therapy
녹내장 레이저 치료&수술 Glaucomal Laser and Surgery	눈 당뇨병 레이저 & 주사 Diabetes Laser and Injection
노년기 황반변성 주사치료 Macular Degeneration Injection Th	안검하수(눈꺼풀 처짐 개선) Eyelid Surgery (Blepharoplasty)
정기적인 눈 검사 Routine Eye Exam	<b>※ 각종 보험 적용 됩니다</b>

**원장/ Benjamin Chun, MD**

- Brown University BA Degree
- Brown Dartmouth Medical School MD Degree
- Tripler Army Medical Center Internship
- Madigan Army Medical Center Residency
- Madigan Research Ophthalmology - Participate
- Harvard Cardiovascular Research Program - Participated
- American Board of Ophthalmology Certified
- Voted 2020 Best Eye Dr from Top Doctors Pittsburgh Magazine
- Korean Daily Medical Columnist

Vienna T: 703 853 1966  
8381 Old Courthouse Rd Suite #345  
Vienna, VA 22182  
[dc-eyeclinic.com](http://dc-eyeclinic.com)

White Oak T: 412 681 8505  
1985 Lincoln Way Suite #15  
White Oak, PA 15131

Shady side T: 412 681 8505  
5438 Centre Avenue  
Pittsburgh, PA 15232

South side T: 412 681 8505  
144 South 20th Street  
Pittsburgh, PA 15232

한국말로 진료 받으세요!!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다.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왜 사이코패스 살인마 같은 사람들을 사형에 처하지 않는가 하는 이야기가 나오곤 한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근에 사회적 충격을 준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마로는 정유정이 꼽힌다. 정유정(1999년생)은 2023년 5월에 과외 교사 아르바이트 중계 앱에 가입한 뒤 중학교 3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인 척하며 영어 과외 교사를 찾는다는 글을 올렸다. 한 20대 여성이 거리가 멀다고 거절하자 정유정은 스스로 교복을 입고 흥기를 채 그 여성 집으로 찾아가 그 여성의 목과 가슴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체를 토막 내어 여행용 캐리어에 넣고 야산에 버렸다.

사이코패스라는 말이 우리 사회에 널리 알려지게 된 계기는 유영철 사건이다. 유영철(1970년생)은 2003년부터 2004년까지 부유층 노인이나 출장 마사지사 여성 등 도합 20명을 살해한 인물이다. 유영철은 자신의 뒷모습이 CCTV에 찍혀서 수배 전단에 오르자 출장마사지사들이나 전화방 도우미들을 집으로 부르던 다음 여성들의 머리를 해머로 때려죽이고는 시신을 토막 내서 암매장하기 시작했다(영화 '추격자'에서 배우 하정우가 흰 팬티를 입고 이 역할을 섬뜩하게 해냈다). 그의 잔인하고 끔찍한 수법과 기괴한 행태는 지면에 옮기기만 망설여질 정도다. 그가 반젤리스의 'Conquest of Paradise'란 음악을 들으며 피해자들의 시신을 훼손했다는 사실쯤은 극히 점잖은 축에 든다.

프로파일러 사이에서 역대 가장 지독한 사이코패스로 꼽히는 인물은 1969년생 정남규다. 그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14명을 살해하고 19명에게 중상을 입혔다. 그는 수사와 재판 중에도 "담배는 끊어도 살인은 못 끊겠다" "더이상 살인을 못 할까봐 조바심이 난다" "절도, 강간, 살인 중에서 살인이 가장 짜릿하다" "마음속에 항상 웅웅거리는 무엇인가가 저 밑바닥에서부터 치밀어오르고 있는데 오로지 살인을 했을 때만 고요하게 가라앉는다"고 말했다. 정남규는 2007년 4월 사형선고를 받고 수감생활을 하던 중 2009년 11월 구치소 거실에서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죄책감에 따른 행동이라기보다 더이상 살인을 못하게 되자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을 상대로 살인을 한 것이라는 프로파일러의 분석과

# 잔혹한 살인 즐기듯 저지른 악마 교화냐 사형집행이나 딜레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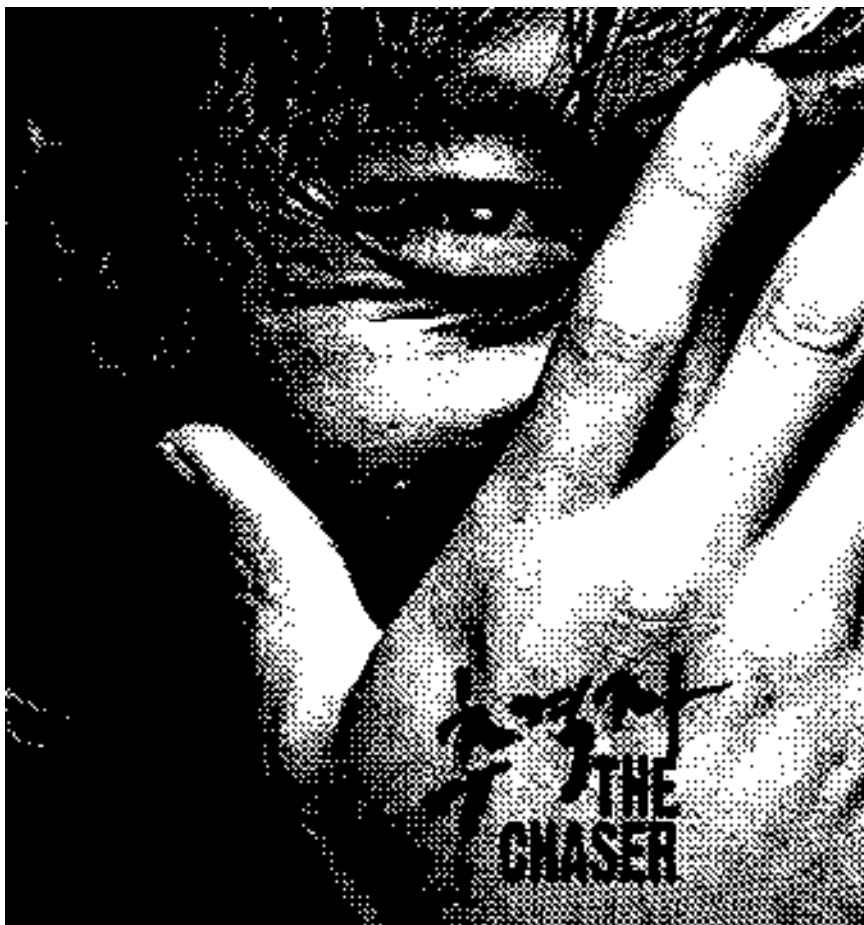
정유정·유영철·강호순·정남규... 무고한 사람들 죄의식 없이 살해 교화 가능성 원천적으로 안 보여

1996·2000년 잇단 합헌 결정에도 목숨 뺏는 처벌 안 된다는 목청 커  
1998년 이래 59명 사형 집행 안 해 지나왔다.

한국 등 28개국 사형제 있지만 집행 안 해 한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인 사람은 '우 순경 살인사건'의 주인공 우범곤(1955년생)이다. 1982년 4월 낮잠을 자던 파출소 순경 우범곤은 동거녀가 그의 몸에 붙은 파리를 잡으려다 잠을 깨우는 바람에 화가 나 술을 마신 뒤 동거녀와 그녀의 가족을 폭행한 다음, 예비군 무기고에 있던 M2 카빈총 2자루와 수류탄 8개를 탈취해서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눈에 띄는 마을 주민들 30여명을 무차별 살해했다. 그에게 목숨을 잃은 사람은 62명, 사건 당시에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을 한자리에서 죽인 것으로 기네스북까지 올랐다. 그는 다음 날 새벽 5시 반경 어느 민가에 들어가 잠자던 일가족 5명을 깨운 뒤 수류탄 2발을 터뜨렸다가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자신도 함께 죽었다.

변호사가 되고 보니, 이런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마를 변호하게 되면 어떤 심정일까 상상해보게 된다. 우리 사회에서는 사회적 공분을 야기하는 범죄자의 변호인에 대해서도 악인을 변호한다고 비판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나쁜 범죄자라도 자신의 범행 이상으로 처벌받아서 안 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나조차도 어지간하면 유영철, 정남규, 정유정 같은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마를 변호하고 싶지는 않은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마들도 교화가 가능할까. 사람의 일에 100퍼센트는 없는 것이라지만, 누구도 이런 사이코패스가 교화될 것이라고 믿고 자신



사이코패스 유영철 연쇄살인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 '추격자' 포스터. 배우 하정우가 연쇄살인범 역을 연기했다. [중앙포토]

의 이웃으로 기꺼이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다. 여기서 질문이 나온다. 교도소는 범죄자를 교화해서 사회로 돌려보내는 곳인데, 교화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없다면 교화가 무의미하므로 사형에 처해야 하는 것 아닐까.

현실의 제도 중에서 사형 제도만큼 찬반이 극단적으로 갈리는 제도가 드물다.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멕시코, 콜롬비아 등 2018년 기준 106개국이 사형제를 폐지했다. 반면 미국, 일본, 중국, 대만, 태국, 예멘 등 57개국은 사형제를 유지하면서 집행도 하고 있다. 우리나라, 러시아, 스리랑카, 미얀마 등 28개국은 사형제는 존재하지만 집행은 하지 않는 나라로 분류되어 있다.

국제엠네스티 등 인권단체, 종교단체들은 우리 정부에 사형제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사형제를 강력하게 반대하며 사형제 국가와의 교류를 제한한다. 사형반대론의 주된 논거는 인간의 생명은 다른 어떠한 가치보다 중요하므로 어떠한 이유로

도 사람을 죽이는 것이 정당화되지 않으며, 국가는 중범죄인이라도 끝까지 교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에 오관 가능성이 있거나 사형제가 범죄를 막는 데 효과가 없다는 점도 흔히 언급되는 근거다.

영화 중에서도 사형제에 반대하는 뉘앙스를 풍기는 경우가 다수다. 영화 '데드 맨 워킹(1996)'은 사형집행 과정을 가장 실감나게 보여주는 영화다. '데드 맨 워킹'은 사형수가 집행장으로 갈 때 주저하는 걸음걸이를 가리키는 말이다. 잔혹한 강간살인범이자 인종차별주의자이고 나치를 신봉하며 반성하지 않는 매수가 사형을 앞두고 인간적으로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면서, 영화는 아무리 악독한 죄인이라도 국가가 사형에 처하는 것이 옳은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사형을 다룬 우리나라 영화로는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2006)'이 있다. 불우하게 컸고, 그 불우함으로 인해 범죄자와 어울릴 기회가 생겼고, 다른 공범의 죄까지 짊어진 채 사형장에서 생을 마감

하는 주인공 윤수의 모습을 보면 (게다가 그 주인공이 강동원이라면) 많은 사람이 사형에 찬성하기 어려운 마음이 들 것이다.

그러나 사형찬성론의 논거 또한 지면이 부족할 정도로 들 수 있다. 물론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보다 가치 있는 것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토록 가치 있는 생명을 무참히 죽인 사람은 그만큼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정의의 기본적인 요청이다. 정의의 관점에서는 아무리 긴 종신형도 사형을 대체할 수 없는 지점이 있다. 지금의 사형은 과거처럼 사지를 찢어 죽이거나 불에 태워서 죽이는 방식처럼 고통을 극대화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형을 두고 과거의 신체형과 같이 야만적이라고 치부할 수는 없다. 유럽 국가들이 사형제를 폐지한 것은 기독교 전통의 영향을 받은 것인데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계속 줄어 들고 있다.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범까지도 끝까지 교화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것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국가에게 지나치게 비현실적인 이상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사형제가 범죄 억제에 효과가 있다는 통계도 있다.

## 법무장관 사형집행 명령은 재량 아닌 의무

대한민국 법률상 사형은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하는데, 장관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명령해야 하고, 명령이 있으면 5일 이내에 집행해야 한다. 재량이 아닌 의무이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도 1996년과 2000년에 사형제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그런데도 행정부가 이를 집행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정의와 삼권분립원리에 반하고, 유족에게 근거 없이 고통을 주는 것이며, 법과 재판의 권위를 전체적으로 손상시키며, 흉악범죄 억제력을 발휘할 기회를 놓치는 것이란 비판도 만만치 않다.

사형제에 대한 찬반이 맞서는 가운데, 사형수 중에서 유영철, 강호순과 같이 극악무도한 연쇄살인범만을 집행하자는 말도 나온다.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가지만 사형수 중에서 일부만 선별해서 집행하는 것은 그 근거를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 일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 이래 사형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재 59명의 사형수가 있다. 법과 현실의 딜레마, 법리와 정책의 괴리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정재민 변호사·작가

**리얼티 원 부동산**

3450 Ellicott Center Dr. Suite 107, Ellicott City, MD 21043 / O: 410-696-2268 / F: 866-531-7541

MONTGOMERY, HOWARD, ANNE ARUNDEL PRINCE GEORGE 카운티 전문

집을 예쁘게 꾸미는 것은 주택매매에 결정적인 도움이 됩니다.

Realtor **지니 최**  
301-318-4242  
Jinny19619@yahoo.com  
\*Multi-Million Dollar Producer

**추천 투머리스팅**    **집매매, 렌트 놓으실때**    **"집을 예쁘게 단장해 드립니다"**

(자재 인테리어 소품 구비)

<p><b>SOLD</b></p> <p><b>Bowie</b></p> <p>\$645,000 싱글홈, 방4, 화4, 차고2</p>	<p><b>UNDER CONTRACT</b></p> <p><b>Edgewater</b></p> <p>\$575,000 싱글홈, 방3, 화2, 0.45에이커</p>	<p><b>SOLD</b></p> <p><b>Rockville</b></p> <p>\$280,000 콘도</p>	<p><b>COMING SOON</b></p> <p><b>Perry Hall</b></p> <p>싱글홈, 방3, 화2</p>	<p><b>UNDER CONTRACT</b></p> <p><b>Elkridge</b></p> <p>\$559,000 타운홈, 방4, 화3, 차고2</p>
<p><b>UNDER CONTRACT</b></p> <p><b>Elkridge</b></p> <p>\$950,000 싱글홈, 방5, 화3.5, 차고2</p>	<p><b>UNDER CONTRACT</b></p> <p><b>Ellicott City</b></p> <p>55+ Luxury \$425,000 콘도, 방2, 화2, 1,438sf</p>	<p><b>UNDER CONTRACT</b></p> <p><b>Ellicott City</b></p> <p>\$475,000 타운홈, 방2, 화2.5, 차고1</p>	<p><b>COMING SOON</b></p> <p><b>Rockville</b></p> <p>싱글홈, 방5, 화2, 차고2</p>	<p><b>SOLD</b></p> <p><b>Cockeysville</b></p> <p>\$470,000 싱글홈, 방4, 화2.5</p>

《《《 렌트 매니지먼트 해 드립니다. 》》》》

정직, 신용, 친절로 도와드리겠습니다

Realtor **스테이시 양**  
443-668-0453  
stacy4989@gmail.com  
\*Multi-Million Dollar Producer

**RENT**

집 렌트하기 원하시는 분들!!!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p><b>RENTED</b></p> <p><b>Elkridge</b></p> <p>월 \$2,400 타운홈 방3, 화3</p>	<p><b>RENTED</b></p> <p><b>Sliver Spring</b></p> <p>월 \$3,500 타운홈</p>	<p><b>Germantown</b></p> <p>월 \$2,100 콘도 방2, 화2</p>	<p><b>Hanover</b></p> <p>월 \$2,650 타운홈 방3, 화3, 차고1</p>	<p><b>Germantown</b></p> <p>월 \$2,000 타운홈 방2, 화3 (지하실 제외)</p>	<p><b>Glen Burnie</b></p> <p>월 \$1,750 콘도 방2, 화1</p>
---	---	---	--	---	--

# 고객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World Bankcard Service가 새로운 혁신과 서비스로 찾아왔습니다.



**1 새로운 크래딧 카드 기계:**  
결제 중 끊김과 오랜 결제 시간 등의 불편을 해소합니다.  
신속하고 원활한 결제를 보장합니다.

**2 새로운 POS 시스템:**  
효율적이고 신속한 POS 시스템을 도입하여  
여러분의 사업을 한 단계 높여드립니다.  
간편한 운영으로 비즈니스 성과를 더욱 향상시킵니다.

**3 더 낮은 카드 수수료:**  
부담스러운 고물가 시대!  
사장님들을 위해 더 낮은 카드 수수료를 제공합니다.  
여러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World Bankcard Service와 함께라면 더욱 원활하고 효율적인 비즈니스 운영이 가능합니다.  
저희와 함께 성공을 이루어가십시오. 더 많은 정보 및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함께하는 비즈니스의 파트너가 되어드립니다.  
함께 성장해나가는 여정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EL. 703-225-5500, 1-800-927-5675 | FAX 703-225-5507  
10855 FAIRFAX BLVD 3<sup>rd</sup> FL., FAIRFAX, VA 22030  
World Bankcard Service

## 김진욱

### 척추신경전문의

**교통사고  
직장사고  
운동사고**

- 최신형 의료시설 /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취급

**703-691-3111**  
7023 Little River Tpke #409  
Annandale, VA 22003

## 직원모집

### 닥터오피스 리셉션니스트

구함

파트타임/플타임 가능

**703-256-3005**  
**703-830-0993**  
mercy4resume@gmail.com

## 회계사 사무실 구인

- 유경험자 우대
- Benefit 있음 (건강보험/보너스/유급휴가)
- 영주권 스폰서 가능 함
- 무경험자도 함께 성실히 열심히 함께 일하실 분

\* 이력서 보내실 곳 \*  
luvacct1986@gmail.com

## 정성웅보험

보험료를 확 줄일 수 있는

**경제적인 보험!**

내가 탄 거리만큼만 내는

**실속형 보험!**

-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사업보험 • 생명보험
- 화재보험

**703.825.2945**



# 카툰필레이 THE SIXTH SENSE **식스센스** 금주의 주제 직장



바른 정보 · 빠른 신문 중앙일보

## 무슨 신문 읽으세요?

Tel: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rpk., #310, Annandale, VA 22003

# L & 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오래되고 잦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 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 L&B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 AIR CLEANER AND HUMIDIFIER
- INDOOR AIR QUALITY PROBLEMS
- FURNACES & AIR HANDLERS
- NEW FURNACE INSTALLATION
- FURNACE REPAIR SERVICE
- AIR CONDITIONERS & HEAT PUMPS
- AC INSTALLATION
- AC REPAIR



##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큰 규모의 미국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못 믿으시겠죠?



### 덕트 클리닝

Air에 관한 모든 것! L&B Universal 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찌든 먼지와 세균  
 알러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Carrier, Lennox 전문딜러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HELPER, TECHNICIAN 구함

신속한 A/S·기술력과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http://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iversal](http://www.facebook.com/LandBUiversal)

7월  
구  
인  
광  
고

### 사업체 매매

이준식 부동산

- Seafood Carry Out
- Pickup Store(bowie) \$30,000
- Single House Rent \$3,200 (Catonsville).방4, 화3+1/2

문의  
**301-768-1240**

### 25년 용자 경력 제인 최 용자

\$비교해 보십시오!\$

매입용자/재용자  
최저이자율 보장  
용자비용 \$0 가능

현금인출 용자/2nd 용자  
긴급용자(차압 또는 급전),  
노 인컴 용자, 외국인 용자,  
상업용 용자 등  
모든 용자 프로그램 취급

703-244-3453 Mortgage4U LLC.  
Janec.loan@gmail.com  
VA 8200 Greensboro Drive, #900 Mclean, VA 22102  
MD 9211 Corporate Blvd., #200, Rockville, MD 20850

### 엘리콧시티 편한나라 척추신경 직원 모집

WE ARE HIRING

- ▶ 풀타임 & 파트타임
- ▶ 정규직원 베네핏 제공
- ▶ 이중언어 우대
- ▶ 무경험자 환영

◆ 이력서 보내실 곳 : carefreeland@gmail.com

### 뉴욕 광어낚시 동우회 회원 모집

마감 목요일 저녁 6시까지 접수 마감

주말 금요일 밤 Frederick(MD) 270, 80 교차로 E. EXXON GAS STATIONS에서 3명 이상 모여서 출발.

토요일 아침 뉴욕에 도착해서 Seo Queen VII Boats 7시 보트 출발, 차량, 낚시대 완비

202.553.8551

### 롯데플라자 스틸링점 푸드코트

롯데플라자 스틸링점(VA)에서 근무하실 직원을 모집합니다.

### 캐시어

풀타임/파트타임

sijang.sterling@gmail.com  
성함, 연락처 남겨 주세요!

### 코너스톤 종합보험

### 사무직원 모집

- \* 풀타임/파트타임
- \* 영어/컴퓨터 사용
- \* Annandale 지역

이력서  
joshuaoh123@gmail.com

### 구함 노임 전문 변호사

체불임금 80만불 받아내면 50%씩 나눠가지기로 합니다.

Looking for a lawyer specializing in labor.

If we receive \$800,000 in unpaid wages, we will split 50% each.

Glimck2@gmail.com

### 구인

- Office 청소하는 사람 구함
- 경험있는 Area Manager 구함

매나사스 지역 (버지니아)

301-537-3800

### 구인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5+years of body man experience  
Busy Auto Body Shop in Gaithersburg, MD

T. 301-977-4484  
C. 240-246-4477

### 시니어 보험 에이전트 모집

- ▶ 안정된 소득과 도와주는 기쁨
- ▶ 라이센스 소지자 우대/라이센스 교육 가능
- ▶ 목회자/사모님/교회 종사자 환영

ehyum0530@gmail.com  
**571-232-5022**

### L&B Universal, Inc.

히팅/냉동/덕트클린

### HELPER TECHNICIAN (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전화문의:  
**703.678.1749**

### 앤틱 한국 수출 관심있는 분

빈티지 & 앤틱 가구, 전축, 차이나셋트, 정원용품 등 1900-1950 년도 까지 물품들 무역, 수출 원하시는 분 고정 거래처 있으며 현재 월 한 컨테이너 (40')

문의 : Yong Choi 703-626-7370  
Manassas, VA

### 대형믹서기 핫 세일

HOBART Mixer 140 qt.

- Lease end
- Machine less used
- Low price
- Year-end Quick Sale

Sfood90@gmail.com  
Text: 703-200-5541 (Alex, VA)

### 메디케어 정문기 · 정선화 보험

건강 보험, 연금, 롱텀 케어까지 안락하고, 건강한 노후 준비를 위한 길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유니티 보험  
**703-598-3316**  
**703-862-5395**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① 위싱턴 중앙일보

# "하루 준비, 끝"

좋은 신문이 당신의 생활을 바꿉니다. 일등신문 중앙일보 하나 보는 것 만으로도 당신의 삶이 편해집니다. 생활을 윤택하게 이끄는 풍요로운 콘텐츠, 아침을 기분 좋게 여는 중앙일보로 하루 준비를 편안하게 끝내시고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대표전화 : 703-281-9660



#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중앙일보 2024년 7월 29일 월요일

구인/구직 광고와 개인 렌트 유료 광고 내용 보내실 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증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C13

**중앙일보 애독자 분들께 알립니다**  
오는 7월부터 생활안내 섹션 출광고가 1개월 \$20 유료광고로 전환을 알립니다. 기존과 신규 일반광고주는 계속해서 무료로 출광고 서비스 해드립니다. 상업성 광고는 출광고로 무료 게재하지 않습니다. 생활안내 무료 광고를 애용해주신 분들께 앞으로도 변함없는 후권과 관심, 지속적인 이용 바랍니다.

**단체 광고 문의 접수 받습니다.**  
▶ 자세한 문의: 703-281-9660  
또는 kdclass2018@gmail.com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구인/구직

▶▶심원섭 회계법인에서 일할 회계직원 구합니다.  
(1) Manager □ 5-7yrs experience. CPA Required. (2) Sr. Accountant □ 3-5yrs experience. (3) Admin-Excel, Data Entry and Bilingual skills  
Compensation: Salary + Benefits  
msim@michaelsimcpa.com

▶▶MD Montgomery 및 PG County에서 식당장비 세일즈 구합니다. 경쟁력있는 보수 (커미션), PEPCO 등 정부보조프로그램 또는 다른 분야의 대면 방문 세일즈 경험자, 경력자 우대 (기본급 및 경비 지원) 초보자 세일즈 트레이닝 및 각종 지원 제공 (Case by Case) edk.tre@gmail.com으로 자기소개와 함께 지원 바랍니다.  
571-332-2101(문자요망)

성장하고 있는 유통회사에서 IT(전산), 그래픽 디자이너 및 인테리어 디자이너 구함  
이력서 접수 sunddor@gmail.com

애난데일, 시원한 사무실 파, 풀타임 근무하실 분. Junpark9@hotmail.com  
571-242-3736

정관장 애난데일 매장 직원 구함  
풀 타임/파트 타임/일요일  
판매 경험자 우대  
▶문의: 571-348-3723

코너스톤 종합보험 사무직원 모집  
-풀타임/파트타임  
-영어/컴퓨터 사용  
-Annandale 인근 지역  
▶이력서 joshuahon123@gmail.com

사무직 직원 급히 구합니다  
스프링필드에 위치한 간병사 회사  
기본적인 컴퓨터 지식과 이중언어 가능하시면 경험 없어도 Training 하여 드립니다.  
Full Time / Part Time  
▶이력서: KDLHJL@gmail.com

Smart Insurance P&C(Property and Casualty) specialist 모집  
-경력자 우대(P&C License 소지자)/신입 환영  
-MS Office 사용가능자  
-Benefit: 401K/Health Insurance/PTO/Sick Leave  
▶지원: smartacct@solomonus.com  
703-639-0882

WBS 직원 모집  
사무직, 월-금, 유급휴가, 건강보험, 취업비자/영주권 Sponsorship.  
\$50,000/Yr  
이력서: hr@worldbankcard.net  
▶문의: 703-225-5500

변호사 사무실 직원 채용  
경력, 영어 및 컴퓨터 능력에 따라 18불, 20불, 22불부터 시작, 영어 이력서  
▶이력서: Janammi0410@gmail.com

Fairfax 풀/파트타임 이중언어 사무직 유경력 40k-50k 베네핏 제공  
▶571-232-0702  
coverworldgr@gmail.com

탐 여행사와 함께 할 에이전트를 찾습니다!  
(엘리컷시티, MD)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제출 할 곳: ceo@toptravelusa.com  
▶703-256-0606

탐 여행사 버스투어 가이드 구함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제출 할 곳: ceo@toptravelusa.com  
▶703-543-2322 (레나 고 실장)

롯데플라자 마켓 본사인승원에서는 그래픽 & 웹디자이너를 구합니다.  
■모집부문: 그래픽 디자이너 / 웹 디자이너  
■근무형태: Full Time (Mon.~Fri.: 7:30AM - 5:00PM)  
■근무지: 승원본사 디자인실 (Jessup, MD) chankim@lotteplaza.com으로 Resume와 포트폴리오 첨부

유재신 회계사 애난데일 공인회계사사무실  
경력자 우대, Benefit, 영주권 스폰서 가능함, 무경력자도 성실히 열심히 함께 일하실분  
이력서: acct.one3@gmail.com

Annandale, VA에 위치한 공인회계사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실 분 모집합니다.  
Full & Part time, 경력자 우대, 무경력자도 환영. Benefit 있음 (보너스, 건강보험, 유급휴가 등등), 영주권 스폰서 가능  
Email: acct.one3@gmail.com

Wanted Sales/Marketing.  
Y1 design factory, LLC  
443-240-5114

건강 용품 매장에서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일하실 분 / 영어 가능하신 분  
703-798-7270

한상준변호사 사무실  
이민법에 관심있으신 Entry Level Associate Attorney 및 직원을 구합니다.  
LLM 환영, 이민법 Training 제공, 취업비자 지원 그외 저희 사무실과 동반 성장을 원하시는 변호사님의 문의도 환영 합니다.  
lawsjhan@gmail.com  
703-256-5050

첼트리 위치한 한미포스트 물류회사  
풀/파트타임 (9am-5pm or 10am-2pm)  
운영팀 00명, 패킹/포장팀 00명  
학생/한국에서 오신지 얼마 안되신 분  
ceo@hanmipost.com \*스폰가능

에버그린 헬스 매니지먼트에서 풀타임 직원모집  
Position: Human Resource, Medical Billing Assistant  
한국어/영어, MS Office (Word/Excel)

danny.vergreenhealthcare@gmail.com  
버지니아 애난데일 회계사무실  
파트타임/풀타임 직원모집  
학생및 유/무경력자 환영, 컴퓨터/영어가능자, 취업비자/영주권스폰 가능  
이력서:annandalecpa22@gmail.com

Assistant Accounting Manager:  
-Gov't contracting firm  
에서 fulltime 회계직원 구함  
www.visitlod.com  
-Quickbook/excel경험필수  
-1년이상 회계업무경험좋은  
인성과 세밀함/성실함  
-100% Medical/Dental/Vision/Life insurance  
-Starting \$55,000  
admin@visitlod.com

ASL Division Manager:  
애난데일 소재한 정부계약회사  
www.visitlod.com 수어(ASL) 통역 매니저  
구함 -통역사들의 스케줄관리 -정부계약및 vendor 관리 -좋은 인성과 성실함  
-100% Medical/Dental/Vision/Life insurance -Starting \$60,000  
이력서: admin@visitlod.com

의료품 관련업체 세일즈 사무직, 스폰서 가능  
703-626-3489 / Vp@ytsglobal.com

Silver Spring, MD에 위치한 종합보험 Agency에서 함께 일하실 이중언어(영어 또는 스페인어) 가능한 유,무경력자 구함.  
albert@wkkinc.com (Cell) Mr. Kim  
301-526-7000

회계사 사무실 구인/유경력자 우대  
Benefit (건강보험/보너스/유급휴가)  
영주권 스폰서 가능함  
무경력자도 성실히 함께 하실분  
luvacct1986@gmail.com

JTBC-중앙일보 워싱턴 총국에서 '행정·코디'를 채용합니다. 많은 지원 바랍니다.  
-근무조건: 풀타임  
-근무내용: 워싱턴 총국 행정, 취재 코디 및 기타  
-지원자격: 신입 및 경력  
미국 취업에 결격 사유 없는 분  
-처우: 보수는 최종 면접 후 결정  
-지원서류: 이력서(한글 또는 영문)  
-접수처: kim.hyounggu@joongang.co.kr  
thkang@joongang.co.kr  
phil9@jtbc.co.kr

### 병원/치과/덴탈랩/한의원

버지니아 한의과 대학교 부속 한방병원  
마사지사 구합니다.  
-타이슨스 코너 5분거리  
-풀타임/파트타임 가능  
▶571-243-4251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디 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션니스트 구함  
▶301-787-4842 (문자로만 연락 바람)

센터빌,첼트리 지역 물리치료 병원에서  
한국어/영어 가능한 Receptionist 구함  
이력서:coreptrehab16gmail.com  
▶703-865-6455

나투라치과 어시스턴트 및 리셉션니스트  
월/화/목/금, 영어가능자  
Entry-Level Welcome  
▶Resume to:naturadent@gmail.com

급구, 센터빌/첼트리 지역  
임플란트 전문 치과 풀/파트타임  
유경력 어씨/리셉션 환영  
이력서 첨부 govaepic@gmail.com  
▶703-574-0528

치과병원 Front Desk(레슨톤/ 타이슨스)  
경력자 우대, Dentrix Plus Full/ Part Time  
No exp.require 이중언어,  
▶tysondentalcenter@gmail.com

닥터오피스 리셉션니스트 구함  
파트타임, 풀타임 가능  
mercy4resume@gmail.com  
▶703-256-3005/703-830-0993

닥터 오피스에서 full or part time 직원 구함.  
라벨/ 콜롬비아  
이중언어, 신분에 결격사유 없으신분  
문의 301-580-5777

1)덴탈랩 경력자 세일즈 구합니다  
Germantown/MD  
2)성실한 세라미스트 경력자 구합니다  
덴탈랩 Germantown/MD  
3) CAD/CAM 파트, 테크니션 구함  
4)덴탈랩 오피스 사무직 직원 구함  
(풀타임/경력자 우대) 저먼타운 MD  
240-477-5683

워싱턴 데이케어에서 일하실분 구함.  
-데이케어 직원 / 주방보조 / 간병사(남,여)  
703-850-1100/703-963-1234

책임감있고 성실한 직원모집  
\*College Park지역, MD -경험많은 Handyman -Part Time Office관리자  
-정육부 관리자 \*Capitol Heights지역, MD  
-사무보조:이중언어가능자  
\*PT 20-35HR:\$17-20/H  
jobsmd@outlook.com  
문의:(301)333-2209

닥터오피스 리셉션니스트 구합니다.  
풀/파트타임, 영어/한국어 가능 경력자 우대  
P:703-965-3103  
email: admhappy.hr@gmail.com

▶▶요양원에서 일하실분  
풀/파트 타임 임주가능,  
경력자 우대. 엘리컷시티  
240-426-5678

러브랜드 홈헬스에서 직원을 모집  
-모집분야: 행정직, 간호사(RN, LPN),  
Case Coordinator, Day Care Driver  
-지원자격: 이중언어 가능, 컴퓨터 사용가능, 자격증 소지자  
-근무혜택: 건강보험·IRA 혜택제공, 유급휴가 제공 / 경력자 우대함  
-지원 및 문의: HR 담당  
▶703-657-0944  
E-mail: admin1@lovehandhomehealth.com

롯데플라자 마켓 본사 승원유통에서  
함께 일하실 분을 구합니다.  
\*위치: 메릴랜드 재섭(Jessup)

1. 승원 물류센터 사무직원 모집  
-업무: 사무직원 (서류관리 및 인보이스등)  
-시간: 주 32~48시간 (주 5일 근무 가능)  
2. 승원 물류센터 현장 관리자 모집  
-업무: 현장 직원 관리 및 인출고 관리  
-시간: 주 48~52시간  
-유경력자 우대(물류센터 운영 전반)  
접수방법: 간단한 이력서 작성 이메일 접수  
▶연락처: han97003@lotteplaza.com

240-750-0016 / 물류센터장  
H Mart Wheaton RTC 부서 직원모집  
업무: 주방 보조 (주방)  
Address: 12015 Georgia Ave,  
Wheaton-Glenmont, MD 20902  
연락처: Customer Service Manager  
▶P: 301-942-5071

H-Mart Herndon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력자 우대  
매니저: 임희상 이사  
▶571-839-1647

H-Mart Falls Church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력자 우대  
매니저: 박성태 부점장  
▶703-573-6300

Global Food VA 매장 그로서리 매니저  
info@theglobalfood.com  
▶703-897-6100

롯데프라자 스타링점 구인  
푸드코트 캐쉬어, 풀타임, 파트타임 가능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세요.  
▶sijang.sterling@gmail.com

점보 인터내셔널 슈퍼마켓  
정육부 매니저 1명, 그로서리 매니저 1명  
은퇴연금/건강보험, 내셔널하버 MGM 근처  
이력서: jumbo.food@gmail.com  
▶703-577-2425 (전화문의 Mr. 박)

▶▶우드브릿지 지구촌마켓 한식코너 파  
트타임 캐쉬어 구함(월, 수요일)  
410-961-7376

한식 일식당 sushi chef 구합니다  
플로리다(마이애미) 지역 속소 완비  
561-525-6544

베이글샵에서 일하실 분  
파/풀타임(주말포함), 알렉산드리아 스프링  
필드 물에서 5분거리, 문자요망  
703-371-1263 / 703-899-5098

알링턴의 Gute Leute 커피샵에서 커피에  
대한 열정을 가진 바리스타를 모집합니다.  
바리스타가 되고 싶은 분들도 환영합니다.  
관심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세  
요. guteleute.usa@gmail.com  
703-989-9828 (Text Only)

센터빌 K-밥상 (롯데 푸드코트)  
가족같이 일하실 캐쉬어 구합니다.  
443-864-0091

엘리컷시티 Cafe June에서 샌드위치 사일 분  
유무경력자, 풀/파트타임  
443-386-0515

알링턴 gute Leute 커피샵에서 바리스타  
구합니다. 바리스타가 되고싶은 분도 환영  
합니다. guteleute.usa@gmail.com  
703-989-9828 (Text Only)

### 식당/제과/델리/식품

▶▶텍사스도넛 센터빌  
베이커 보조 구함(야간)  
영주권 스폰서 가능  
703-462-4349

MD 글렌버니지역 Severna Park  
베트남국수 식당 Full/Part Time  
Hall Server 구합니다  
240-678-5395

H Mart 또는 롯데에서 시식 행사 진행하실  
분 문자로 연락 주세요. 풀타임, 파트타임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입업 멀칭**  
(ALLIANCE LAND MANAGEMENT)

- 토지 개간
- 들판 잔디 깎기
- 울타리 라인
- 산책로 및 목초지

540-905-2849  
SALES@ALLIANCELANDMANAGEMENT.COM  
English 상담

동부 최대 스크린 골프  
**NO.1**  
GOLF LOUNGE

“No.1골프에서  
함께할 Staff를  
구합니다”

571.591.4455  
5938 Centreville Crest Ln  
Centreville, VA 20121  
https://no1golfounge.com

운전면허에  
관한 모든 것

VA, 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 발행

- 필기시험 요점정리, 예상문제
- 한국/타주면허 갱신
- Real ID 신청
- 차량 구입/등록
- 기타 교통국 업무

Jim Dong  
571-294-0057

**구인**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디 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션니스트

구합니다!

문자로만 연락 바람  
301-787-4842

콘도 4채 매매  
렌트수입 증음!

- 교통 편리한 PG 카운티에 위치
- 경비 제외한 순렌트 수입 \$4,000/m
- 매매가: \$515,000 Cash Only

AGENT 환영  
문의  
703-244-3453  
SERIOUS INQUIRIES ONLY

#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C14

구인/구직 광고와 개인 렌트 유료 광고 내용 보내실 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7월 29일 월요일 중앙일보

571-991-4172

현돈 H-마트 안 민가네 식당 캐셔 구함  
703-638-8878

제빵 기술자 구합니다. 리치몬드 지역  
919-225 4703/jaybae67@gmail.com

미국음식 하시는 분 구합니다.  
경험자 구함. (Woodbridge, VA)  
월 \$6500+Tip (전화+text 부탁드립니다)  
571-365-8303

## 이·미용실/네일/마사지

Gaithersburg, MD 남/여 머리하시는 분  
▶ 301-926-3638 / 301-538-4246

후레드릭스버그 버지니아 이발소에서 금, 토  
요일 일하실분 구합니다.  
703-907-9541

첼트리에 위치한 미용실에서 부스렌트, 스킨  
케어룸 원하시는 분 구함.  
자세한 사항은 문자, 메세지다가  
(571)215-6767

이발사 구합니다. 알렉산드리아 지역  
703-408-1119

첼트리에 위치한 미용실에서 부스렌트,  
스킨케어룸 원하시는 분 구함.  
자세한 사항은 문자, 메세지다가  
571-215-6767

애난데일 미용실에서 리셉션리스트 구함  
(일요일 근무가능 하신분)  
703-750-2424/703-717-8256

바버 or 미용사, 바디 마사지사  
풀타임/파트타임 구함. 애난데일 지역  
703-505-9020

풀/파트타임 이발사 구함. 703-408-1119

4일 또는 2일, 일 하실 바버 구합니다  
메릴랜드 앤드류 공군 기지 근처  
애난데일에서 25분 거리  
703-975-8008

## 세탁/얼터레이션

▶▶세탁소공장에서 카운터, 베칭, 프레스,  
벨래 / 파트타임 또는 풀타임 / 우드브릿지지역  
571-455-3609

픽업 스토어에서 필요물품가게 크로스로  
판매. (컴퓨터, 얼터레이션 장비등 일체)  
571-224-7777

DC 세탁소 픽업하실분 풀타임 메트로 3분  
동글분 환영  
301-221-2463

알렉산드리아지역 세탁소픽업소들에서 파트  
타임하실분. 연락처.  
703-300-4959

픽업 바느질 하실분(파트타임) / 엘리콧시티  
410-926-3200

세탁소 수선하실 분 구함  
페어팩스 가버먼트 파크웨이  
703-568-3574

바느질 하실 분 구함. 알렉산드리아 지역  
703-328-3064  
픽업 풀타임 카운터 구함: 우드브릿지 지역

571-455-3609

## 자동차 정비/바디샵

▶▶자동차 정비 매케닉 구함.  
Alexandria, VA (문자요망)  
703-887-5355

게이더스 MD. 바번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240-246-4477

첼트리 자동차 정비소에서 성실히 일하실 분  
모집합니다. 매케닉, 준매케닉, 헬퍼 구함.  
703-266-1983

엘리콧시티 자동차 정비소 성실히 일하실 분  
매케닉, 영주권 가능, 좋은 대우  
410-446-9981

Chantillyva.(Ourisman Toyota Auto  
mechanics 경험에따라 우대함. 베네핏!  
Ask Service manager Joon  
202-699-1805

자동차 정비사 구함 Columbia MD 지역  
443-983-1965

자동차 정비사 구함/ 애난데일 지역  
Mechanic or Mechanic Helper  
\$50k - \$100k 가능 Va safety inspection  
우대(emissions test 없어도 됩니다)  
Manager 하시면서 2-3년후  
가게 맡아 하실분 환영. 영주권 스폰서 가능  
571-376-7878

## 플러밍/냉난방

L&B Universal, Inc. (냉·난방/덕트클린)  
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 703-678-1749

Office 청소하실분 구합니다.  
경험있는 Area Manager, 매니사스 (VA)  
▶301-537-3800

연합감리회 위싱턴교회 지휘자 모집  
-자격: 성악 전공/지휘 전공  
음악 전공 (지휘 경력)  
-서류: 이력서 신앙고백 자기소개서  
제출: nationalkumc@hotmail.com  
▶301-309-6856

No.1골프에서 Staff 모집합니다 (센터빌)  
▶571-591-4455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직원모집: 운전기사 / 간호사(RN)  
-건강보험 -좋은 조건의 연봉과 베네핏  
-유급 휴일과 유급 병가  
eamdc@emmanuel.care  
▶443-828-7777

맥클린한국학교 교사 모집  
▶문의: 571-235-8997, 703-505-5760

COLUMBIA COLLEGE 교직원 초빙  
초빙 부서: 미용학과 코디네이터 / 강사  
자격: 라이선스 보유-1 (교황교수, 인턴),  
H-1B Transfer 가능  
▶이력서 제출: raphaell@ccdc.edu  
www.ccdc.edu

미국회사 Electric Co.  
전기 기술자, 영어소통 필수  
973-997-5805 (엘렌)

EV Electric Co.  
차, 베네핏, 전기기술자, 무경력 가능

973-997 3012

## 기타 구인/구직

▶▶MD 아류델빌 샵센터 근처에 위  
치한 무궁화메디컬 데이케어에서 풀타  
임운전 하실분 구합니다.  
443-621-2625

버크 태권도 사범 구합니다 풀타임 \$50,000  
tony@incouragemartialarts.com  
571-243-7027 (문자요망)

▶▶노임 전문 변호사 구함  
체불임금 80만불 받아내면 50%씩  
나눠 가지기로 합니다.  
Looking for a lawyer specializing in  
labor. If we receive \$800,000 in unpaid  
wages, we will split 50% each.  
▶Gilmck2@gmail.com

홈케어 (센터빌) 업무팀 직원 구함  
유경력자 우대 이중언어 구사자  
이력서: hr@firsthco.com  
▶571-549-6789

홈케어 오피스에서 HR, Billing  
Scheduling 하실 직원분들을 구합니다.  
영어가능자 환영, 영주권 스폰서 가능합니다.  
571-422-7189

페어팩스 노리학교에서 아이들을 사랑하  
는 선생님을 구합니다. 이중언어, 교육자  
전공자 & 경력있는 분을 구합니다. (풀/파  
타임) norischoolkids@gmail.com  
703-881-8349

집안일 도움주시고 운전 가능하신분 구합니  
다. 월-금, 오후 3PM - 7PM  
센터빌 롯데 부근입니다.  
703 300 1048

알렉산드리아 치맥치킨 훔말아서 해주실분  
(703) 473 6022.

어시스트리빙 노인분들 케어 해주실분.  
남녀불문 경험자 우대. 숙식도 가능.  
410-961-3012

버지니아에 있는 꽃집에서 디자이너와  
헬퍼를 구합니다. 유, 무 경력자 환영  
240-393-2773

각종류의 영어서류 신청과 등록 및 접수와  
해석하면서 도와드려요. 연락주세요.  
703-537-6756 (씨니 한)

파트타임 구함. 이중언어 되시는 분  
은퇴하신 남녀노소 환영.  
703-424-8596

MD에 위치한 MGH Adult Medical Daycare  
Center에서 근무할 RN 간호사를 구함  
443-621-2625

필그림유치원 교사모집  
토들러반 풀타임 / 오후 파트타임  
571-212-9020

애난데일 인쇄회사 풀 / 파트타임 구함.  
컴퓨터관리 / 고객마케팅관리 하실분.  
신분 무. 재택 NO  
E-mail: newsunny77@gmail.com  
571-242-3736

몸이 불편하신 시니어분들 모집합니다.  
-최적의 위치·시설 -최고의 식사와 돌봄

703-980-9890

사인 컴퓨터에서 일하실 성실하고  
꼼꼼하신분. 유·무 경력자  
703-499-0857

건물관리인(월-토), 스폰서가능  
영어, 전기, 기계, 목공모두 가능하신분  
240-903-0777

## 싱글/타운하우스 렌트

▶센터빌 타운하우스 2층 작은 방  
여학생 환영. 유포 \$800  
▶센터빌 타운하우스 지하 \$1,100  
▶페어팩스 싱글홈 2층방.  
조지메이슨 부근  
여학생 환영. \$1000  
(싱글/타운하우스 렌트)  
▶페어팩스 싱글홈 렌트 \$3,500  
▶703-231-5572

▶▶첼트리 타운하우스 반지하 욕아웃  
인테리어, 가구, 가전, 주방일체 포함 \$900  
즉시 입주 가능 문자요망  
571-429-2222

페어팩스 콘도 \$1,600  
큰방1, Den(Dining Room), End Unit,  
집전체 새 나무마루, 새 화장실, Washer &  
Dryer 집안에 있습니다. 넓은 남향 Bacony,  
밝고 환한집. 880S.F.(넓은 사이즈).  
Costco 가까운 동네. 즉시 입주 가능  
▶703-477-3114

시니어케어 용도주택 렌트  
-95와 RT 1 만나는 Dumfries  
-아름다운 조경의 큰 땅, 전체 리모델링한 저택  
-1,2층 각자의 계단없는 출입문  
두 층 각자 풀키친과 세탁장  
-12베드룸, 6 풀베스,  
(1+2층 7베드, 4베스 또는 워크아웃  
아래층 5베드, 2베스 따로 렌트 가능)  
\*Serious Inquiries Only \*Agent 환영  
▶703-244-3453

## 부동산 렌트

방3, 화2, 유포 (전기별도) 7/1 입주가능  
703-975-0123

메릴랜드 콜롬비아 싱글홈 렌트  
방5, 화장실4, 차고2, 좋은환경, 최고 학교  
410-599-1800

스프링필드 싱글홈 렌트 \$2,700  
방4, 화장실2, 주인 잔디 관리, 전체 마루.  
703-403-7757

메릴랜드 대학가 495와 95 만나는  
교통 편리한곳. 싱글홈 방4, 화2.5 차고 2  
301-385-3535 (자세한 사항은 문자요망)

114 Birch St / B-6, Falls Church  
서쪽 지하철 근방. (교통/학교 좋은)  
방2, 화1, 세탁기, 새 부엌, 렌트 or 매매  
703-336-3283  
케인즈빌 2019년에 지어진  
햇빛 잘드는 엔드유닛 모던 타운홈  
방 3개, 화 4개, 2카가라지. \$2,850  
703-762-6759

센터빌 타운홈(차고 두개 짜리) 사고저하는  
분 연락주세요.

연락전화: 571-277-7758

1. 페어팩스 타운홈, 방3, 화3.5,  
좋은 로케이션, 잘관리 된 집 \$3,700  
2. 사우스라이딩 타운홈, 방3, 화2.5,  
전체 새 페인트와 바닥 등 Renovation,  
Freedom High 학교 \$3,300  
571-567-5797

## 콘도 렌트

센터빌 콘도. 방2, 화2, 2층, Loft, Top Floor,  
탁트인 부엌, 넓은 리빙룸, H-Mart, Lotte  
Mart 가까이, 전용주차장 2대, \$2,200  
▶703-477-3114

애난데일 콘도. 방1, 화1, 새 나무마루,  
새 부엌, 새 화장실, 새 페인트, New Light  
Fixture, 넓은 발코니, 밝은 리빙룸,  
계단없는 1층 위치. \$1,500(Water, Gas,  
Trash removal 포함됨)  
▶703-477-3114

애난데일 콘도 방 학생또는 직장여성  
욕실별도/세탁기 월 \$640(유포)  
대답업으면 메시지요망 614-615-9054

MD 락빌 홀푸드 근처.  
1180sq/2bed/2bath  
3 & 4층 복층콘도. 좋은 학교  
전체 새마루. 7월 중순 입주가능.  
571-331-4746 (text 가능)

콘도 렌트. 방2, 화2, 깨끗한 이층집. \$1,700  
702-622-8853

## 방 렌트

▶▶단독주택 이층 큰방/인터넷/가구  
완비/냉장고별도/샤워별도/주차. 29  
번과 198번 사이 Burtonsville, MD  
20866 직장인, 금연자  
240-418-2738

싱글홈 지하 렌트 욕아웃 \$2100  
방2, 화장실2, 풀키친, 단독샤워, 와셔어  
▶703-489-6926

▶▶애난데일 예촌근처 반지하  
방1/ 화장실/샤워  
유포, 파킹 즉시입주가능 문자요망  
703-629-6275

▶▶단독주택 지하방2. 출입문별도.  
부엌, 욕실, 가실등, 저면타운 메릴랜드  
(롯데마켓 5분거리) 문자요망  
202-985-9191

▶▶조지메이슨 노바 5분거리  
반지하 \$900/부엌/화장실/출입문 별  
도/마루바닥/유틸리티포함/문자요망  
703-598-6087

▶▶애난데일 홈디포 근처 방 렌트 유포  
703-598-5719

▶▶MD 실버스프링  
Calverton(교통편리), 싱글홈, 큰방, 욕  
실, 유포, 인터넷, 가구, 금연,  
301-648-2422

▶▶열린문 교회 근처  
싱글하우스 방 세놓음 남자분 환영  
703-344-6273

▶▶센터빌 방/욕실/화장실 1 세놓음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달재 부동산

703-483-0505 Fairfax Realty 50/66 LLC  
11130 Fairfax Blvd. Fairfax, VA 22030

심신이 편한 생활을 위한 단층주택, 1층 콘도, 뒷밭이 있는 곳으로의 이전을 시니어 고객 전문 부동산인이 준비 상담해 드립니다. 복잡하고 답답하고 주차난이 심한 타운하우스 등에서 벗어나 병원, 그로서리, 레스토랑, 교통(1-66, 29, 28번 도로)이 원활한 지역에 소재한 생활권으로 이전함으로써 "삶의 질"을 올리고 심신의 피로에서 벗어나세요.

**추천물건**

단독주택 \$ 524,000  
방3, 화2 워크아웃 베이스먼트  
Ground / Split Level, NO HOA, 0.25 Ac  
(1층에 방2, 화1 시니어 거주 편리)

1층 콘도 \$ 234,000  
방2, 화 2 / 콘도피 \$350  
상가, 병원, 그로서리등 교통 편리

\* 기존 주택을 팔고 이주할 때 번거롭게 미리 집을 비우지 않아도 거래 가능합니다.  
\* 집을 팔거나 사기 전에 집을 손볼 곳이 있더라도 주저하지 마시고 상담 전화 주세요.

## 정크 빨리빨리

이제  
어떻게  
버리시?

“ 가정, 사업체에 만쓰는  
가구, 가전 등 버려드립니다. ”

각종 딜리버리 / 소량 이사 전문  
비즈니스 폐업 / 각종 철거 전문

Junk8282828282.com

571-723-0446

## 열린 마음으로 시니어분들 돌봐 드립니다

- ◆ 주인이 직접 돌봐 드립니다.
- ◆ 1에이커 넘는 깨끗하고 넓은 정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 자녀들의 휴가, 출장으로 인한 단기간 돌봄도 가능합니다.
- ◆ 노바대학과 벨트웨이 중간지점(예촌 2분거리)입니다.
- ◆ 1인1실

MD나 타주에서 오시는 분 상담해 드립니다!

“ 양로원에 들어갈 예정이신 분들과 나오신 분들께  
모든 것을 한국식(음식)으로 준비해 드립니다. ”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세요!

문의: 571-278-8811 / 703-999-3557



## 보험

### “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접수!

59년생, C플랜, 약보험

신규가입 · 재가입

### 자동차 주택 사업체 보험

“보험료”를 확실히 내려 드립니다!

**조은혜 종합보험** 10560 Main St., Ste 201  
Fairfax, VA 22030

☎ 703-591-0009 / 703-537-9899



## 냉·난방

### “냉·난방은 제대로 설치해야 영구적”

오래되고 값은 고장이 기계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드립니다.

히팅·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Carrier, Lennox 전문딜러

큰 규모의 미국 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 못 믿으시겠죠?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피드 먼지와 세균  
알라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L&B UNIVERSAL** Office: 703-618-4822 Cell: 703-678-1749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신속한 AS·기술력과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www.facebook.com/LandBUniversal

## 건축 / 페인트

# TK 종합건축

Since 1988

### 30년 경력 종합건축·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 건축·시공 및 건물·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 ▶ 상가 및 빌딩 신축·리모델링 ▶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 건물 및 시설 유지보수·관리 대행

**무료견적**  
설계/허가/디자인  
시공/유지보수관리

자체 라이선스 보유 및 건축공사 책임보험 가입

Tel: 703-504-6116 / Cell: 703-675-7401

## 와니건축

**Repair Doctor**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벽,  
그외 모든 공사

**책임시공/신속처리**

-주정부 라이센스/책임보험가입-

**Call 24시간 가능**

(사진보내주시면 즉시 무료견적)

카톡 ID: wani6811

571-331-6811

## 레드문 페인트

- ▶ 욕실·주방 리모델링 전문
- ▶ 마루·텍·케비넷 샌딩 보수
- ▶ 타일·목수·HoA 지적 신속 수리
- ▶ 핸디맨·플로잉 서비스

703.965.3011

## 라돈 가스 검사/유리

### 라돈 가스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라돈 가스는 폐암을 일으키는 두 번째 주요  
원인으로, 눈에 보이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는  
가스입니다. 집에서 많이 발견되는 문제의  
가스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꼭 검사를 하셔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NRPP 면허소지 202-774-6554

## JK 유리 & Window

C.703-346-5962

상점/가정집 유리·거울

Frameless 샤워도어/Aluminum/Door 설치

MD·VA·DC 지역, 신속시공

## 이삿짐 / 재테크 / EV 충전기 설치

### 범양해운 귀국 이삿짐/차량운송



포장이사 및 타주이사 / 주재원 귀국이사 전문  
범양해운이 책임지겠습니다.

- 자동차 운송
- 수출입 화물(선박, 항공)
- 소량화물 / 유학생 우대
- 분실 / 파손 보험커버
- 쓰레기 처리가능
- 무료견적
- Door to Door Service
- 창고 보관 및 유통관리
- VA/DC/MD ↔ NY 정기운행
- 타주이사

범양해운 USA Tel. 703-298-1919  
7000 Newington Rd. #H, Lorton, VA 22079

www.vapumyang.com / va@pumyang.com / vapumyang@gmail.com

KOREA(SEOUL) 02-2083-2083 KOREA(BUSAN) 051-469-4191 USA(LOS ANGELES) 310-767-5699 USA(SAN FRANCISCO) 510-887-2424

USA(SAN DIEGO) USA(NEW JERSEY) USA(TEXAS) USA(ATLANTA)

## HD 현대 통운

- 귀국, 해외 이사
- 타주, 시내 이사
- 귀국, 타주 차량운송
- 한국 소량 화물 배송 서비스
- 고품격 포장이사 서비스
- 자체 창고 보관 서비스

미동부 최대의 운송회사

703.339.8844

www.HDmovingusa.com

## 고려통운

세계 어느곳이나! 세계 어디든지!

- 귀국이삿짐
- 타주이사
- 해외이사
- 시내이사
- ICC인가업체
- 세계 84개국 체인 유통망 확보
- 100% 자체보험으로
- 고객의 추가 보험료 불필요
-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 한국에서 지불가능 (후불)

Tel. 703-550-2424 Fax. 703-550-2426

GORYOEXPUS@hotmail.com

7350-E Lockport Pl., Lorton, VA 22079

## 조양운송

- 신속
- 안전
- 신용
- 저렴
- 20년 전문!!
- 귀국 이사 전문
- 자체 창고 보관
- 타주, 시내 이사
- 전문 포장 이사

(703)550-5550

choyangusa@hotmail.com

## Movers LLC



이사 / 배송 서비스 전문

(Professional all types of moving service)

쓰레기 / 폐기물 처리

(All types of junk removal)

571-982-9871(Korean) / 202-802-2858  
sales@moversdmv.com

## MD 업소 안내

## 냉난방

### JD 냉난방

Mr. 은

410-370-8057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인, 아이스 머신



## 소독

### 소독 JD Star Pest Control

Mr. 은

Owner / Certified Applicator  
410-370-8057  
410-370-8484

Rats/Mice, Insects, and Termites

## JIP Electronic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Master Electrician  
Class - A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무료견적/철저한 AS

대표: 박을구  
703.929.9601

## 보석

Golden Dew Jewelry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 골든 듀 보석

- 백금(Platinum)
- K14, K18, Setting 전문
- G.I.A. E.G.L. 다이아몬드 판매
- 결혼 예물 셋팅 전문
- 순금 아기를 받지 팔지
- 남양진주 각종 보석 취급
- 각종 결혼식, 약혼식 예물용  
로렉스시계 전문 판매
- 각종 보석 감정수리 상담

410-480-2477 8801 Baltimore Nat'l Pike  
엘리컷시티 롯데몰라자 내 Ellicott City, MD 21043

## 건축

### Top 건축 MD

집수리 전문

- 각종 집수리 일체
- 지하실/주방/욕실/전기설비
- 타일 마루/루핑/카펫/페인트
-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 전기공사, 페인트

- 각종 전기, 카메라, DATA
- 24시간 출장가능
- 리모델링

703-582-7757

에어컨&히팅 / 핸디맨 / 리모델링 / 플러밍 / 카펫&크리닝 / 블라인드 / 마루 / 페인팅 / 이사

**애난테일·페어팩스·센터빌 핸디맨**

20년 노하우로 집에 관한 모든 작은 일도 시원하게 고쳐 드립니다!

페인트, 플러밍, 전등, 토일렛, 퍼셋, 핫탱크 등 교환 및 수리

**T. 571-567-5165**

**토탈카펫**

25년의 전통과 신용으로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703.909.0988**  
 상업용 한번 시공한 것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Chung's Refrigeration  
**정스냉동**

가정용 상업용

에어콘,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프러밍, 워킹쿨러, 아이스 머신 덕트설치 & 크리너

한국 미국 경력30년

Mr.Chung  
**301-572-2786**  
**703-953-0801**

Master Licensed & Insured Contractor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 히터 / 히트펌프

미국회사 10년 경력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 상업용  
[www.intertechvac.com](http://www.intertechvac.com)  
**703.380.2282**

냉동·냉장고 사고팝니다

**아라냉동** 판매장 및 장비 수리 센터

에어콘·히팅·냉동·보일러·세탁장비 수리  
 케리아웃 장비수리·Ice Maker·플러밍  
 지하수 펌프·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점검

TEL. (443) 850-3703 / (410) 979-4242

**MI 이사짐**

빠른·책임·값이 싼 **24/7** 포장이사·서비스·자재

**571-364-4185**  
mimovingllc@gmail.com

**쥬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쿨러 워터히터  
 플러밍 전기

Master HVAC Contractor  
 Master Plumber/Gas Fitter  
**443.280.1873**  
**410.917.1888** Lee

저렴한 가격! 최고의 만족!

**SK 플러밍**

▶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 싱크, 욕실, 화장실, 무역  
 ▶ 수도꼭지 / 변기 /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전기)  
 ▶ Dishwashers, Disposals  
 ▶ 상하수도 수리교체 / 배수 펌프  
 ▶ 철 핸드레일 리페어 및 각종 용접

MD·VA 24 hours 7days Service

**703-989-0103**

32년 전통의 **베스트**

카펫 및 에어 덕트 크리닝

- 최상의 트럭파워 카펫 스티밍 샴푸 (고온 300°F)
-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 제거
- 최상의 브러쉬 발음 에어덕트 크리닝
- 파워 폴청소 (택, 사이딩, 벽돌 및 마블플로어)
- 응급 수해복구 및 타일
- 폴로어 왁스

서비스 지역 : VA, MD, DC  
**703.967.4155**

**제임스 플러밍**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 전기)
-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 Gas 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 집 안밖 물새는것

24Hr  
**703.499.5984**

**핸디맨** Since 1999

REPAIR  
 REMODELING  
 VA Class A. Insured

**571.239.8525**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손잡이

작은일도 성의껏 일합니다.

**703-340-5858 (VA)**  
**443-980-5858 (MD)**

**H.P.C 집수리센터**

집안밖에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 집안-리페어, 핸디맨 서비스
-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 등 일체

“일단 전화주세요!”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VA Class A 라이선스 보유 \* 라이어빌리티, 워커스컴 보험 보유

**571-594-4080**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여 만들어 드립니다.

**703.910.0400**

**K&J PAINTING**

실내외 페인트 전문업체  
 30년 경험과 신용  
 목수, 각종 집수리

Licensed and insured  
**240-687-5155**

**BBG 블라인드 전문업체**

- 한국산 콤비, 롤스크린 블라인드
- 한국산 전통 블라인드
- 한국산 Triple Shade 블라인드
- 한국산 나비주름, 형상 기억 커튼
- 한국산 Cordless 블라인드
- 한국산 Smart Curtain
- 상업용 블라인드 전문제작
- Interior의 완성 블라인드

VA-MD-D.C 무료견적  
**571.229.4633**  
www.bbgbllinds.com / bbgbllinds@gmail.com

**PARK's Floor**  
 마루경력 20년/견적무료

- 우드, 카펫, 장판 (Hardwood/Carpet/Vinyl)
- LVT (Luxury Vinyl Tile)
- VCT (Vinyl Commercial Tile)
- 라미네이트 (Laminate)

**703-395-0050**

임업 벌칭 / 토지, 들판, 잔디, 올타리, 목초지 관리

**ALLIANCE LAND MANAGEMENT**  
 FORESTRY MULCHING & LAND SERVICES

핸드폰 540-905-2849  
 이메일 SALES@ALLIANCELANDMANAGEMENT.COM

**임업 벌칭이란 무엇입니까?**

임업 벌칭은 자란 나무, 덩굴, 초목을 토양에 최소한의 교란을 주면서 잘게 잘라 멀칭하는 특별한 기술입니다. 뿌리 덮개는 원치 않는 식물의 성장을 억제하고 토양 침식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임업 벌칭**

- 토지 개간
- 자란 들판 잔디 깎기
- 올타리 라인, 산책로 및 목초지

**용자 가능**

군인, 응급 구조대원, 간호사, 교사에 대한 할인 요금



**Jim & Roger's 본바닥 영어**

해설: 스티브 박(CIU교수)

California International University  
www.ciula.edu (213)381-3710

Ted: I like your product but your price is too high.  
테드: 물건은 맘에 들지만 가격이 너무 세군요.  
Salesman: That is the best I can do.  
세일즈맨: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Ted: It might be a good price if I were buying one but I'm buying forty.  
테드: 하나를 산다면 좋은 가격일 수 있지만 전 40대나 사는 건데요.  
Salesman: That's a drop in the bucket.  
세일즈맨: 그건 별 것 아니에요.

Ted: But we have twelve other offices in the U.S. And Canada.  
테드: 하지만 우리 미국과 캐나다에 사무실이 12개가 있는데요.  
Salesman: Are you buying for those offices too?  
세일즈맨: 그 사무실에도 컴퓨터를 사는 겁니까?  
Ted: If the price is right and we like the way they perform.  
테드: 가격이 맞고 컴퓨터가 잘 작동하면요.  
Salesman: How many are we talking about?

dangle a carrot in front of (something); 보상을 약속해 일을 시키다

(Ted is negotiating with a salesman to buy computers for his company...)  
(테드가 회사용 컴퓨터를 사려고 세일즈맨과 협상중이다...)

세일즈맨: 몇 대를 사시는 겁니까?  
Ted: Now we're talking about cutting a deal for forty in this office.  
테드: 지금이야 이 사무실에 두는 40대를 얘기하는 거죠.  
Salesman: I think you're dangling a carrot in front of me but I think we can do it.  
세일즈맨: 당근을 놓고 저한테 협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해드리죠.

**기억할만한 표현**  
▶ a drop in the bucket: 새발에 피 별 효과가 없다  
"Five dollars is a drop in the bucket compared to the one hundred dollars I need." (제가 필요한 돈 100달러에 비하면 5달러는 안되지요.)  
\* cut a deal: ~협상을 하다 거래하다  
"She cut a very good deal when she bought her car." (그녀는 차를 살 때 아주 좋은 가격에 거래를 했습니다.)

**날말퀴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가로열쇠**

(1) 하늘에서 번쩍이는 불빛, 소나기구름에서 일어나며, 천둥을 동반하죠 (5) 승마용 구두의 뒤축에 달린 쇠. ~를 가하다 (6) 태양대기의 가장 바깥층을 구성하고 있는 부분. 온도는 100만 °C 정도로 매우 높다. 바이러스가 붙어서 역병이 되었죠 (7) 어느 한 지방에서만 쓰는, 표준어가 아닌 말 (8) 간절히 바람 (9) 진 땅에서 신도록 나무를 파서 만든 신 (11) 밤이나 대추, 송화, 쌀, 깨 따위의 가루를 곁과 엮으로 반죽하여 판에 찍어 만든 전통 과자 (13) 사람의 크기와 같게 만든 불상 (15) 아직 코뚜레를 꿰지 않고 목에 고삐를 맨 송아지 (16) 해외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끄는 한국의 대중문화. BTS 열풍으로 ~팬 1억 명 시대 눈앞 (17) 집에서 기르는 짐승 (18) 토지와 마을을 지켜 준다는 신을 모신 집 (21) 농사짓는 데 쓰는 땅 (24) 겨냥한 곳에 바로 맞음 (25) 여기서 얼굴과 손을 씻죠 (27) 가운뎃손가락 (28) 집을 신거나 내리는 데 쓰이는 차. 두 개의 길쭉한 철 판이 나와 있죠 (29) 다리의 선에서 느껴지는 아름다움 (30) 옷을 여밀 때 끼우죠 (31) 사람 모양으로 만든 장난감

**세로열쇠**

(2) 잘못하여 명이나 지위를 크게 망침. 세 치 혀를 잘못 놀렸다간 ~을 당할 테니 조심해라 (3)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식용작물 가운데 하나. 열대 지방이 원산지인 우리나라에서는 온실에서 재배하죠 (4) 어떤 어려움이나 실패에도 꺾이지 않는 사람. 불口 (5) 이익을 적게 보고 많이 파는 것 (8) 쥐와 등나무가 서로 얽히는 것과 같이, 서로 적대시하거나 충돌함 (10) 형제, 자매 중에서 맨 나중에 난 사람 (12) 음식을 담는 그릇 (14) 남 괴롭히는 것을 일삼는 파렴치한 사람들의 무리 (15) 가축을 전문으로 치는 농업 (18) 자기의 이름을 써넣음 (19) 주머니 속의 송곳. 재능이 뛰어난 사람은 숨어 있어도 저절로 사람들에게 알려짐 (20) 겨울에, 동물이 활동을 중단하고 땅속 따위에서 겨울을 보내는 일. 겨울잠 (22) 겨울에 비친 미인. 실속이 없는 일. 경우가 바르고 얽잡하다고 하여 서울·경기 지역 사람의 성격을 이르는 말 (23) 어린아이에게 더러운 것을 가리키며 이르는 말 (25) 자동차를 깨끗이 씻는 곳 (26) 다 각형에서 서로 이웃하지 아니하는 두 꼭짓점을 잇는 선분. 맞모름

**스도쿠**

			4						
7	4	5					1	6	
			6	1				9	
8						5	2	1	
			1				8		
	9		8				3	6	4
				9	1	6			7
1	6			2					3
				6	4	5	1		8



자료제공 = 올드독 (www.gobook2.com)



**스도쿠** 문제풀이 스도쿠는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게임입니다. 가로·세로는 물론 사각형 3X3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적어 넣어야 합니다.

8	1	5	4	9	2	3	7	6
3	4	6	8	2	5	7	9	1
2	2	9	1	6	3	8	5	4
4	9	3	2	7	8	1	6	5
6	5	8	9	3	1	4	2	7
1	7	2	5	4	6	9	3	8
5	6	4	7	1	9	2	8	3
9	3	1	6	8	2	5	4	7
2	8	7	3	5	4	6	1	9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 제일의 종합일간지!**

**㉠ 워싱턴 중앙일보**

**1년 정기 구독료 \$150**

“ 중앙일보 1년 정기 구독료가 **\$150(선납)**으로 오는 **7월 1일** 부터 조정되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한인 마켓과 식당 등 80여개의 기존 가판대에서는 무료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 생활안내 구인/구직 줄 광고는 월 \$20로 계속해서 지역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게재됩니다. ”

워싱턴중앙일보는 애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는 신문사가 되기를 약속드립니다.

**정기구독 신청 및 문의: 703-281-9660, 1**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 워싱턴 중앙일보 구독신청서**

성명 (Name)	영문 (Eng)	한글 (Kor)
주소 (Address)		
연락처 (Phone #)	Home	Cell
구독료 (Subscription Fee)	1년 선납 \$150	지불 방법 <input type="checkbox"/> Check <input type="checkbox"/> Bill <input type="checkbox"/> Credit Card <input type="checkbox"/> Pay to the Order of: The Korea Daily
카드 정보 (Card Info)	카드 종류 <input type="checkbox"/> VISA <input type="checkbox"/> Master <input type="checkbox"/> Amex <input type="checkbox"/> Discovery <input type="checkbox"/> 카드 번호	카드 유효기간 (EXP. DATE): / / CVS: month year
신청서 보내실 곳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20 년 월 일 서명 (sign):		

\* 신청하신 신문은 신청일(구독료 완납기준) 2일 후부터 배달되며 2일이 지나도 신문이 배달되지 않을 경우 구독부(703-281-9660, 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Nation Wide **미전지역 안내광고 동시게재** 광고문의 213-368-2525  
 LA · 뉴욕 · 시카고 · 애틀랜타 · 워싱턴 DC

기타 지역

구인

아침유경험 양식

특별우대, 숙식제공  
 가족같이 오래 계실분  
 알래스카 식당  
 (907)545-5933

달리버리/주방일하실분

부부팀도환영, 숙식제공  
 알래스카 (907)855-1228

koreadailyus.com



한인사회의 든든한 대변인  
 미주 중앙일보는 한인사회의  
 뉴스와 목소리를 주류사회와  
 한인 2~3세들에게 전달하고자  
 영어뉴스 사이트  
 (Koreadailyus.com)를  
 출범시켰습니다.  
 Koreadailyus.com은  
 주류사회에 한인사회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든든한 대변인이 되었습니다.

us.srotech.com **건식온돌 난방**  
**차콜온돌** **진짜가 나타났다**  
 친환경탄소복합소재  
 전통온돌의 우수성을  
 재현한 조립식  
 구들장입니다.  
 너무나 쉬운 설치  
 시공 영상  
 시청하세요~  
 us.srotech.com  
 지사 및 대리점 모집  
 문의 510-381-0301

**법무사가 되세요**  
 대면 수업 시작!!!  
 항상 고소독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누구나 쉽게 배워 자격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회자와 사모님을 위한 반을 다시 시작합니다!  
 International Pacific University  
 InterpacU.com  
 (213) 674 - 7000



**개인 / 비즈니스 / 용자전문**  
 ▶ GOOD크레딧, BAD 크레딧 상관없이 용자상담환영  
 ▶ 비즈니스론, SBA론, 머천트론 전문  
 ▶ 개인용자, 카드용자 및 현금화 전문  
 ▶ 집 모기지 페이먼트 험트신분  
 ▶ 메이저은행에서 용자 거절된분 환영  
 ▶ 다산크레딧카드 한도 증액 후 재용자 가능  
 ▶ 사업체 운영 / 매매 / 폐업시 용자 가능  
 ▶ 역이민 고려하시면 연락오망 (귀국플랜)  
 ▶ 나쁜크레딧 리퍼어 빌드업 전문  
 중부컨설팅 (213)357-1010, (213)820-3912

80~90대 · 비아그라 효과 없는 남성도 30분 전에  
 1알 복용으로 1주일 지속효과  
 강직도 · 지구력 단번에 해결, 만성 발기부전,  
 전립선비대증, 고혈압, 통풍, 근본 원인 치료  
 남성용 1등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즉효성 남성 발기제  
 & 남녀공용 성욕 강화제 유희유  
 1-213-210-9720/papaaaa.com

**서류 대행업소 매매**  
 LA 한인타운 최고의  
 이민, 법률 서류 대행 사무실  
 • 가격 \$36만 • 주5일 (9-5시)  
 • 월순의 \$1만5천 • 30년 운영 은퇴  
 (213)712-4294

Leisure World Seal Beach, CA  
**고품격 은퇴마을**  
 주택 구매자 조건  
 1. 연령: 만 55세 이상  
 (부부일 경우 한분만도 가능)  
 2. 지난 2년동안 세금보고서 사본  
 (첫째와 둘째 페이지 필요)  
 3. 401K, 은퇴연금, \$2,5만 or \$5만  
 (6개월 이상 은행에서 증명서 사본)  
 4. 집구매는 일시불로 지불  
 (Monthly Association Due와 Property Tax를  
 합한 액수의 4배 이상 월수입이 있어야 됨)

"황혼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알고 계십니까? 유토피아 라고도  
 불리는 완벽한 시설  
 바닷가 인근에 시니어를 위한  
 실버타운 "레저월드"  
 레저월드에서 거주하고 있는 전문 Agent  
 Philip Y. Bak (박윤택) Bro#01895031  
 Direct: (213)550-9991  
 Office: (562)235-3760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립니다.  
 Berkshire Hathaway baksusa@yahoo.com




미라클러치라 살매 **Up to 40%**  
 핫샷세일  
 5파운드 이상 구입시 흥세인 가격 판매  
 • 30년 1파운드 \$750 → \$550  
 • 40년 1파운드 \$1,500 → \$950  
 • 50년 1파운드 \$2,350 → \$1,500  
 • 건강삼 40% ~ 50% 파격세일  
 US Wildlife & Natural Food Inc. (Dealer #90-447305)  
 3003 W. Olympic Bl, #201 LA, CA 90006  
 (213)800-3662 (818)518-0033

**치질·치루 수술 안하고 OK**  
 미라클러치로 발기 능력 쑥쑥  
 향문폴립·변비·요실금도 해방  
 새끼손가락 크기 향문삽입, 사용 간편합니다  
**위산역류 확실히 좋아집니다**  
 미라클러치로 뱃속 독소 제거  
 불면증·이명·각종 통증도 탈출  
 아픈 부위 30초만 대면 독소가 터져 나옵니다  
 LA (213)675-6877 | OC (213)255-1410

**잠 못 이룰 정도로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중풍·류마티스 관절염은 불치병이 아닙니다.**  
**요통, 척추간 협착증, 오십견 [수술·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히스패닉 **중풍환자**  
 2개월 치료받고  
 "이제 웃을 수 있어요"  
 10여일 만에  
**뼈아픈 류마티스**  
**관절염 통증**에서  
 벗어난  
 실제 치료사례  
 성민산삼한방병원  
 환자 가족 모두 놀라는 중풍환자 실제 치료사례  
 [사진 왼쪽, 서영수 한의학박사와 델희노씨] Tel. 213.385.3304 Cell. 213.503.3304  
 [사진 오른쪽 치료전, 치료후]

**전립선**  
**온열치료기 J2V-N**  
 www.book7080.com **핀지 보기 >**  
**전립선 암 예방 및 치료 효과**  
 \*30일 전액 환불제 실시 **www.J2V.co.kr**  
 드림바이오메디칼 (714)926-4607 2054 S. Euclid St #H, Anaheim, CA 92802 **YouTube "대전 메디칼을 검색하세요"**

- 가정에서 간편하고 편안하게 경제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 특허청 100대 우수특허대상 (생명공학 부문) 수상
- 경화되고 비대해진 전립선 조직체를 정상상태로 회복시켜 줍니다.
- 야뇨, 잔뇨, 빈뇨 증상에 특히 효과적입니다.
- 약물치료로 효과보지 못하신 분
- J2V 전립선치료기는 안전한 물리적 치료방법으로 부작용이 없습니다.

**신제품**  
 전립선 온열치료기 새롭게 나왔습니다.  
 치료기능 향상 | 충전량 표시 | 약정화면 향상



당뇨환자와 다이어트에 **희소식!**  
**칼로리를 내리는 날씬한 저당밥**  
 탄수화물은 낮추고 **내 몸을 건강하게**  
 당뇨와 다이어트에 좋은 저당밥을 SALE  
**banustory.com | 213.800.5749**  
 1세대 저당 밥솥  
 New 2세대 스테인리스 304 내솥 직접가열식  
 40% ~ 49% 탄수화물 DOWN



교통사고 치료 전문



# 멜시척추신경

여러분 가정의 건강을 지켜드리겠습니다.



24년 임상경험의

##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 치료 병원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 ▷ 교통사고 · 운동사고 · 직장사고
- ▷ 스포츠 · 노동 후유증
- ▷ 오십견 및 급만성 요통
- ▷ 좌골 신경통

- ▷ 척추측만, 거북목 증후군
- ▷ 관절 클리닉
- ▷ 손발 통증 및 저림

- 최신 물리치료, X-Ray 완비
- 유학생 보험 / 여행자 보험
- 교통사고 보험처리에 필요한 모든 서류작성을 도와드립니다.
- 실력있는 변호사 선임



전문의 박종현

한 의사 김경환

전문의 정지현

[www.jungmercyclinic.com](http://www.jungmercyclinic.com) • Email : [jungspinechiropractic@gmail.com](mailto:jungspinechiropractic@gmail.com)



애난데일

703.256.3005

7535 Little River Trpk. #200-B  
Annandale, VA 22003  
(한국일보 옆 건물 2층)



센터빌

703.830.0993

13880 Braddock Rd., Suite 102  
Centreville, VA 20121



엘리콧시티

410.465.3221

9005 Chevrolet Dr. #4  
Ellicott City, MD 21042

